

各司膳錄

# 각사등록 평안도편 3 역사기후 자료집

平安監營啓錄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 3

各司臚錄 31책, 平安監營啓錄

1852년(철종 3)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1853년(철종 4)

1855년(철종 6)~1858년(철종 9)

各司臚錄 33책, 平安監營啓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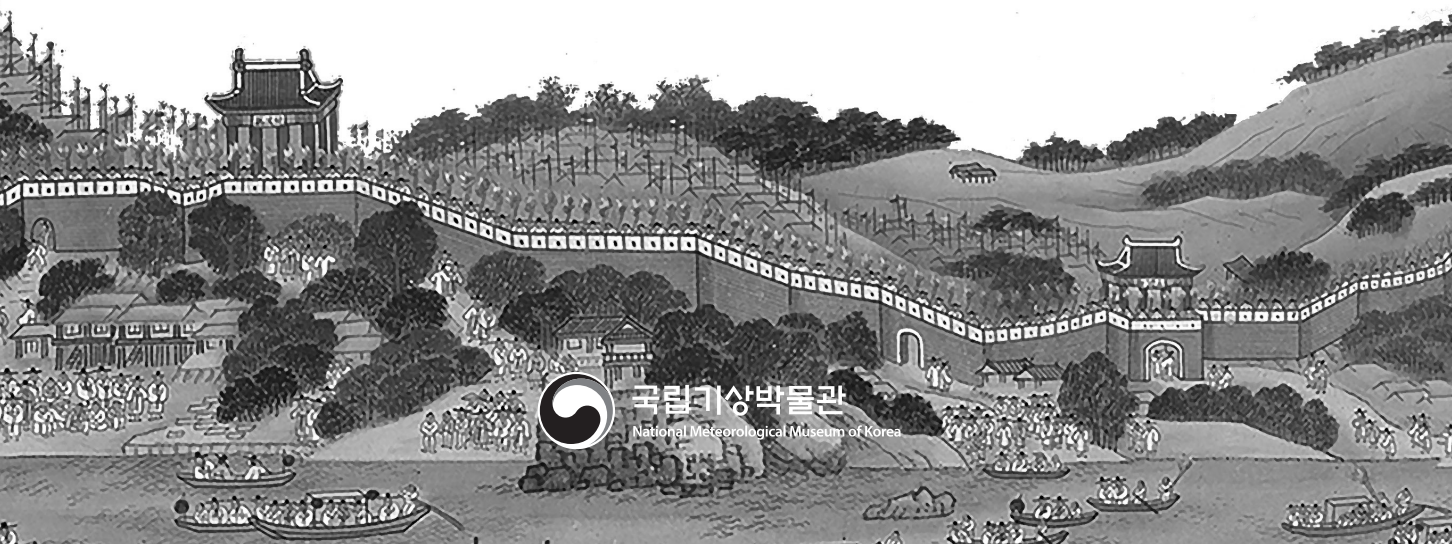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64년(고종 1)~1866년(고종 3)



各司廳錄  
각사등록 평안도편 3  
역사기후 자료집

平安監營啓錄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 목 차

일련번호	서기 / 왕력	등록(책)	각사등록(책)	쪽수
0459-0467	1852년 철종 3년	평안감영계록 23책	각사등록 31책	8
0468-0476	1853년 철종 4년	평안감영계록 24책	각사등록 32책	23
0477	1855년 철종 6년	평안감영계록 25책	각사등록 32책	33
0478-0523	1856년 철종 7년	평안감영계록 25책	각사등록 32책	34
0524-0554	1857년 철종 8년	평안감영계록 25, 26책	각사등록 32책	103
0555-0588	1858년 철종 9년	평안감영계록 26, 27책	각사등록 32책	150
0589-0612	1861년 철종 12년	평안감영계록 29책	각사등록 33책	200
0613-0633	1862년 철종 13년	평안감영계록 29책	각사등록 33책	235
0634-0663	1864년 고종 1년	평안감영계록 30책	각사등록 33책	265
0664-0693	1865년 고종 2년	평안감영계록 31책	각사등록 33책	307
0694-0725	1866년 고종 3년	평안감영계록 31, 32책	각사등록 33책	347





---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 3

---

## 0459. 1852년(철종 3) 6월 26일(양력 8월 11일)

各司臚錄 31책, 平安監營啓錄 23책(709a-709c) / 平安監營啓錄 23책(1a-1b)

道內農形雨澤, 前道臣在任時, 已爲連續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間或入實, 晚黍粟·稷唐·早稻, 漸次發穗, 木花方始結穎, 晚稻胚胎, 豆太起花, 根豆·木麥, 再鋤垂畢.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今方發穗, 晚黍粟·稷唐·早稻, 方張胚胎, 木花間始起花, 晚稻·豆太, 三鋤過半, 根豆·木麥, 初鋤伊始.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三鋤, 根豆·木麥立苗是如爲白乎旃. 今二十四日卯時量始雨, 或霖或灑, 間或止歇, 二十六日戌時至, 測雨器水深爲六寸, 而載陰載陽, 尙未開霽是白如乎. 臣之荏[莅]任屬耳, 省內穡事, 姑未及周察, 而觀於報牒, 粗有所領略是白如乎. 跨月霖雨, 瘠稼旣多, 而繼以數十日, 一直噴曝, 旱田病澇之苗, 又多萎枯之患, 來頭成就, 雖未可知, 而目下所見, 殊甚悶然, 嗣後形止及列邑得雨多寡, 待其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이전 관찰사가 재임할 때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  
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혹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점차 이삭이 패고, 목화는 막  
다래를 맺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  
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  
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그사이에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세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 하였고, 그루같이  
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번 24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혹 그치더니 26일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였으며,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면서 아직도 개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내 농사를 아직 두루 살피기에 이르지 못했지만, 보고 문서에 보니 대충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에 걸친 장마로 손상된 곡식이 이미 많은데, 이어서 수십 일 동안 줄곧 햇볕이 내리쬘니 밭의 장마에 병든 싹이 또 시들어 마를 근심이 많으니, 앞으로 여무는 것은 비록 알 수 없지만, 현재 보는 것으로는 특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 및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60. 1852년(철종 3) 7월 2일(양력 8월 16일)

各司臚錄 31책, 平安監營啓錄 23책(711a-711b) / 平安監營啓錄 23책(4a-4b)

道內農形及臣營下去月二十四五六日得雨六寸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順川·成川兩邑, 江川漲溢. 中和·祥原·江東·殷山·慈山·肅川·永柔·江西·寧邊等九邑, 川渠漲滿. 安州·義州·三登·博川·嘉山等五邑, 川渠微漲. 咸從·鐵山兩邑, 得一犁. 平壤·龍岡·定州等三邑, 得二鋤. 順安·甑山·三和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旃. 臣營下二十九日丑時量又雨, 或霏或灑, 東風連吹, 本月初二日辰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四寸四分是白如乎. 俟旬之雨, 洽過尺餘, 重之以乖風, 當此各穀發穗之時, 難保無瘳損之慮, 言念穡事, 殊甚憧憧. 各邑所得多寡, 各穀被損形止, 待其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지난달 24·25·26일에 내린 비가 6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순천·성천 2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고, 중화·상원·강동·은산·자산·숙천·영유·강서·영변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안주·의주·삼동·박천·가산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함흥·철산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용강·정주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순안·증산·삼화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29일 축시쯤에 또 비가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동풍이 연이어 불더니 이번 달 초2일 진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4푼이었습니다. 10일 동안의 비로 두루 한 자 남짓을 넘었는데, 괴상한 바람이 겹치니, 이렇게 각종 곡식의 이삭이 패는 시기에 손상될 염려가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특히 매우 안타깝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과 각종 곡식의 피해 경위는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61. 1852년(철종 3) 7월 6일(양력 8월 20일)

各司謄錄 31책, 平安監營啓錄 23책(711c-712b) / 平安監營啓錄 23책(5a-6a)

順川等二十四邑去月二十四五六日雨澤及臣營下二十九日至本月初二日得雨四寸四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四五六日之雨, 价川·宣川·孟山等三邑, 江川漲溢. 雲山川渠漲滿, 陽德·龍川兩邑, 川渠微漲. 二十九日至本月初二日之雨, 平壤·中和·順安·肅川·安州·宣川·鐵山·寧邊等八邑, 江川漲溢. 嘉山·郭山·龍川·義州·博川·殷山·成川·价川·順川·永柔·陽德等十一邑, 川渠漲滿. 泰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祥原·三登·江東等九邑, 川渠微澤. 雲山·朔州·龜城等三邑, 得二犁, 定州段, 沿邊各處, 海潮汎濫, 污下之田, 在在沈墊.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幾至入實, 晚黍粟·稷唐·早稻, 次第發穗, 木花間多結穎, 晚稻漸次發根, 豆太方張起花, 根豆·木麥, 再鋤伊始.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已盡發穗, 晚黍粟·稷唐·早稻, 方始發穗, 木花幾盡起花, 晚稻·豆太, 三鋤垂畢, 根豆·木麥, 再鋤方始.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四鋤伊始, 根豆·木麥, 間或初鋤, 而平壤·順安·中和·慈山·价川·殷山·成川·永柔·咸從·三和·龍岡·定州·郭山·龍川·鐵山·德川·寧遠等十七邑段, 去晦暴雨, 加之以數日瘴風, 田種之發穗向熟者, 舉皆披靡撲落. 江西·甑山·宣川等三邑段, 畚稼蟲蝕, 亦多受損是如爲白乎所. 久滂瘴稼之餘, 風災蟲損, 若是迭發, 言念穡事, 轉益憂悶. 未報邑災形淺深, 雨水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순천 등 24개 고을의 지난달 24·25·26일의 우택 및 저의 감영에 29일에서 이번 달 초2일 까지 내린 비가 4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4·25·26일의 비로 개천·선천·맹산 등 3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고, 운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양덕·용천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29일에서 이번 달 초2일까지의 비로 평양·중화·순안·숙천·안주·선천·철산·영변 등 8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고, 가산·곽산·용천·의주·박천·운산·성천·

개천·순천·영유·양덕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태천·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상원·삼등·강동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운산·삭주·구성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습니다. 정주의 경우, 바닷가 각 곳에 바닷물이 범람하여 낮은 지대의 밭은 곳곳에서 물에 잠겼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알이 들기에 이르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목화는 그사이에 많이 다래를 맺었고, 늦벼는 점차 이삭이 패고, 콩·팥은 한창 꽃이 피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막 이삭이 패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거의 다 꽃이 피었고, 늦벼·콩·팥은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가 막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네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합니다. 평양·순안·중화·자산·개천·은산·성천·영유·함중·삼화·용강·정주·곽산·용천·철산·덕천·영원 등 17개 고을의 경우, 지난 그믐의 폭우에 며칠 동안 사나운 바람이 더하여 이삭이 패고 익어가던 밭곡식은 대부분 꺾여 쓰러지거나 두들겨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강서·중산·선천 등 3개 고을의 경우, 논곡식은 벌레가 먹어 또한 받은 손상이 많다고 합니다. 오랜 장마로 곡식이 손상된 끝에 바람의 재해와 벌레의 손상이 이처럼 번갈아 발생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더욱더 근심·걱정입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재해 상황의 정도와 빗물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62. 1852년(철종 3) 7월 16일(양력 8월 30일)

各司臚錄 31책, 平安監營啓錄 23책(720c-720d) / 平安監營啓錄 23책(16b-17b)

道內農形及平壤等三十二邑去月二十九日至本月初二日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慈山·孟山·寧遠·德川·熙川等五邑, 江川漲溢. 江界·渭原·楚山·昌城·碧潼等五邑, 川渠漲滿. 臣營下今十四日午時量始雨, 霏灑東風, 達夜不止, 十五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 而尙未快霽是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間或向熟, 晚黍粟·稷唐·早稻, 今始入實, 木花顆房漸堅, 晚稻次第發穗, 豆太結殼, 根豆·木麥, 再鋤垂畢.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今方入實, 晚黍粟·稷唐·早稻, 幾盡發穗, 木花方始結顆, 晚稻胚胎, 豆太起花, 根豆·木麥, 再鋤幾畢.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胚胎, 根豆·木麥, 間或再鋤, 而沿邑之海溢潰堰鹹損全棄處, 山野之水沈汰落風災偏酷者, 更無蘇醒之望是如(是)爲白乎旆. 目下災形, 清北較甚於以南, 而秋候漸晚, 難期桑榆之收, 言念民事, 萬萬憂悶.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평양 등 32개 고을의 지난달 29일에서 이번 달 초2일까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자산·맹산·영원·덕천·회천 등 5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고, 강계·위원·초산·창성·벽동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4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더니 동풍이 밤새도록 그치지 않더니 15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고, 아직도 말끔하게 개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혹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지금 알이 들기 시작하였고, 묵화는 다래방이 점점 단단해지고, 늦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콩·팥은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막 다래를 맺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합니다.

바닷가 고을에서 바닷물이 넘쳐 독이 무너지고 소금기로 손상돼서 전부 포기한 곳과 산골과 들판에서 물에 잠기거나 사태로 떨어져 나가고 바람의 재해가 매우 심한 것은 되살아날 가망이 다시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재해 상황은 청천강 북쪽이 남쪽보다 비교적 심합니다. 가을 절기가 점점 늦어지니 추수할 때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근심·걱정입니다. 이후 경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63. 1852년(철종 3) 7월 19일(양력 9월 2일)

各司謄錄 31책, 平安監營啓錄 23책(721a-721b) / 平安監營啓錄 23책(17b-18a)

道內農形及臣營下本月十四日午時始雨, 十五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宣川·陽德兩邑, 川渠漲滿. 肅川·永柔·江西·三和·甑山·价川·嘉山·定州·龍川等九邑, 川渠微漲. 慈山得二犁. 平壤·順安·中和·祥原·江東·順川·龍岡·咸從·泰川·博川·雲山·郭山·鐵山等十三邑, 得一犁. 義州·殷山兩邑, 得二鋤, 安州·寧邊兩邑, 得一鋤. 龜城泥塵是如爲白乎旂. 臣營下十八日亥時量又雨, 一直霍下, 當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四寸六分是白如乎. 一夜之雨, 幾至半尺之多, 而東風連吹, 尙無霽意, 當此各穀垂成之時, 風雨頻仍, 痒損旣多, 蘇醒無望, 民情穡事, 去益憂悶.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4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5일 신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3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선천·양덕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숙천·영유·강서·삼화·증산·개천·가산·정주·용천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자산은 2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중화·상원·강동·순천·용강·함중·태천·박천·운산·곽산·철산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의주·은산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안주·영변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구성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18일 해시쯤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주룩주룩 내리다가 그날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6푼이었습니다. 하룻밤의 비가 거의 반 자에 이르도록 많고, 동풍이 연이어 불며 아직도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거의 익은 시기에 비바람이 빈번하여 손상이 이미 많고 되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백성들의 심정과 농사는 갈수록 근심·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64. 1852년(철종 3) 7월 26일(양력 9월 9일)

各司臚錄 31책, 平安監營啓錄 23책(723a-723c) / 平安監營啓錄 23책(21a-21b)

宣川等三十邑本月十四五日雨澤及臣營下十八日至十九日之雨, 測雨器水深爲四寸六分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四五日之〈雨〉, 熙川·江界·渭原等三邑, 江川漲溢. 三登·成川·孟山·寧遠·德川等五邑, 川渠微漲. 楚山·昌城·碧潼·朔州等四邑, 得二犁, 十八九日〈之〉雨, 江西·龍岡·三和·咸從·殷山·陽德等六邑, 川渠漲滿. 順安·肅川·順川·甑山·龜城等五邑, 川渠微漲. 雲山·碧潼兩邑, 得二犁. 平壤·中和·祥原·三登·江東·永柔·慈山·价川等八邑, 得一犁, 義州·龍川·鐵山·宣川·郭山·定州·嘉山·博川·安州等九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間或刈取, 晚黍粟·稷唐·早稻, 今方向熟, 木花顆房已堅, 晚稻方始入實, 豆太幾盡結殼, 根豆·木麥, 爛熳起花.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方始向熟, 晚黍粟·稷唐·早稻, 漸次入實, 木花舉皆結顆, 晚稻方張發穗, 豆太今始結殼, 根豆·木花, 方始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次第發穗, 根豆·木麥, 再鋤幾畢是如爲白有臥乎所. 水災風損之已或全棄者, 固無可論, 而近日驟涼不漸, 晚種之猶有餘望者, 亦難保其桑榆之收, 言念穡事, 萬萬憂悶.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선천 등 30개 고을의 이번 달 14·15일의 우택 및 저의 감영에 18일에서 19일까지의 비로 측우기 수심이 4치 6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4·15일의 비로 희천·강계·위원 등 3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고, 삼등·성천·맹산·영원·덕천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초산·창성·벽동·삭주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18·19일의 비로 강서·용강·삼화·함중·은산·양덕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순안·숙천·증산·구성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운산·벽동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양·중화·상원·삼등·강동·영유·자산·개천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의주·용천·철산·선천·곽산·정주·가산·

박천·안주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혹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지금 막 익어가고, 목화는 다래방이 이미 단단하고, 늦벼는 막 알이 들기 시작하였고, 콩·팥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막 익어가기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점차 알이 들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었고, 늦벼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콩·팥은 지금 꼬투리를 맺기 시작하였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막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차례로 이삭이 패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수해나 바람의 손상으로 이미 더러 전부 포기한 경우는 진실로 따질 것도 없고, 요즈음 갑작스러운 서늘함이 심해지지는 않으니 씨앗을 늦게 뿌린 것은 오히려 남은 가망이 있지만, 또한 추수할 때 수확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매우 근심·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65. 1852년(철종 3) 8월 6일(양력 9월 19일)

各司臚錄 31책, 平安監營啓錄 23책(724d-725a) / 平安監營啓錄 23책(24a-24b)

道內農形及江西等三十邑去月十八九日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江界·渭原·楚山·昌城·朔州等五邑, 川渠微漲. 成川·寧遠·孟山·德川·寧邊·熙川·泰川等七邑, 得二犁是如爲白乎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幾盡刈穫, 晚黍粟·稷唐·早稻, 漸次成熟, 木花早顆漸綻, 晚稻舉皆入實, 豆太間或向熟, 根豆·木麥, 方始結殼.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次第成熟, 晚黍粟·稷唐·早稻, 方始向熟, 木花顆房漸堅, 晚稻幾皆發穗, 豆太方張結殼, 根豆·木麥, 舉皆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盡發穗, 根豆·木麥, 三鋤伊始是如爲白有臥乎所. 早種之均之被災損, 已無可論, 而晚穀之猶有蕲[蘄]望者, 只是霜信之差退而已. 近日乍雨催涼, 秋候不漸, 言念穡事, 實不勝憧憧. 緣由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강서 등 30개 고을의 지난달 18·19일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계·위원·초산·창성·삭주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성천·영원·맹산·덕천·영변·회천·태천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베어 수확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점차 익어가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점차 숨이 터지고, 늦벼는 대부분 알이 들었고, 콩·팥은 간혹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막 익어가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점 단단해지고, 늦벼는 대부분 이삭이 났고,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메

밀은 대부분 꽃이 피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숙은 거의 다 이삭이  
됐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올곡은 모두 재해  
와 손상을 입었으니 이미 따질 것도 없지만, 늦곡은 여전히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니  
단지 서리 소식이 조금 물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잠깐씩 비가 서늘함을 재촉  
하지만, 가을 날씨가 심하지는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안타까움을 이기지 못하  
겠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466. 1852년(철종 3) 8월 16일(양력 9월 29일)

各司臚錄 31책, 平安監營啓錄 23책(728d-729a) / 平安監營啓錄 23책(28b-29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今方登場, 晚黍粟·稷唐·早稻, 間或刈取, 木花今始摘絮, 晚稻·豆太, 漸次向熟, 根豆·木麥, 方始成實.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間或刈穫, 晚黍粟·稷唐·早稻, 幾盡成熟, 木花早顆漸綻, 晚稻方始入實, 豆太過半結殼, 根豆·木麥, 間或結殼.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日漸向熟, 根豆·木麥, 間或起花是如爲白有臥乎所. 近因秋候調適, 霜信差退, 桑穡[榆]之收, 尙冀萬一之幸, 而沿峽之早種黍粟, 已判先[失]稔於棲畝之時, 及其登場, 益見其未免全荒, 民情穡事, 轉益憂悶. 緣由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타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간혹 베어 거두고, 목화는 지금 솜을 따기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점차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혹 베어 수확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거의 다 익었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점점 솜이 터지고, 늦벼는 막 알이 들기 시작하였고, 콩·팥은 절반 이상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간혹 꼬투리를 맺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날로 점점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간혹 꽃이 핀다고 합니다. 요즈음 가을 기후가 조화롭고 적절함에 따라 서리 소식은 조금 물러났으니, 추수할 때 수확은 아직도 만에 하나라도 기대가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물가나 산골의 올되는 종자인 기장·조는 먼저 논밭에 있을 때 이미 흉작으로 판가를 났는데, 타작하기에 이르러 더욱 완전한 흉작에서 벗어나지 못함이 드러납니다. 백성들의 심정과 농사는 갈수록 근심·걱정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467. 1852년(철종 3) 8월 26일(양력 10월 9일)

各司臚錄 31책, 平安監營啓錄 23책(730d-731a) / 平安監營啓錄 23책(32a-32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登場, 晚黍粟·稷唐·早稻, 幾盡刈獲, 木花方張摘取, 晚稻·豆太, 已盡成熟, 根豆·木麥, 今方向熟.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舉皆登場, 晚黍粟·稷唐·早稻, 今始刈取, 木花間或摘架, 晚稻今方向熟, 豆太次第入實, 根豆·木麥, 方始入實.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盡成熟, 間或刈取, 根豆·木麥, 幾盡結殼. 孟山今月初八日夜, 肅川·博川·宣川·龜城等四邑, 十五日夜, 順川·江東·德川·价川·殷山·成川·三登·鐵山·熙川·江界·三和等十一邑, 十八日夜, 水霜降下. 雲山·陽德·龍川·朔州等四邑, 十九日夜, 嚴霜降下是如爲白有臥乎所. 見今霜信已催, 穡事垂畢, 一路災實, 各邑分等, 更加詳探, 追後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둥·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타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거의 다 베어 수확하였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고 있고, 늦벼·콩·팥은 이미 다 익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막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타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지금 베어 거두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간혹 솜을 따고, 늦벼는 지금 막 익어가고, 콩·팥은 차례로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거의 다 익었는데 간혹 베어 거두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다고 합니다.

맹산은 이번 달 초8일 밤에, 숙천·박천·선천·구성 등 4개 고을은 15일 밤에, 순천·강동·덕

천·개천·은산·성천·삼등·철산·희천·강계·삼화 등 11개 고을은 18일 밤에 무서리가 내렸고, 운산·양덕·용천·삭주 등 4개 고을은 19일 밤에 된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 서리 소식이 이미 재촉하고 농사가 거의 끝났으니, 도내 전체의 재해와 결실, 각 고을의 등급은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68. 1853년(철종 4) 2월 21일(양력 3월 30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4책(68a-68a) / 平安監營啓錄 24책(52b-52b)

卽接義州府尹金世均本月十九日酉時成貼狀啓謄報內, 今春中江開市, 大國人盡數出來是如爲白有旂, 一時到付該府尹同日同時成貼狀啓謄報內, 鴨綠江上下流, 今已畢解冰是如爲白有等以,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접수한 의주 부윤 김세균이 이번 달 19일 유시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내용에, 이번 봄 중강개시에 대국 사람이 정해진 수는 전부 오갔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도착한 의주 부윤의 같은 날 동시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 내용에 압록강 상·하류가 지금 이미 얼음이 다 풀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69. 1853년(철종 4) 2월 27일(양력 4월 5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4책(68d-68d) / 平安監營啓錄 24책(53b-53b)

卽接各邑所報，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麴麥今始抽芽，春麴隨其土解，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春寒尙峭，土脈未融，東作自致差晚是白如乎。凡係課農之節，另加申飭，使之着意舉行，外此諸邑，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땅이 풀리는 대로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봄추위가 아직도 매섭고 땅이 녹지 않아 봄농사가 자연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사철에 해당하는 사항은 모두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여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의 여러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70. 1853년(철종 4) 3월 2일(양력 4월 9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4책(69c-69c) / 平安監營啓錄 24책(55a-55a)

平壤等十九邑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本月初一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日乎[如]乎. 列邑均霑與否,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19개 고을의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고루 적셨는지 여부와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71. 1853년(철종 4) 3월 7일(양력 4월 14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4책(69d-70a) / 平安監營啓錄 24책(55b-56a)

本月初一日之雨, 爲一寸四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三和得二犁.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甑山·江西·龍岡·咸從·順川·江東·成川等十二邑, 得一犁. 祥原·三登·殷山等三邑, 得二犁. 中和·慈山·价川·泰川等四邑, 得一鋤.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次第抽芽, 春麴今方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博川·泰川·龜城等十七邑, 秋麴麥今始抽芽, 春麴間或耕播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初六日卯時量始雨, 或灑或霏而止歇,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 而一向陰翳, 尙無霽意是白如乎. 前後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平事.

이번 달 초1일의 비로 1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삼화는 2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증산·강서·용강·함중·순천·강동·성천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원·삼등·은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중화·자산·개천·태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지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박천·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박천·태천·구성 등 17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6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으며, 줄곧 짙은 구름이 끼어 아직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72. 1853년(철종 4) 3월 17일(양력 4월 24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4책(75b-75c) / 平安監營啓錄 24책(63a-63b)

本月初六日七日得雨一寸五分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郭山·宣川·鐵山·龍川等四邑浥塵. 价川·寧邊·博川·義州等四邑, 得一鋤.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泰川等六邑, 得二鋤. 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陽德·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等十四邑, 得一犁.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幾盡抽芽, 春牟已訖耕播, 漸次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次第抽芽, 春牟方張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6일·7일에 내린 비가 1치 5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꾀산·선천·철산·용천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개천·영변·박천·의주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태천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양덕·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자산·은산·순천 등 14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점차 싹이 돋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꾀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조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73. 1853년(철종 4) 3월 19일(양력 4월 26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4책(75c-75d) / 平安監營啓錄 24책(63b-64a)

道內農形及郭山等二十八邑, 本月初六日七日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德川·雲山·龜城等三邑溫塵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十八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十九日卯時量止歇, 測雨器水深爲七分, 而一向陰翳, 尙無霽意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객산 등 28개 고을의 이번 달 초6일·7일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덕천·운산·구성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8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9일 묘시쯤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으며, 줄곧 짙은 구름이 끼어 아직도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74. 1853년(철종 4) 3월 23일(양력 4월 30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4책(77b-77b) / 平安監營啓錄 24책(66b-66b)

本月十八日九日得雨七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甑山湍塵. 平壤·安州·嘉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慈山·殷山·博川·寧邊等十六邑, 得一鋤. 永柔得二鋤, 順安·肅川·順川·价川等四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二十三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亥時量乃止, 測雨器水深, 洽爲二寸五分是白如乎. 前雨之未報, 今雨之多寡, 待其列邑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8일·19일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증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평양·안주·가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종·자산·은산·박천·영변 등 1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영유는 2서가 내렸고, 순안·숙천·순천·개천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2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해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이전의 비를 보고 하지 않은 것과 이번 비의 양은 여러 고을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75. 1853년(철종 4) 3월 26일(양력 5월 3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4책(77d-78b) / 平安監營啓錄 24책(67b-68a)

甌山等二十二邑本月十八九日雨澤及臣營下二十二日得雨二寸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八九日之雨, 成川·雲山·熙川·郭山·定州·義州·寧遠·孟山等八邑, 得一鋤. 宣川·德川兩邑, 得一犁. 二十二日之雨, 安州·嘉山·博川·慈山·寧邊等五邑, 得一鋤. 祥原得二鋤. 平壤·順安·永柔·肅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殷山·順川等十二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方始向青, 春牟幾盡立苗, 早黍粟今方播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遠[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舉皆抽芽, 春牟次第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旣始耕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증산 등 22개 고을의 이번 달 18·19일의 우택 및 저의 감영에 22일에 내린 비가 2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8·19일의 비로 성천·운산·회천·곽산·정주·의주·영원·맹산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선천·덕천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22일의 비로 안주·가산·박천·자산·영변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상원은 2서가 내렸고, 평양·순안·영유·숙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은산·순천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둥·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막 푸르러지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씨앗을 뿌립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돋고 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76. 1853년(철종 4) 4월 7일(양력 5월 14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4책(78c-79a) / 平安監營啓錄 24책(69a-69b)

道內農形及去月二十二日安州等十八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价川·德川·定州·郭山·宣川·鐵山·義州·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江東·成川·孟山等二十邑, 得一鋤. 三登·寧遠·龍川等三邑, 得二鋤. 陽德得一犁.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日漸茁茂, 春牟方始向青, 早黍粟間或立苗, 晚黍粟·稷唐·早稻·木花, 今方耕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次第就茁, 春牟已盡立苗, 早黍粟方張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幾盡播種是如爲白乎旆. 臣營下本月初六日子時量始雨, 或灑或霏, 至寅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 列邑均霑與否,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2일의 안주 등 18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개천·덕천·정주·곽산·선천·철산·의주·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강동·성천·맹산 등 2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삼등·영원·용천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양덕은 1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봄보리는 막 푸르러지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지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거의 다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그날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 이 고루 적셨는지 여부와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77. 1855년(철종 6) 11월 11일(양력 12월 11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91c-91c) / 平安監營啓錄 25책(6a-6b)

卽接義州府尹李豐翼本月初九日酉時成貼狀啓謄報內，鴨綠江上下流，間間合氷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접수한 의주 부윤 이풍익이 이번 달 초9일 유시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내용에, 압록강 상·하류에 간간히 얼음이 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78. 1856년(철종 7) 2월 25일(양력 3월 31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17b-117b) / 平安監營啓錄 25책(41b-41b)

卽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今始抽芽, 春牟餘寒尙峭, 姑未耕作是如爲白乎<脉>. 臣營下本月二十三日丑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四日酉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 列邑均霑與否,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남은 추위가 여전히 매서워 아직은 땅을 갈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3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4일 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이 고루 적셨는지 여부와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79. 1856년(철종 7) 2월 27일(양력 4월 2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19b-119c) / 平安監營啓錄 25책(45b-45b)

卽接義州府尹韓敬源本月二十五日申時成貼狀啓謄〈報〉內, 回還冬至兼謝恩使一行, 今二十四日酉時量, 回到柵內. 故延卜次, 訓導朴允謙, 首將校李東燁等, 入送柵外, 而本府境鴨綠江上下流, 今已畢解冰是如爲白有跡. 一時到付該府尹同日同時成貼狀啓謄報內, 靈江西岸今年春季統巡出派前往事, 盛京禮部回答一道, 傳致鳳城後, 受答通出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의주 부윤 한경원 이번 달 25일 신시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내용에, 되돌아오는 동지 겸 사은사 일행이 이번 24일 유시쯤에 되돌아 책문 안에 도착하였으므로 마중하려고 훈도 박윤겸, 우두머리 장교 이동엽 등이 책문 바깥으로 들어가 보냈는데, 본 의주부 압록강 상·하류에 지금 얼음이 이미 다 녹았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도착한 해당 부윤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내용에, 애강 서쪽 기슭에 올해 봄철 통순을 파견하여 나아가는 일로 성경 예부에 회답 공문 1통을 봉황성에 전한 뒤 회답을 받아 나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480. 1856년(철종 7) 3월 5일(양력 4월 9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20a-120b) / 平安監營啓錄 25책(47a-47b)

承政院開拆

平壤等十九邑農形及臣營下去月二十三、四日得雨八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江西得二犁, 中和·祥原·咸從·永柔等四邑得一犁, 平壤得二鋤, 龍岡·甌山兩邑得一鋤, 成川浥塵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次第抽芽, 春牟幾盡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博川·泰川·龜城等十七邑, 秋牟麥今始抽芽, 春牟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평양 등 19개 고을의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지난달 23·24일에 내린 비가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서는 2려가 내렸고, 중화·상원·함중·영유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은 2서가 내렸고, 용강·증산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성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박천·태천·구성 등 17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81. 1856년(철종 7) 3월 12/15일(양력 4월 16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21d-122a) / 平安監營啓錄 25책(49b-49b)

道內農形及去月二十三十四日江西等九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舉皆抽芽, 春牟次第立苗, 早黍粟間或播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日漸抽芽, 春牟方張耕種是如爲白乎旃. 臣營下今十三日巳時量始雨, 或灑或霏, 至十四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向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3·24일의 강서 등 9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돌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3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4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82. 1856년(철종 7) 3월 17일(양력 4월 21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22c-122d) / 平安監營啓錄 25책(50b-50b)

道內農形及今月十三四日得雨一寸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順安·肅川·順川·江西·江東等六邑得一犁，祥原得二鋤，龍岡·三和·咸從·甑山·永柔·中和·成川·慈山·价川·寧邊等十邑得一鋤，安州·博川兩邑浥塵是白遣。臣營下十六日丑時量又雨，或灑或霏，至當日戌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前雨之遠路未報，今雨之列邑所得，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3·14일에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숙천·순천·강서·강동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원은 2서가 내렸고, 용강·삼화·함중·증산·영유·중화·성천·자산·개천·영변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안주·박천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16일 축시쯤에 또 비가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그날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이전의 비를 거리가 멀어서 보고하지 않은 것과 이번 비로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83. 1856년(철종 7) 3월 21일(양력 4월 25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23a-123b) / 平安監營啓錄 25책(51a-51b)

本月十三四日平壤等十九邑雨澤，十六日得雨四分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十三四日之雨，三登·泰川兩邑得二鋤，陽德·德川·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朔州等十邑得一鋤，安州溫塵，十六日之雨，甑山·順安·肅川·順川·德川等五邑得一犁，江西·永柔·祥原·慈山等四邑得二鋤，平壤·咸從·中和·三登·江東·成川·价川·寧邊·博川等九邑得一鋤，龍岡·三和·安州·嘉山·郭山·泰川·陽德等七邑溫塵是如爲白乎旃。臣營下今月二十日戌時量始雨，或灑或霏，至二十一日巳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是白如乎。列邑之前後雨澤，今雨之所得多寡，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14일의 평양 등 19개 고을의 우택과 16일에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3·14일의 비로 삼등·태천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양덕·덕천·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삭주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안주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16일의 비로 중산·순안·숙천·순천·덕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서·영유·상원·자산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평양·함중·중화·삼등·강동·성천·개천·영변·박천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용강·삼화·안주·가산·곽산·태천·양덕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0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1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지금까지 우택과 이번 비로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84. 1856년(철종 7) 3월 25일(양력 4월 29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23c-123d) / 平安監營啓錄 25책(51b-52a)

今月十三四日三登等十三邑, 十六日甑山等二十五邑雨澤. 臣營下二十日二十一日得雨二寸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三四日之雨, 昌城·碧潼·江界等三邑得一鋤, 十六日之雨, 寧遠得一犁, 熙川·義州兩邑得一鋤, 鐵山·雲山兩邑浥塵. 二十日二十一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江西·三和·甑山·中和·慈山·殷山·順川等十一邑得一犁, 祥原·三登·龍岡·寧邊等四邑得二鋤, 咸從·价川·江東·陽德·定州·宣川·雲山等七邑得一鋤, 安州·博川兩邑浥塵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日漸向青, 春牟幾盡立苗, 早黍粟方張播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舉皆抽芽, 春牟次第立苗, 早黍粟間或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始耕是如爲白有臥乎所. 未到邑雨澤, 向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14일의 삼등 등 13개 고을과 16일의 증산 등 25개 고을의 우택, 저의 감영에 20일·21일에 내린 비가 2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3·14일의 비로 창성·벽동·강계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16일의 비로 영원은 1려가 내렸고, 희천·의주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철산·운산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0일·21일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강서·삼화·증산·중화·자산·은산·순천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원·삼등·용강·영변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함중·개천·강동·양덕·정주·선천·운산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안주·박천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

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보고가) 도착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85. 1856년(철종 7) 4월 5일(양력 5월 8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24c-124d) / 平安監營啓錄 25책(54a-54b)

去月二十日二十一日平壤等二十四邑雨澤〈及〉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成川·寧遠·德川·江界等四邑得一犁, 渭原得二鋤, 嘉山·郭山·鐵山·龍川·義州·朔州等六邑得一鋤, 龜城·泰川兩邑浥塵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漸得茁茂, 春牟今方向青, 早黍粟已訖耕播, 間或立苗,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次第播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日益向青, 春牟幾盡立苗, 早黍粟過半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畢耕是如爲白有臥乎所, 遠邑雨澤, 向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0일·21일의 평양 등 24개 고을의 우택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성천·영원·덕천·강계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위원은 2서가 내렸고, 가산·곽산·철산·용천·의주·삭주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구성·태천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점 싹이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지금 막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간혹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차례로 씨앗을 뿌립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더욱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땅 갈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먼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86. 1856년(철종 7) 4월 15일(양력 5월 18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30b-130c) / 平安監營啓錄 25책(60a-60b)

去月二十日二十一日成川等十三邑雨澤<及>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昌城·碧潼·渭原·楚山等四邑得一鋤.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日益茁長, 春麴次第就茂, 早黍粟既盡立苗, 晚黍粟·稷唐·早稻·木花, 過半耕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麴麥漸次茁茂, 春麴今方向青, 早黍粟已訖播種,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次第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麴立苗, 火粟始耕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0일·21일의 성천 등 13개 고을의 우택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창성·벽동·위원·초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려졌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더욱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차례로 무성해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싹이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지금 막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씨앗 뿌리기를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싹이 돋고, 화속은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87. 1856년(철종 7) 4월 20일(양력 5월 23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31a-131a) / 平安監營啓錄 25책(61a-61b)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本月十八日卯時量始雨, 或灑或歇, 二十日辰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 見今稍嘆之餘, 得此霑潤, 雖甚多幸, 所得無異沃焦, 繼此周洽, 方切顒望爲白乎旆. 列邑雨澤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8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그치더니 20일 진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현재 조금 가문 끝에 이렇게 축축이 적셨으니 비록 매우 다행이지만, 내린 것은 깨진 항아리의 물을 타는 술에 뿌린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후로 두루 흠족하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88. 1856년(철종 7) 4월 25일(양력 5월 28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32a-132b) / 平安監營啓錄 25책(62b-62b)

臣營下本月十八九日二十日得雨七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中和·祥原·三登·江東等五邑得一鋤, 順安·永柔·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成川等八邑浥塵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今方胚胎, 春粳日漸茁長, 早黍粟初鋤伊始,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已訖耕播, 次第立苗, 晚稻·豆太方妨[始]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粳麥日益茁長, 春粳漸次向茁, 早黍粟間間立苗, 晚黍粟·稷唐·早稻·木花過半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方張向青, 火粟幾半耕種是如爲白有臥乎所. 許久惜乾之餘, 以此近邑之先報觀之, 今番之雨, 不過爲鋤浥而止, 言念民事, 殊甚可悶. 未報遠邑之所得多寡, 竝與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8·19일·20일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중화·상원·삼등·강동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순안·영유·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성천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알을 배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차례로 싹이 돋고, 늦벼·콩·팥도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더욱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점차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한창 푸르러지고 있고, 화속은 거의 절반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가까운 고을에서 먼저 보고한 것으로 보자면, 1서나 먼지를 적실 정도로 그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특히 매우 걱정됩니다. 보고하지 않은 먼 고을에 내린 양과 아울러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89. 1856년(철종 7) 5월 2일(양력 6월 4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34c-134d) / 平安監營啓錄 25책(66a-66a)

去月十八九日二十日平壤等十三邑雨澤<及>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陽德·昌城·碧潼·江界等四邑得一鋤, 慈山·殷山·順川·价川·孟山·寧邊·雲山·宣川·郭山·龍川·龜城等十一邑浥塵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初一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二日寅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如乎. 望霓之情甚切, 潤物之澤又降, 言念民事, 稍慰渴悶, 南北各邑, 果能均霑是日乎喻. 統計前後所得, 終未優渥, 田苗似有勃興之效, 畚耨尙多未播之歎, 繼以一霽, 顙祝萬萬是白乎旆. 列邑雨澤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18·19일·20일의 평양 등 13개 고을의 우택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양덕·창성·벽동·강계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자산·은산·순천·개천·맹산·영변·운산·선천·곽산·용천·구성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2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비를 바라는 심정이 매우 간절했는데, 사물을 적시는 우택이 또 내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되고 걱정이 풀립니다. (청천강) 남쪽·북쪽 각 고을이 정말로 고루 적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것을 통틀어 계산해도 끝내 넉넉하지는 않으니, 밭의 싹은 아마도 갑자기 왕성해지는 효과가 있을 듯하지만, 논곡식은 아직도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탄식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차례 퍼붓기를 매우 간절히 빕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90. 1856년(철종 7) 5월 5일(양력 6월 7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36c-136d) / 平安監營啓錄 25책(68a-68b)

臣營下本月初一日得雨九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江西·三和·江東·三登等八邑得一犁, 慈山·甌山兩邑得二鋤, 中和·祥原·成川·陽德·咸從·順川·安州·寧邊等八邑得一鋤, 价川·泰川·博川·鐵山等四邑浥塵.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次第發穗, 春牟今方胚胎, 早黍粟初鋤幾訖, 晚黍粟·稷唐·早稻·木花, 舉皆立苗, 晚稻·豆太耕種垂畢.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方始胚胎, 春牟日漸茁茂, 早黍粟已皆立苗,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既盡耕播, 間或立苗, 晚稻·豆太今始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向茁, 火粟畢耕是如爲白有在乎. 今番雨澤, 清以南(南)得此甘露, 早餘民事, 殊極多幸, 而外他列邑之姑無來牒, 想緣程途稍遠而然是日乎所. 待其追報, 竝與嗣後農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에 내린 비가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강서·삼화·강동·삼등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자산·증산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중화·상원·성천·양덕·함중·순천·안주·영변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개천·태천·박천·철산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지금 막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늦벼·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막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해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는데 간혹 싹이 돋고, 늦벼·콩·팥은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싹이 자라고, 화속은 땅 갈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번의 우택은 청천강 남쪽은 이렇게 단비가 내려 가뭄 끝에 백성들의 사정상 특히 그지 없이 다행입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문서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건대 거리가 조금 멀어서 그런 듯합니다. 뒤따르는 보고를 기다려 이후 농사 상황과 아울러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91. 1856년(철종 7) 5월 15일(양력 6월 17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39a-139b) / 平安監營啓錄 25책(71a-71a)

本月初一日平壤等二十二邑雨澤〈及〉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宣川·郭山·龍川等三邑得一犁, 嘉山·定州兩邑得二鋤, 龍岡·陽德·孟山·殷山·德川·雲山·安州·義州·熙川·龜城·朔州·昌城·碧潼·渭原·江界等十五邑得一鋤.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已盡發穗, 日漸入實, 春牟方張發穗, 早黍粟再鋤伊始, 晚黍粟·稷唐·早稻·木花今方初鋤, 晚稻·豆太次第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漸次發穗, 春牟舉皆胚胎, 早黍粟方始初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既盡立苗, 晚稻·豆太幾訖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方胎, 火粟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일의 평양 등 22개 고을의 우택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선천·곽산·용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가산·정주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용강·양덕·맹산·은산·덕천·운산·안주·의주·회천·구성·삭주·창성·벽동·위원·강계 등 15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맺는데 날로 점점 알이 들고, 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콩·팥은 차례로 싹이 돋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대부분 알을 맺고, 올기장·올조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벼·콩·팥은 거의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막 알을 배고, 화속은 짝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92. 1856년(철종 7) 5월 23일(양력 6월 25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40a-140b) / 平安監營啓錄 25책(72a-72a)

日候惜乾之由, 已陳於前後農形狀本中是日在果. 現今夏至已過, 節序漸晚, 而一直亢旱, 春秋兩麥, 萎縮未就, 無望食實. 早晚各穀, 亦皆曝枯, 難期蘇醒是日岔除良. 雖以畝稼言之, 有源灌溉者, 旱幸立種, 在在龜坼, 不能鋤役. 至若待水與鹽板等處段, 率多未播, 舉患全棄, 望霓民情, 日甚一日, 而尙此杲杲. 況又朝夕頗涼, 雨意漠然, 言念三農, 不勝渴悶. 課接農牒, 則依峽焉縱無時日之憂, 沒[沿]野焉實多晷刻之慮, 此際圭璧之舉, 有不吝暫緩乙仍于. 先從濱海最切急諸處, 祈兩[雨]祭不卜日虔誠設行. 外他各邑段置, 量其被旱淺深, 次第設行之意, 今方措辭關飭爲白乎旆. 向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날씨가 가문 연유는 지금까지 농사 상황의 보고 문서 가운데 이미 진술하였습니다. 현재 하지가 이미 지났고 절기가 점점 늦어지는데 줄곧 가물어 봄가을 보리와 밀은 시들어 오그라들고 자라지 못하니 알맹이를 먹을 가망이 없습니다. 올곡이든 늦곡 이든 각종 곡식 또한 모두 햇볕에 말라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논곡식으로 말하더라도 근원이 있어 물을 대는 곳은 다행히 일찍 짝이 돋았지만, 곳곳에서 땅이 거북등처럼 갈라져 김매기를 할 수 없습니다. 물을 기다리다가 염전 등과 같게 된 곳의 경우 대부분 씨앗을 뿌리지 못하여 전부 포기할 근심을 거론합니다. 비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심정은 날로 심해지는데 아직도 이렇게 쨍쨍하고, 게다가 또 아침저녁으로 자못 서늘하고 비올 조짐이 아득하니, 세 가지 농사를 생각하면 애타는 걱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일과로 농사 문서를 접수해 보니, 산자락은 비록 얼마 동안은 근심이 없지만, 물가나 들판은 정말로 시시각각 염려가 많습니다. 이즈음에 기우제의 거행은 잠시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먼저 바닷가의 가장 절실하게 다급한 여러 곳에서부터 날짜를 가리지 말고 기우제를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고, 그 밖의 각 고을 경우에도 당한 가뭄이 심한지 얕은지 헤아려 차례로 시행하라는 뜻을 지금 막 문안을 만들어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93. 1856년(철종 7) 5월 25일(양력 6월 27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40d-141b) / 平安監營啓錄 25책(73a-73b)

道內農形被旱最切急諸處, 祈雨祭不卜日設行事, 關飭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本月十六日驟雨, 三登·慈山·殷山·寧邊·泰川·定州等六邑得一鋤. 十七日驟雨, 順川·肅川·永柔·安州·博川·德川·碧潼等七邑浥塵.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春粳牟麥次第向熟, 早黍粟過半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已訖初鋤, 晚稻·豆太舉皆立苗, 間或初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春粳牟麥日漸入實, 早黍粟初鋤垂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伊始, 晚稻·豆太今方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方張發穗, 火粟已皆立苗, 而毋論南北, 舉皆有悶旱之患是白如乎. 肆當杲曝之際, 今此三登等六邑, 順川等七邑之鋤浥所得, 縱爲解渴之喜, 不過霎時驟過, 尙靳一霈均霑, 爲念民事, 去益憂悶, 零禱之先設幾邑, 農形之將就如何,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당한 가뭄이 가장 절실하게 다급한 여러 곳은 날짜를 가리지 말고 기우제를 시행하라는 일을 공문으로 지시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6일의 소나기로 삼등·자산·은산·영변·태천·정주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17일의 소나기로 순천·숙천·영유·안주·박천·덕천·벽동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이미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벼·콩·팥은 대부분 싹이 돋았는데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날로 점점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

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지금 막 싹이 돋고 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화속은 이미 다 싹이 돋았습니다. (청천강) 남쪽이나 북쪽을 따질 것 없이 대부분 가뭄의 재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쨍쨍 햇볕이 내리쬐을 즈음에 이번에 삼등 등 6개 고을과 순천 등 7개 고을에 1서나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린 것은, 비록 해갈해서 기쁘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소나기에 지나지 않아 아직도 한차례 퍼부어 고루 적시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근심·걱정입니다. 기우제를 먼저 시행한 몇 고을의 농사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94. 1856년(철종 7) 5월 27일(양력 6월 29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41c-141d) / 平安監營啓錄 25책(73b-74a)

道內農形及霽禱先設幾邑,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中和·順安·永柔·江西·三和·咸從等七邑段, 祈雨祭先行一次, 就中順安·三和·中和等三邑, 連行二次是白遣. 本月十七日驟雨, 朔州得一犁, 義州·泰川·碧潼等三邑得二鋤是如爲白有旆. 臣營下當日子時量始雨, 或霏或淫, 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 而濃雲薰風, 尙多餘意, 圭璧纔舉, 冥應斯降, 彌月亢旱之餘, 得此甘露, 田野枯苗, 必有勃興之效. 言念農情, 誠甚慰滿, 但沒[沿]海畜種, 想猶未洽, 繼此沛然, 益切顒望是日乎所. 今番之雨, 幾近三寸, 以南以北, 似可均霑, 佇待齊報, 設祭一款, 從當觀勢進止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기우제를 먼저 시행한 몇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중화·순안·영유·강서·삼화·함종 등 7개 고을의 경우, 기우제를 먼저 1차례 시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순안·삼화·중화 등 3개 고을은 연이어 2차 기우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달 17일의 소나기로 작주는 1려가 내렸고, 의주·태천·벽동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그날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고, 짙은 구름과 후덥지근한 바람으로 아직도 더 올 조짐이 많습니다. 기우제를 거행하자마자 신령의 감응으로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의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려 밭과 들관의 말랐던 싹은 분명히 갑자기 왕성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농사 정황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위로가 됩니다. 다만 바닷가 논곡식은 생각건대 여전히 흡족하지 못합니다. 이후로 세차게 내리기를 더욱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의 비는 거의 3치에 가까워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아마 고루 적셨을 것입니다.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기우제 시행 한 가지 사항은 형세를 보아 타당하게 진행하거나 멈출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95. 1856년(철종 7) 6월 1일(양력 7월 2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41d-142a) / 平安監營啓錄 25책(75a-75a)

平壤等七邑祈雨祭設行及去月二十七日得雨二寸八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順安·殷山兩邑川渠微漲, 平壤·永柔·江西等三邑得二犁, 龍岡得二鋤, 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价川·安州·三和·咸從·甑山等十一邑得一鋤. 祈雨祭段, 龍岡先行一次, 咸從又舉一次, 祥原連舉二次, 三和·中和兩邑又舉三次, 今番圭璧之舉, 凡爲九邑, 而靈應斯降, 乃於廿七日得雨之後, 竝卽停祭是如爲白乎旆. 臣營下二十八日亥時量又雨, 或霏灑或滂沱, 至本月初一日寅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七寸五分, 而一向陰翳, 尙無霽意是白如乎. 間一日所得之雨, 統計前後, 恰過尺餘, 毋論田畝各種, 無不周洽, 言念民情, 誠爲萬幸, 列邑雨澤多寡, 嗣後農形如何,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平事.

평양 등 7개 고을의 기우제 시행 및 지난달 27일에 내린 비가 2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순안·은산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평양·영유·강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용강은 2서가 내렸고, 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개천·안주·삼화·함중·증산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용강은 먼저 1차례 시행하였고, 함중은 또 1차례 거행하였고, 상원은 연이어 2차례 거행하였고, 삼화·중화 2개 고을은 또 3차로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의 기우제 거행은 모두 9개 고을인데, 신령의 감응으로 이렇게 비가 내렸으니, 이내 27일에 비가 내린 뒤 모두 즉시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28일 해시쯤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짹짹 쏟아지더니 이번 달 초1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5푼이었고, 줄곧 짙은 구름이 끼어 아직도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그사이에 하루 동안 내린 비로 지금까지 통틀어 계산하면 거의 1자 남짓을 넘습니다. 논밭을 따질 것 없이 각종 곡식은 두루 흡족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이 어떠한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96. 1856년(철종 7) 6월 5일(양력 7월 6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43a-143b) / 平安監營啓錄 25책(76b-77a)

去月二十七日順安等十七邑雨澤及二十八日得雨七寸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七日之雨, 鐵山·嘉山·泰川·寧邊·郭山等五邑川渠微漲, 博川得二犁, 義州·順川兩邑得一犁, 定州·宣川兩邑得一鋤. 二十八日之雨, 平壤·安州·定州·宣川·三和·肅川·博川·价川·甑山·江東·泰川等十一邑川渠漲滿, 義州·咸從兩邑得二犁, 中和·祥原·永柔等三邑得一犁, 寧邊得一鋤. 臣營下本月初一日戌時量又雨, 或霏或灑, 初二日辰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 而伊日之〈雨〉, 中和江川漲滿, 安州得二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春秋牟麥方張刈取, 早黍粟再鋤垂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今方再鋤, 晚稻·豆太方始初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春秋牟麥幾盡成熟, 早黍粟今纔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幾畢, 晚稻·豆太舉皆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日漸向熟, 火粟幾訖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雨澤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7일의 순안 등 17개 고을의 우택 및 28일에 내린 비가 7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7일의 비로 철산·가산·태천·영변·곽산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박천은 2려가 내렸고, 의주·순천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정주·선천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28일의 비로 평양·안주·정주·선천·삼화·숙천·박천·개천·증산·강동·태천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의주·함흥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중화·상원·영유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변은 1서가 내렸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 술시쯤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2일 진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그날의 비로 중화는 강과 시내가 불어나 가득 찼고, 안주는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증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익었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대부분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화속은 거의 초벌 김매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97. 1856년(철종 7) 6월 8일(양력 7월 9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43c-143d) / 平安監營啓錄 25책(77a-77b)

節到付价川郡守趙義稷牒呈內, 卽接中南面外東面任文報, 則今月初一日之雨, 江川猝漲, 兩面民家, 被沈漂失, 小戶爲二戶, 全賴小戶爲八戶是如爲白有臥乎所. 今番之雨, 旱餘潦漲, 以致漂賴, 農節殘民之失所棲遑, 極痛矜憐, 而人命之得免淪沒, 亦云多幸. 凡繫[係]存恤奠接之方, 不容少緩乙仍于, 先自臣營, 題給米穀·空石等物, 今年條烟戶雜役, 一併蠲減, 許斫私養, 借助隣丁, 從速結構, 如前安堵之意, 措辭題飭爲白乎跡. 同漂賴戶原恤典, 竝依例題給後, 役·姓名及穀數,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이번에 도착한 개천 군수 조희직의 문서 보고 내용에, 방금 접수한 중남면·외동면 면임의 문서 보고에, 이번 달 초1일의 비로 강과 시내가 갑자기 불어나 2개 면의 백성 집 중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간 것은 소호 2가구, 완전히 무너진 것은 소호 8가구라고 합니다. 이번의 비로 가뭄 끝에 장마로 불어나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게 되었으니, 농사철에 힘없는 백성들이 지낼 곳을 잃고 머물러 살 곳이 없으니 매우 불쌍하고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면하여 또한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위로하며 돌보고 머물러 살 곳을 정하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의 감영에서 쌀과 곡식·빈 가마니 등의 물건을 결정문으로 주고, 올해 뭇의 가구당 잡역을 모두 면제하거나 줄여주었으며, 개인이 기르는 나무를 베어내도록 허락하고 이웃의 일꾼을 빌려서 도와주어, 신속히 집을 지어 이전처럼 안심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의 기본 구호는 모두 규정대로 결정문을 준 뒤 직역·성명 및 곡식의 수량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0498. 1856년(철종 7) 6월 10일(양력 7월 11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 (144c ~ 144d) / 平安監營啓錄 25 (78a ~ 78b)

節到付平壤庶尹趙章鎬牒呈內, 去月二十七日之雨, 江川漲流, 本府內川·隆德·大同江三坊民家全頽, 小戶爲十四戶, 而待水退摘奸之際, 日字自至遲滯是如爲白有臥乎所. 際當農節, 有此漂頽, 人命之得免淪沒, 雖甚可幸, 多民之失所棲遑, 極庸矜憐, 其所結構之方, 不容少緩乙仍于, 先自臣營, 題給米穀·空石等物, 竝與半頽戶, 拔〈例〉顧助, 亦令私養許斫, 隣丁借助, 趁卽改構, 如前安堵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同全頽小戶十四戶原恤典, 竝依例題給後, 役·姓名及穀數,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이번에 도착한 평양 부윤 조장호의 문서 보고 내용에, 지난달 27일의 비로 강과 시내가 불어나 흘러서 본 평양부 내천·용덕·대동강 3개 방의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은 소호 14가구인데,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널 즈음에 날짜가 자연히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농사철을 즈음하여 이렇게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은 있으나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면하여 비록 매우 다행이지만, 많은 백성이 지낼 곳을 잃고 머물러 살 곳이 없으니 매우 불쌍하고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집을 짓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의 감영에서 쌀과 곡식·빈 가마니 등의 물건을 결정문으로 주고, 아울러 절반 무너진 가구와 더불어 규정대로 돌보아 도와주고, 또한 개인이 기르는 나무를 베어 내도록 허락하고 이웃의 일꾼을 빌려서 도와주어 신속히 고쳐 지어 이전처럼 안심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위의 완전히 무너진 소호 14가구의 기본 구호는 모두 규정대로 결정문을 준 뒤 직역·성명 및 곡식의 수량을 정책으로 작성하여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0499. 1856년(철종 7) 6월 12일(양력 7월 13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44d-145a) / 平安監營啓錄 25책(78b-78b)

去月二十七日鐵山等十邑, 二十八日平壤等十七邑雨澤及本月初一日得雨一寸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七日之雨, 德川·孟山·熙川·寧遠·龜城·朔州·楚山等七邑川渠漲滿, 順川·龍川·渭原等三邑得二犁, 江東·昌城·碧潼等〈三邑〉得一犁. 二十八日之雨, 三登·成川·陽德·殷山·价川·順安·龍岡·鐵山等八邑川渠微漲, 順川·郭山·龍川·雲山等四邑得二犁, 寧遠·泰川兩邑得一鋤, 永柔浥塵. 今月初一〈日〉之雨, 平壤·祥原·三登·順川·順安·肅川·寧邊·雲山·熙川·寧遠等十邑川渠漲溢, 龍岡·价川·郭山·定州·泰川等五邑得二犁, 咸從·成川·義州·朔州等四邑得一犁, 三和·昌城兩邑得一鋤. 臣營下本月初八日戌時量始雨, 或灑或霏, 至十二日寅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四寸三分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7일의 철산 등 10개 고을과 28일의 평양 등 17개 고을의 우택 및 이번 달 초1일에 내린 비가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7일의 비로 덕천·맹산·희천·영원·구성·삭주·초산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순천·용천·위원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강동·창성·벽동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28일의 비로 삼등·성천·양덕·은산·개천·순안·용강·철산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순천·곽산·용천·운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영원·태천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연유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이번 달 초1일의 비로 평양·상원·삼등·순천·순안·숙천·영변·운산·희천·영원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용강·개천·곽산·정주·태천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함중·성천·의주·삭주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삼화·창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8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2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0. 1856년(철종 7) 6월 15일(양력 7월 16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45b-145c) / 平安監營啓錄 25책(79a-79a)

去月二十八日三登等十五邑, 本月初一日平壤等二十一邑雨澤及初八日得雨四寸三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日之雨, 江界川渠漲溢, 今月初一日之雨, 永柔得一犁, 碧潼得一鋤. 初八日之雨, 平壤·永柔·肅川·安州·江西·甌山·祥原·三登·成川·陽德·慈山·孟山等十二邑川渠漲滿, 三和得二犁, 殷山·順川兩邑得一犁, 中和·咸從·价川·寧邊等四邑得一鋤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兩麥畢穫, 早黍粟方始三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再鋤垂畢, 晚稻·豆太方張初鋤, 根豆·木麥次第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兩麥方穫, 早黍粟已訖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今方再鋤, 晚稻·豆太初鋤伊始, 根豆·木麥間或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幾盡成熟, 火粟間始再鋤是如爲白乎跡. 遠近雨澤之未報, 向後農形之如何,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8일의 삼등 등 15개 고을과 이번 달 초1일의 평양 등 21개 고을의 우택 및 초8일에 내린 비가 4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8일의 비로 강계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이번 달 초1일의 비로 영유는 1려가 내렸고, 벽동은 1서가 내렸고, 초8일의 비로 평양·영유·숙천·안주·강서·증산·상원·삼등·성천·양덕·자산·맹산 등 1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삼화는 2려가 내렸고, 은산·순천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중화·함중·영변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보리·밀은 수확을 마쳤고, 올기장·올조는 막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보리·밀은 막 수확하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거의 다 익었고, 화속은 그사이에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멀고 가까운 (고을의) 보고하지 않은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이 어떠한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1. 1856년(철종 7) 6월 25일(양력 7월 26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46a-146c) / 平安監營啓錄 25책(80a-80a)

今月初八日平壤等十九邑雨澤〈及〉道內農形, 已爲馳啓爲〈日〉有在果(在).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龍岡·順安·嘉山·郭山·龍川·義州·博川·泰川·龜城·朔州·碧潼·雲山·楚山·德川等十四邑川渠漲滿, 鐵山·昌城兩邑得二犁, 宣川得一犁, 定州得一犁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既盡三鋤, 間間胚胎, 晚黍粟·稷唐·早稻·木花過半三鋤, 晚稻·豆太今方再鋤, 根豆·木麥已訖耕播, 間或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兩麥畢穫, 早黍粟今方三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已畢再鋤, 晚稻·豆太幾訖初鋤, 根豆·木麥方張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隨刈根耕, 火粟幾訖再鋤是日有臥乎所. 見今兩麥已皆收穫, 而考諸邑牒, 參以聽聞, 則春初〈土〉脈融解, 播種無愆, 雨暘均適, 立苗既臧, 春夏之交, 庶占大穰矣. 及夫五月發穗之際, 近一朔亢旱, 沿野之地, 雖或善就, 高燥之田, 自致徑枯, 畢竟所收, 僅可取種, 分言全省, 秋粳稍勝於春種, 清南差遜於〈清〉北, 統以計之, 未可爲免歉. 當此窮節, 田家賴以資食, 專靠於牟麥之登場, 而果違所望, 念彼民情, 誠極可悶, 遠近雨澤, 向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8일의 평양 등 19개 고을 우택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용강·순안·가산·곽산·용천·의주·박천·태천·구성·삭주·벽동·운산·조산·덕천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철산·창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정주는 1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는데 간간이 알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콩·팥은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간혹 짝이 돌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

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보리·밀은 수확을 마쳤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벼·콩·팥은 거의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베는 대로 그루같이하고, 화속은 거의 두벌 김매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보리와 밀은 이미 다 수확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보고를 살펴보고 듣고 본 것을 참조하면, 초봄에는 흙이 녹고 늦지 않게 씨앗을 뿌리고 비와 햇볕이 고루 적절하여 들은 싹이 이미 잘 자라서 봄과 여름이 교차할 때는 거의 큰 풍작을 점쳤습니다. 그런데 5월 이삭이 팠 즈음에 이르러 한 달 가까이 가물어 물가나 들판의 땅은 비록 더러 잘 여물었지만, 높고 메마른 지역의 밭은 자연히 지레 말라서 마지막에 거둔 것이라고는 겨우 씨앗이나 건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평안도 전체를 나눠서 말하자면, 가을보리는 봄보리보다 조금 낮고, 청천강 남쪽이 청천강 북쪽보다 조금 못합니다. 통틀어 계산하면 흉작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철인 보릿고개를 맞아 농가에서 식량으로 의지하는 것은 오로지 보리와 밀의 타작에 기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바라는 것에 어긋났으니 저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멀고 가까운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2. 1856년(철종 7) 7월 5일(양력 8월 5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47b-147d) / 平安監營啓錄 25책(82b-82b)

去月初八日龍岡等十八邑雨澤及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江東·寧遠·渭原·熙川·江界等五邑川渠漲滿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胚胎, 次第發穗, 晚黍粟·稷唐·早稻日漸胚胎, 木花方始起花, 晚稻·豆太已盡三鋤, 根豆·木麥初鋤伊始.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方張四鋤, 幾盡胚胎, 晚黍粟·稷唐·早稻·木花已訖三鋤, 晚稻·豆太再鋤垂畢, 根豆·木麥皆舉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方張三鋤, 根豆·木麥間或立苗是如爲白有等以. 向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초8일의 용강 등 18개 고을의 우택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동·영원·위원·희천·강계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알을 뺐는데 차례로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점점 알을 배고, 묵화는 막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네벌 김매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알을 뺐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묵화는 이미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대부분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간혹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3. 1856년(철종 7) 7월 10일(양력 8월 10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47d-148a) / 平安監營啓錄 25책(83a-83a)

節到付義州府尹韓敬源牒呈內, 去月二十一日, 江川自上流漲溢, 本府威化光城古城等面民家, 漂失小戶爲十四戶, 全賴小戶爲十三戶, 而待水退摘奸修報之際, 日字自至遲滯是如爲白有臥乎所. 際此窮節, 殘戶漂賴, 至於此多, 言念民情, 極庸憂悶. 凡係顧恤之方, 不容少緩乙仍于, 先自臣營, 題給米穀·空石等物, 亦令私養許斫, 隣丁借助, 期於不多日內結構, 如前安堵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同漂賴戶二十七戶原恤典, 竝依例題給後, 役·姓名及穀數,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이번에 도착한 의주 부윤 한경원의 문서 보고 내용에, 지난달 21일 강과 시내가 상류에서 부터 불어나 넘쳐서 본 의주부 위화·광성·고성 등 면의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은 소호 14가구, 완전히 무너진 것은 소호 13가구인데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내서 작성하여 보고할 즈음에 날씨가 자연히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철인 보릿고개에 즈음하여 힘없는 가구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이렇게 많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그지없습니다. 돌보아 도와주는 방법은 모두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먼저 저의 감영에서 쌀과 곡식·빈 가마니 등의 물건을 결정문으로 주고, 또한 개인이 기르는 나무도 베어내도록 허락하였으며, 이웃 일꾼을 빌려서 도와주어 여러 날 걸리지 말고 며칠 내로 집을 지어 이전처럼 안심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모두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27가구의 기본 구호를 규정에 따라 결정문으로 준 뒤 직역·성명 및 곡식의 수량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진홀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홀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0504. 1856년(철종 7) 7월 11일(양력 8월 11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51b-151c) / 平安監營啓錄 25책(86b-86b)

去月初八日江東等五邑雨澤及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今月初一日驟雨, 昌城·寧遠兩邑得二鋤, 順安·永柔·肅川·宣川·龍川·江東·中和·德川·孟山·泰川等十邑得一鋤, 博川·安州·嘉山·郭山·成川·价川·寧邊·龜城等八邑浥塵, 而連接江界府使李在鶴所報, 則去月初八日之雨, 連日或灑或霖, 二十一日乃止. 鴨綠·慈城兩江, 潦水漲溢, 沿邊各面民戶, 多致漂頽, 田土亦多汰覆, 而待水退摘奸更報是如爲白有臥乎所. 該府之漂頽幾許, 列邑之得雨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초8일의 강동 등 5개 고을의 우택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의 소나기로 창성·영원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순안·영유·숙천·선천·용천·강동·중화·덕천·맹산·태천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박천·안주·가산·곽산·성천·개천·영변·구성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연이어 강계 부사 이재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초8일의 비가 날마다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1일에 이내 그쳤는데, 압록·자성 2개 강이 큰 빗물로 불어나 넘쳐 물가 각 면의 백성 집이 많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논밭 또한 많이 사태로 뒤덮였는데,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강계부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이 얼마인지와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5. 1856년(철종 7) 7월 15일(양력 8월 15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51c-151d) / 平安監營啓錄 25책(86b-87a)

本月初一日驟雨, 昌城等二十邑所得多寡,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日漸入實, 間或向熟, 晚黍粟·稷唐·早稻幾盡發穗, 木花方張結穎, 晚稻胚胎, 豆太起花, 根豆·木麥再鋤伊始.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已皆發穗, 間間入實, 晚黍粟·稷唐·早稻已盡胚胎, 木花起花, 晚稻·豆太既訖三鋤, 根豆·木麥幾盡初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間始胚胎, 根豆·木麥今方初鋤, 而近因曠乾, 就其中平壤·三和·龍岡·甑山等四邑段, 早晚各穀間多萎枯, 德川·泰川兩邑段, 或有蟲蝕之患是如爲白有臥乎所. 雨澤稍悶[悶], 旱曝殆酷, 毋論南北, 沿野所種, 舉致瘁損, 加之而東風連吹, 朝夕頗涼, 無往非旱兆是日在如中. 上項六邑, 先爲告災, 已極可悶, 而外他列郡, 別無似此之慮是日乎喻. 言念民情, 殊甚憧憧, 際茲一霽, 方切願祝是白乎旆. 諸邑憫旱淺深, 來頭農形如何,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일의 소나기로 창성 등 20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증화·상원·삼동·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 기장·올조는 날로 점점 알이 드는데 간혹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고, 늦벼는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는데 간간이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이미 다 알을 났고, 목화는 꽃이 피고, 늦벼·콩·팥은 이미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그사이에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요즈음 가무는데, 그 가운데 평양·삼화·용강·중산 등 4개 고을의 경우, 올곡이든 늦곡이든 각종 곡식이 그사이에 많이 시들거나 말랐고, 덕천·태천 2개 고을의 경우, 더러 벌레가 먹는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우택이 조금 없고 쨍쨍 내리쬐는 햇볕이 매우 혹독하여 (청천강) 남쪽과 북쪽을 따질 것 없이 물가나 들판에 뿌린 곡식은 거의 손상됐는데, 동풍이 연이어 불고 아침·저녁으로 자못 서늘하니 가뭄 조짐이 없지 않습니다. 위 향의 6개 고을은 먼저 재해를 아렸는데 이미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밖의 여러 군은 아마도 이러한 염려가 별로 없는 듯합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특히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즈음에 한차례 퍼붓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여러 고을의 가뭄이 얕은지 심한지와 앞으로 농사 상황이 어떨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6. 1856년(철종 7) 7월 17일(양력 8월 17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52a-152b) / 平安監營啓錄 25책(87a-87b)

道內農形及平壤等六邑旱蟲告災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咸從·龜城·順安·永柔等四邑段, 一直亢旱, 田穀舉皆萎枯, 畚稻間多蟲蝕, 祥原·陽德兩邑段, 早晚各種, 未免徑乾是如爲白有臥乎所. 跨朔惜乾, 沿峽各穀, 俱被瘁損, 十有餘邑, 次第告災, 言念農情, 萬萬渴悶. 其在爲民重本之義, 恐不可以一歲之內, 再舉圭璧, 有所拘礙乙仍于, 被旱最甚是日在平壤·龍岡·三和·咸從·永柔·順安等六邑祈雨祭, 先爲不卜日虔誠設行是白遣. 外他列邑段置, 量其災形深淺, 亦令舉行. 緣由爲先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평양 등 6개 고을의 가뭄과 벌레 재해를 아뢴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함중·구성·순안·영유 등 4개 고을의 경우, 줄곧 가뭄이 밭곡식은 대부분 시들거나 마르고, 논벼는 그사이에 많이 벌레가 먹었습니다. 상원·양덕 2개 고을의 경우, 올곡이든 늦곡이든 각종 곡식은 지레 마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걸쳐 가뭄이 물가나 산골의 각종 곡식은 모두 손상됐는데, 19여 개 고을이 차례로 재해를 아뢰었습니다. 농사짓는 심정을 생각하면 매우 애타게 걱정입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중하게 여기는 도리에 있어서 아마도 1년 이내에 거듭 기우제를 거행하는 것에 얹매일 수 없을 듯합니다. 가뭄을 가장 심하게 당한 평양·용강·삼화·함중·영유·순안 등 6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먼저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도 재해 상황이 심한지 얹은지 헤아려 또한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7. 1856년(철종 7) 7월 18일(양력 8월 18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52c-152d) / 平安監營啓錄 25책(87b-88a)

平壤等六邑祈雨祭先爲設行之由, 昨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咸從兩邑, 霽禱先行一次, 江西·成川·甑山等三邑, 一向惜乾, 田野各種, 無不萎損是如爲白有等以. 亦以量其被旱淺深而設行之意, 知委是白乎旆. 臣營下昨日已時量始雨, 或霏或霏, 申時量止歇, 測雨器水深爲一寸, 而圭壁纔舉, 靈應斯捷, 許久渴望之餘, 雖未優洽, 言念民情, 曷勝慰幸, 繼此一霽, 更切顯祝, 而既得甘露之後, 有不必連舉. 故平壤段, 姑爲停止, 而外他列邑, 亦皆均得是日乎喻.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6개 고을이 기우제를 먼저 시행한 연유는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함종 2개 고을은 기우제를 먼저 1차례 지냈고, 강서·성천·증산 등 3개 고을은 줄곧 가뭄으로 밭과 들판의 각종 곡식은 시들어 손상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당한 가뭄이 심한지 얇은지 헤아려 시행하라는 뜻을 알렸습니다.

저의 감영에 어제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신시쯤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기우제를 거행하자마자 신령의 감응이 이렇게 빨랐고 오래 애타게 바라던 끝이라 비록 넉넉하게 흠족하지는 못하지만,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다행입니다. 이후로 한차례 퍼붓기를 다시 간절히 빕니다. 이미 단비가 내린 뒤에 연이어 거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평양의 경우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 또한 모두 고루 내렸는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8. 1856년(철종 7) 7월 22일(양력 8월 22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53a-153b) / 平安監營啓錄 25책(88b-88b)

本月十七日臣營下得雨一寸, 祈雨祭平壤·咸從兩邑先行一次, 而甘露之後, 平壤仍爲停止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龍岡·咸從·順川等三邑得一犁, 江西·祥原兩邑得二鋤, 平壤·中和·江東·三登·慈山·殷山·三和·甌山·价川等九邑得一鋤, 順安·永柔·安州·成川·德川等五邑浥塵, 龍岡·甌山·价川·肅川·郭山·宣川等六邑, 嘆乾頗久, 間有蟲災, 田野各穀, 多致受損是白遣. 祈雨祭段, 順安·永柔·三和·龍岡·成川等五邑, 先行一次, 而就中順安·成川, 連舉二次, 永柔連擬二次, 外他三和·龍岡·咸從等三邑, 旣得鋤犁之霑, 竝爲停止, 宣川又以被旱滋甚, 不卜日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 今番之雨, 近甘州, 均有所得, 久悶[悶]之餘, 誠甚慰幸, 而迨此處暑隔日, 節序向晚之時, 零禱一款, 恐雅[難]連舉是日乎矣. 被旱諸邑之惟日杲杲, 民情憧憧, 參量事勢, 不得不然是白乎旃. 至若蟲災段, 前此德川等六邑, 又此迭告, 言念穡事, 去益憂悶, 從速一霽, 方切顙祝, 而遠邑雨澤, 零祀舉撤, 農形如何,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7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이고, 기우제를 평양·함중 2개 고을에서 먼저 1차례 지내고 단비가 적신 뒤 평양은 이내 중지한 연유를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용강·함중·순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서·상원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평양·중화·강동·삼등·자산·은산·삼화·중산·개천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순안·영유·안주·성천·덕천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용강·중산·개천·숙천·곽산·선천 등 6개 고을은 가뭄이 자못 오래되었고 그사이에 벌레 재해가 발생하여 밭과 들판의 각종 곡식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순안·영유·삼화·용강·성천 등 5개 고을은 먼저 1차례 거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순안·성천은 연이어 2차례 거행하였고, 영유는 연이어 2차례 거행한 듯하고, 그 밖에 삼화·용강·함중 등 3개 고을은 이미 1서·1려가 주룩주룩 내려 모두 중지하였습니다. 선천은 또 가뭄을 매우 심하게 당해 낱자를 가리지 않고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의 비로 20개에 가까운 주가 고루 내려줍니다. 오랜 가뭄 끝에 정말로 매우 위로가 되고 다행입니

다. 이렇게 처서 하루 전에 이르러 절기가 늦어지는 때에 기우제 1가지 사항은 아마도 연이어 거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가뭄을 당한 여러 고을은 날로 쨍쨍 내리쬘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일의 형세를 참작하니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레 재해의 경우, 이에 앞서 덕천 등 6개 고을은 또 이렇게 번갈아 아뢰었는데, 농사를 생각하면 갈수록 근심·걱정입니다. 신속히 한차례 퍼붓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먼 고을의 우택과 기우제 거행과 철수, 농사 상황이 어떠한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9. 1856년(철종 7) 7월 23일(양력 8월 23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53c-153d) / 平安監營啓錄 25책(89a-89a)

龍岡等十九邑本月十七日得雨形止及順安等七邑雩禱舉撤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龍川·義州兩邑得一鋤, 寧邊溫塵. 廿一日驟雨, 順安·永柔·肅川等三邑得一鋤, 平壤·中和·江東·咸從等四邑溫塵. 祈雨祭段, 順安連舉三次, 永柔連舉二次, 而得此鋤雨甘露之後, 竝爲停止. 博川又以被旱, 兼有蟲損, 先舉一次是如爲白有旆. 臣營下今二十三日時量始雨, 或霏微或滂沱, 至午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是白如乎. 杲曝渴悶之際, 得此近二寸之甘露, 早晚各穀, 似有勃興善就之望, 爲念農情, 誠極慰滿. 今此所霑, 毋論南北, 果能惟均, 旱憂蟲災, 其將次第消霽是日爰喻, 嗣後形止, 待列邑齊報, 陸續登聞計料. 緣由爲先馳啓爲白臥乎事.

용강 등 19개 고을에 이번 달 17일에 내린 비의 경위 및 순안 등 7개 고을의 기우제 거행과 철수 연유를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용천·의주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영변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1일의 소나기로 순안·영유·숙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양·중화·강동·함흥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순안은 연이어 3차례 거행하였고, 영유는 연이어 2차례 거행하였는데, 이렇게 1서의 비가 내려 달게 적신 뒤 모두 중지하였습니다. 박천은 또 가뭄을 당하고 벌레 손상이 함께 발생하여 먼저 1차례 거행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3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더러 짙짙 쏟아지더니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 뽕뽕 내리쬘서 애타게 걱정할 즈음에 이렇게 2치 가까이 단비가 내려 올곡이든 늦곡이든 각종 곡식은 아마도 갑자기 왕성하게 잘 여물 가망이 있을 듯합니다. 농사짓는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지없이 충분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번에 주룩주룩 내려 남쪽과 북쪽을 따질 것 없이 정말로 다 갈았는데, 가뭄 우려와 벌레 재해가 장차 차례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후 경위는 여러 고을에서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0. 1856년(철종 7) 7월 24/25일(양력 8월 24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55b-155d) / 平安監營啓錄 25책(90b-91a)

本月廿三日臣營下得雨一寸八分, 博川祈雨祭設行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順安·江東·甑山等三邑川渠微漲, 永柔·肅川兩邑得二鋤, 平壤·江西·咸從·慈山·安州等五邑得一犁, 中和·三和兩邑得(二鋤, 平壤·江西·咸從·慈山·安州等五邑得一犁, 中和·三和兩邑得)一鋤, 祥原涸塵, 德川一向嘆乾, 兼有蟲損, 江東亦以被旱滋甚, 竝爲不卜日設禱, 而江東則幸得甘霖, 仍即停止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幾盡向熟, 晚黍粟·稷唐·早稻舉皆發穗, 日漸入實, 木花過半結穎, 晚稻已盡胚胎, 豆太次第起花, 根豆·木麥再鋤垂畢.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方張入實, 晚黍粟·稷唐·早稻間或發穗, 木花方始結穎, 晚稻間或胚胎, 豆太始爲起花, 木麥再鋤伊始.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已盡胚胎, 根豆·木麥初鋤垂畢, 而就中泰川段, 蟲蝗又熾, 田畝各穀, 多被痒損是如爲白有臥乎所. 今番之雨, 以其有日之無多, 遠近諸邑之所得多寡, 姑未齊到, 雖以若而邑先報者觀之, 或曰微漲, 或云鋤犁, 非徒解渴, 實爲叶望, 前後雨之均霑與否, 旱蟲災之消霽形止, 待各該邑馳報, 竝與嗣後農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3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8푼인 것과 박천의 기우제 시행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순안·강동·중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영유·숙천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평양·강서·함중·자산·안주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중화·삼화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상원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덕천은 줄곧 가문데다 벌레 손상이 함께 발생하였고, 강동 또한 매우 심하게 가뭄을 당했으므로 모두 날짜를 가리지 않고 시도를 시행하였는데, 강동은 다행히 단비가 주룩주룩 내려 곧바로 중지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가고, 늦기장·

늦조·수수·올벼는 대부분 이삭이 뻗는데 날로 점점 알이 들고, 목화는 절반 이상 다래를 맺었고, 늦벼는 이미 다 알을 맺고, 콩·팥은 차례로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목화는 막 다래를 맺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간혹 알을 배고, 콩·팥은 비로소 꽃이 피고, 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이미 다 알을 맺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태천의 경우, 메뚜기가 또 번져 논밭의 각종 곡식이 많이 손상됐다고 합니다. 이번의 비는 내린 날이 많지는 않지만, 멀고 가까운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아직 일제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고을이 먼저 보고한 것으로 보자면, 더러는 조금 불어났다고 하고, 더러는 1서·1려라고 하는데, 해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바람에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고루 적셨는지 여부와 가뭄이나 벌레 재해가 없어졌는지 경위는 각각 해당 고을의 긴급 보고를 기다려 이후 농사 상황과 아울러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1. 1856년(철종 7) 7월 28일(양력 8월 28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56b-156c) / 平安監營啓錄 25책(91b-92a)

本月廿三日順安等十三邑雨澤, 德川雩禱設行之由及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龍岡·殷山·順川·价川·泰川·宣川·鐵山等六邑得一犁, 博川·寧邊·義州等三邑得二鋤, 三登·价川·陽德·雲山·嘉山·定州·郭山等七邑得一鋤, 祈雨<祭>段, 宣川·博川兩邑, 連舉二次, 而得此鋤犁, 竝即停止, 成川連舉三次, 郭山又以被旱, 兼有蟲損, 不卜日先行一次, 義州·朔州兩邑, 間有蟲災, 早晚各穀, 未免瘁損是如爲白有旆. 臣營下今二十七日辰時量又雨, 或灑或霏, 載陰載陽, 至二十八日辰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是白如乎. 近日甘霖頻仍, 穡事可幸, 而前此屢霪, 迄未優洽, 圭璧之舉, 蟲蝗之患, 絡繹不絕, 言念民情, 愈往愈悶. 今此二寸餘之<雨>, 實係不少, 毋論南北, 庶可均霑是日孚喻,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3일 순안 등 13개 고을의 우택과 덕천의 기우제 시행 연유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용강·은산·순천·개천·태천·선천·철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박천·영변·의주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삼둥·개천·양덕·운산·가산·정주·곽산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선천·박천 2개 고을은 연이어 2차례 거행하였는데, 이렇게 서·려의 비가 내려 모두 즉시 중지하였고, 성천은 연이어 3차례 거행하였고, 곽산은 또 가뭄을 당한데다 별레 손상이 함께 발생하여 날짜를 가리지 않고 먼저 1차례 거행하였고, 의주·삭주 2개 고을은 그사이에 별레 재해가 발생하여 올곡이든 늦곡이든 각종 곡식은 손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7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더니 28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요즈음 단비가 빈번하여 농사에는 다행입니다. 이에 앞서 여러 번 주룩주룩 내렸으나

너럭히 흡족하기에는 이르지 못하여 기우제를 거행하였고, 메뚜기의 근심이 잇따르고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걱정입니다. 이번에 2차 남짓의  
비는 정말로 적지 않은 것이어서 (청천강) 남쪽과 북쪽을 따질 것 없이 아마도 고루  
적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2. 1856년(철종 7) 8월 4일(양력 9월 2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58b-158c) / 平安監營啓錄 25책(94b-95a)

節到付殷山縣監金永秀牒呈內, 去月二十八日之雨, 山水猝漲, 本縣縣內仙院濟南慕賢厚德楓田龍化樂民城內等九坊, 依山之民家, 或爲沙汰所壓, 傍浦之民戶, 或爲潦水所激, 全賴中戶爲六戶, 小戶爲二十戶, 而濟南坊居無役金子平, 未及避出, 仍爲渰死, 屍身拯得是如爲白有臥乎所. 秋序將半, 一雨暴霍, 民家之頽破, 若是夥多, 而且有人命之渰沒, 言念民情, 憂亦慘矣. 凡所存恤之方, 不容少緩乙仍于, 先自臣營, 題給米穀·空石等物, 私養許斫, 隣丁借助, 從速結構, 依前安堵, 而死者掩埋之節, 亦卽顧念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同賴戶二十六戶, 渰死人一名原恤典, 竝依例題給後, 役·姓名及穀數,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이번에 도착한 은산 현감 김영수의 문서 보고 내용에, 지난달 28일의 비로 산골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 본 은산현 현내·선원·제남·모현·후덕·풍전·용화·낙민·성내 등 9개 방의 산 자락 백성 집은 더러 사태로 깔리고 포구 가의 백성 집은 더러 큰물에 휩쓸려 완전히 무너진 것은 중호 6가구, 소호 20가구입니다. 그리고 제남방은 무역 김자평이 미처 피해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물에 빠져 죽었는데 시체는 건졌다고 합니다. 가을 절기가 장차 절반이 되는데 한차례 비가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백성 집이 무너지고 부서진 것이 이처럼 상당히 많고, 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근심되고 또한 참혹합니다. 돌보아 도와주는 방법은 모두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먼저 저의 감영에서 쌀과 곡식·빈 가마니 등의 물건을 결정문으로 주고, 개인이 기르는 나무를 베도록 허락하였으며, 이웃 일꾼을 빌려서 도와주어 신속히 집을 지어 이전처럼 안심하도록 하고, 죽은 자는 매장하는 사항 또한 즉시 돌보아주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집이 무너진 26가구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1명의 기본 구호는 모두 규정에 따라 결정문으로 준 뒤 직역·성명 및 곡식의 수량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0513. 1856년(철종 7) 8월 5일(양력 9월 3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58c-159b) / 平安監營啓錄 25책(95a-95b)

去月廿三日龍岡等十六邑雨澤, 郭山雩禱設行. 臣營下廿八日得雨二寸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廿三日之雨, 龍川·德川·寧遠等三邑得二鋤, 成川·孟山·龜城·昌城等四邑得一鋤, 廿八日之雨, 慈山·殷山·順川等三邑江川漲溢, 順安·甌山·江東·成川等四邑川渠漲滿, 永柔得二犁, 平壤·江西·三和·咸從·价川·德川·孟山等七邑得一犁, 中和·祥原·三登·寧邊·雲山·陽德·肅川等七邑得一鋤. 祈雨祭段, 成川連舉三次, 德川·郭山各設一次, 而得此甘霖, 竝即停止.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成熟, 間始刈穫, 晚黍粟·稷唐·早稻日就入實, 漸次向熟, 木花顆房漸堅, 晚稻方始發穗, 豆太間或結殼, 根豆·木麥今始起火[花].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舉皆入實, 晚黍粟·稷唐·早稻幾盡發穗, 木花過半結顆, 晚稻幾半胚胎, 豆太次第起花, 根豆·木麥再鋤垂畢.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間間發穗, 根豆·木麥再鋤伊始, 而就其中鐵山·龍川兩邑段, 汚下畚稼糠蟲熾蔓, 宣川·朔州·龜城·价川·永柔·德川·泰川等七邑, 蟲災尙今不息, 田野各種, 多有痒損. 慈山·殷山·順川等三邑段, 去廿八日之雨, 殆若翻盆, 霎時盈尺, 江水漲溢, 加之以獐風大作, 成熟之黍粟·稷唐, 摧折剝落, 軟莖之豆太綿薹, 汨董蹲縮, 依山焉汰落, 傍浦焉覆沙是如爲白有臥乎所. 憫旱之餘, 甘霖均洽, 諸邑圭璧, 次第告撤, 言念穡事, 誠甚慰幸, 而但慈山等三邑, 俱以沒[沿]江之地, 二十八日暴霖, 田土之汰覆, 禾稼之傷害, 添一災形, 竊爲民情, 去益憂悶是白如乎. 從茲以往, 日候調適, 蟲蝗寢息, 桑榆之收, 方切顒[顒]望, 而遠邑之得雨多寡, 來頭之農形利害,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3일의 용강 등 16개 고을의 우택, 광산의 기우제 시행, 저의 감영에 28일에 내린 비가 2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3일의 비로 용천·덕천·영원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성천·맹산·구성·창성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28일의 비로 자산·은산·순천 등 3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고, 순안·증산·강동·성천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영유는 2려가 내렸고, 평양·강서·삼화·함중·개천·덕천·맹산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중화·상원·삼등·영변·운산·양덕·숙천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성천은 연이어 3차례, 덕천·곽산은 각각 1차례 시행하였는데, 이렇게 단비가 적시자 모두 즉시 중지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익었는데 그사이에 베어 수확하기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알이 드는데 점차 익어가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점 단단해지고, 늦벼는 막 이삭이 패기 시작하였고, 콩·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알이 들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절반 이상 다래를 맺었고, 늦벼는 거의 절반이 알을 맺고, 콩·팥은 차례로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병충해로 걱정이 심하였으며 선천·삭주·구성·영유·덕천·태천·증산·정주·순천 등 10개 고을에 충재(蟲災) 메뚜기로 농작물의 재앙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간간이 이삭이 패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철산·용천 2개 고을의 경우, 지대가 낮은 논곡식은 작은 벌레가 세차게 번지고, 선천·삭주·구성·개천·영유·덕천·태천 등 7개 고을은 벌레 재해가 아직도 그치지 않아 밭과 들판의 각종 곡식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자산·은산·순천 등 3개 고을의 경우, 지난 28일의 비가 거의 항아리를 뒤집듯이 내려 순식간에 1자를 채웠고, 강물이 불어나 넘쳤는데, 게다가 사나운 바람이 크게 일어나 익었던 기장·조·수수가 꺾이고 떨어졌으며, 줄기가 연한 콩·팥·메밀은 물에 잠겨 주저앉고, 산자락은 사태로 떨어지고 포구 가는 사태로 덮였다고 합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고루 흠족하니 여러 고을의 기우제는 차례로 철폐하였다고 아뢰었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위로가 되고 다행입니다. 다만 자산 등 3개 고을은 모두 강가의 지역인데, 28일에 세차게 주룩주룩 내린 비로 받은 사태로

뚝이고, 논곡식은 상해를 입었으며, 하나의 재해 상황이 첨가되었으니, 가만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근심·걱정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날씨가 순조롭고 적절하며 메뚜기가 없어져서 추수할 때 수확을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 고을에 내린 비의 양과 앞으로 농사 상황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4. 1856년(철종 7) 8월 6일(양력 9월 4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59b-159c) / 平安監營啓錄 25책(95b-95b)

節到付順川郡守朴貞夏牒呈內, 去月二十八日之雨, 江川猝漲, 本郡院上院下兩面民家, 漂失大戶爲一戶, 中戶爲八戶, 小戶爲二十一戶, 全額大戶爲二戶, 中戶爲六戶, 小戶爲十八戶是如爲白有臥乎所. 秋事將半, 暴雨偏霪, 今此兩面之酷被其災, 言念民情, 曷勝驚歎, 人命之保無淹沒, 亦甚萬幸是日乎乃. 多民露處, 一時可悶, 凡係顧恤之方, 不容少緩乙仍于. 先自臣營, 題給米穀·空石等物, 亦令私養許斫, 隣丁借助, 期於從速結構, 如前安堵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旂. 同漂額戶五十六戶原恤典, 竝依例題給後, 役·姓名及穀數,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이번에 도착한 순천 군수 박정하의 문서 보고 내용에, 지난달 28일의 비로 강과 시내가 갑자기 불어나 본 순천군 원상·원하 2개 면의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은 대호 1가구, 중호 8가구, 소호 21가구이며, 완전히 무너진 것은 중호 6가구, 소호 18가구라고 합니다. 가을 일이 장차 절반이 되는데 폭우가 심하게 주룩주룩 내려 이번에 2개 면이 입은 재해가 혹독하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놀라움과 탄식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빠져 죽은 사람은 없이 목숨을 보전하였으니 또한 매우 다행입니다. 많은 백성이 바깥에서 지내니 한꺼번에 걱정됩니다. 돌보아 도와주는 방법은 모두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먼저 저의 감영에서 쌀과 곡식·빈 가마니 등의 물건을 결정문으로 주고, 또한 개인이 기르는 나무를 베도록 허락하고, 이웃 일꾼을 빌려서 도와주어 기어이 신속히 집을 지어 이전처럼 안심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56가구의 기본 구호는 모두 규정에 따라 결정문으로 준 뒤 지역·성명 및 곡식의 수량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0515. 1856년(철종 7) 8월 8일(양력 9월 6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59c-159d) / 平安監營啓錄 25책(96a-96a)

去月廿八日慈山等二十三邑雨澤及道內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本月初六日巳時量始雨，或霏〈微〉或滂沱，終晷達夜，至初八日辰時量，測雨器水深洽爲七寸，而一直霏下，似有成霖之慮是白如乎。見今節序向晚，冷雨過中，田野各穀，痒損必多，言念穡事，誠切憧憧，雨勢止歇形止，列邑所得多寡，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8일의 자산 등 23개 고을의 우택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착착 쏟아지더니 끝내 밤을 새우고 초8일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였고, 줄곧 주룩주룩 내려 아마도 장마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현재 절기가 늦어지는데 찬비가 정도를 지나쳐 밭과 들판의 각종 곡식은 손상이 분명히 많을 것이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비의 형세가 그치는 경위와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6. 1856년(철종 7) 8월 9일(양력 9월 7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59d-160a) / 平安監營啓錄 25책(96a-96b)

去月廿八日慈山等二十二邑雨澤及今月初八日巳時量至雨, 先爲七寸, 而一直霑下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連爲滂沱, 乃於初九日丑時量止歇, 測雨器水深, 又爲六寸九分, 而仍爲開霽是白乎旂. 續接各邑所報, 則廿八日之雨, 楚山川渠漲滿, 熙川得二鋤, 定州·順川兩邑蟲蝕間<熾>, 早晚各穀, 多致痒損, 永柔·甌山兩邑, 前已蟲損告災, 而今又蟲蝗, 從海飛下, 形若斯螽, 翼如秋蟬, 遍滿田野, 食盡禾稼, 係是罕見之物, 其所爲害, 無望食實是如爲白有臥乎所. 今番之雨, 統計前後所得, 至近一尺四寸之多, 而雖以營下言之, 東西兩江, 潦水汎濫, 傍浦平野, 無不沈墊, 所見甚是驚心, 母論南北, 難保無極備之患, 而尙稽列邑之所報, 想緣道路之阻涉是白遣. 定·順兩邑之迭報蟲災, 永柔·甌山兩邑之添此飛蝗, 俱極憂慮, 而蓋其蟲蝗, 從海而飛下云, 則沿邊諸邑, 果能無轉蔓之患是日妥喻. 爲念穡事, 去益憧憧, 雨水多寡, 蟲蝗滋滅[減]形止, 待各邑馳報, 竝與向後農形利害,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8일의 자산 등 22개 고을의 우택 및 이번 달 초8일 사시쯤까지 비가 우선 7치였는데, 줄곧 주룩주룩 내린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연이어 콕콕 쏟아져 내리다가 이내 초9일 축시쯤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6치 9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이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8일의 비로 초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희천은 2서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주·순천 2개 고을은 벌레 먹는 것이 그사이에 번져, 올곡이든 늦곡이든 각종 곡식이 많이 손상됐고, 영유·중산 2개 고을은 앞서 이미 벌레 손상으로 재해를 아뢰었습니다. 지금 또 메뚜기가 바다로부터 날아내렸는데, 모양은 메뚜기 같고 날개는 가을 매미 같으며, 밭과 들판에 두루 가득 차서 논곡식을 다 먹습니다. 이는 드물게 나타나는 벌레에 해당하는데, 해가 되니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의 비로 지금까지 내린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1자 4치에 가깝도록 많으니, 비록 감영으로 말하더라도 동쪽과 서쪽 2개 강은 큰물이 범람하였고, 포구 가 평평한 들판은 잠기지 않은 곳이 없으니, 보기에 매우 마음을 놀라게 합니다.

(청천강) 남쪽과 북쪽을 따질 것 없이 갖가지 근심이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여러 고을의 보고가 늦어지는데 생각건대 도로가 막힌 탓인 듯합니다. 정주·순천 2개 고을에서 벌레 재해를 번갈아 아뢰었고, 영유·증산 2개 고을에 이렇게 메뚜기떼가 첨가되어 모두 근심·걱정이 그지없습니다. 대개 메뚜기는 바다로부터 날아내린다고 하니, 바닷가 여러 고을은 정말로 다시 번지는 근심을 제대로 없애야 하는데, 농사를 생각하자면 갈수록 더욱 안타깝습니다. 빗물 양과 메뚜기가 번지는지 줄어드는지 경위는 각 고을의 긴급 보고를 기다려 이후 농사 상황과 아울러 계속해서 아뢰 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7. 1856년(철종 7) 8월 15일(양력 9월 13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60d-161b) / 平安監營啓錄 25책(97a-97b)

臣營下本月初九日至連霖雨澤，又爲六寸九分，永柔·甌山兩邑飛蝗添災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江西·中和·祥原·三登·江東·慈山·殷山·順川·成川·孟山等十一邑江川漲溢，順安·永柔·肅川·价川·德川·寧遠·陽德·龜城·三和·甌山等十邑川渠漲滿，咸從·龍岡·寧邊·朔州等四邑得二犁，安州·定州·郭山·泰川等四邑得一犁，博川·雲山·熙川·嘉山·鐵山·義州等六邑得二鋤，宣川得一鋤。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早黍粟已盡刈取，間或登場，晚黍粟·稷唐·早稻幾半成熟，木花早顆漸綻，晚稻幾盡發穗，豆太方張結殼，根豆·木麥，爛熳起花。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早黍粟次第向熟，晚黍粟稷唐·早稻，日就入實，木花顆房漸堅，晚稻間始發穗，豆太幾盡起花，根豆·木麥方始起花。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火粟已盡發穗，根豆·木麥，再鋤垂畢，而就前報蟲災中，博川·泰川·龍川·義州·朔州等五邑，今既寢息，永柔·甌山兩邑，飛蝗亦爲稍息，然被蝕各穀，難期成實，安州朽[汚]下畚稼，糠蟲間熾，三和近浦各里，又有飛蝗，毋論田畚所種，隨處見損非細是如爲白有臥乎所。蟲災之前後所報，凡爲十有九邑，而今此七邑之先爲寢止，雖甚多幸，其餘十二邑之尙未止息，安州·三和之又此蟲災迭告，言念穡事，極爲憂慮，遠邑雨澤多寡與蟲災止息，來頭農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9일까지 연이어 주룩주룩 내린 우택이 또 6치 9푼이고, 영유·증산 2개 고을의 메뚜기 재해가 첨가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강서·삼화·상원·삼등·강동·자산·은산·순천·성천·맹산 등 11개 고을은 강과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순안·영유·숙천·덕천·영원·양덕·구성·삼화·증산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함중·용강·영원·삭주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박천·운산·희천·가산·철산·의주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선천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알이 들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점 단단해지고, 늦벼는 그사이에 이삭이 패기 시작하였고, 콩·팥은 거의 다 꽃이 피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먼 고을의 우택 양과 벌레 재해가 그쳤는지, 앞으로의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8. 1856년(철종 7) 8월 21일(양력 9월 19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62d-163b) / 平安監營啓錄 25책(99b-99b)

今月初九日之雨, 各邑民家漂頽, 待其報來, 更爲登聞計料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卽到付成川府使尹秉鼎牒呈內, 本府上部·下部·大谷·西部·[旺]乙·三岐·四佳·楸灘等坊民家, 漂失大戶爲一戶, 中戶爲七戶, 小戶爲三十六戶, 全額大戶爲八戶, 中戶爲二十六戶, 小戶爲一百三十二戶是如爲白乎旆. 祥原郡守李龍會牒呈內, 本郡邑內楓洞兩坊民家, 全額大戶爲二十九戶, 中戶爲一百十二戶, 小戶爲七十六戶, 而隨處摘奸之際, 日字俱至遲滯是如爲白有臥乎所. 晚潦已是乖節, 江川從以漲溢, 沿邊各邑, 無不受災而今此兩邑之漂頽, 至於四百餘戶之多, 接牒未半, 不勝驚慘, 人命之得免渰沒, 殊甚多幸是日乎乃, 見今秋事漸晚, 多民之棲屑, 溢日[目]愁慘, 轉益憧憧. 凡所存恤之方, 有不尋常措處乙仍于, 先自臣營, 發送褊裨, 面面慰撫, 米穀·空石等物, 從優題給, 私養許斫, 隣丁借助, 當年條烟戶雜役, 一併蠲減, 竝與半額戶, 而拔例董飭, 期於不多日內, 結構安堵之意, 以關以題, 各卽另飭爲白乎旆. 同漂頽四百二十七戶原恤典, 竝依例題給後, 役·姓名及穀數,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教是白乎旆. 外他未報邑段,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9일의 비로 각 고을의 백성 집 중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다시 아뢴 계획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도착한 성천부사 윤병정의 문서 보고 내용에, 본 성천부 상부·하부·대곡·서부·[왕]을·삼기·사가·추탄 등 방의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은 대호 1가구, 중호 7가구, 소호 36가구, 완전히 무너진 것은 대호 8가구, 중호 26가구, 소호 132가구라고 합니다. 상원 군수 이용희의 문서 보고 내용에, 본 상원군 읍내·풍동 2개 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은 대호 29가구, 중호 112가구, 소호 76가구인데, 곳에 따라 캐널 즈음에 날짜가 모두 지체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늦은 장마로 이미 절기에 어긋났는데, 강과 시내가 그에 따라 불어나 넘쳐 물가 각 고을은 재해를 당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2개 고을에서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이 무려 400여 가구에 이릅니다. 접수한 문서 보고가 절반도 안 되는데, 놀라움과 참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벗어나 특히 매우 다행임

니다. 현재 가을 일이 점점 늦는데 많은 백성이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니 눈에 넘치도록 비참하니 갈수록 안타깝습니다. 무릇 돌보아 도와주는 방법은 예사로운 조치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먼저 저의 감영에서 비서를 보내 하나하나 만나서 위로하고, 쌀과 곡식·빈가마니 등의 물건을 우선 결정문으로 주고, 개인이 기르는 나무를 베도록 허락하였으며, 이웃 일꾼을 빌려서 도와주고, 한꺼번에 올해 몫의 가구당 잡역을 면제하거나 줄여주었습니다. 절반 무너진 가구와 아울러 관례를 버리고 단단히 지시하여 기어이 하루빨리 집을 지어 이전처럼 안심하도록 하라는 뜻을 공문이나 결정문으로 각각 즉시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427가구의 기본 구호는 모두 규정에 따라 결정문으로 준 뒤 직역·성명 및 곡식의 수량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진홀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홀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우,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9. 1856년(철종 7) 8월 25일(양력 9월 23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64c-164d) / 平安監營啓錄 25책(101a-101a)

道內農形及本月初九日平壤等三十六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江界川渠微漲, 昌城·碧潼·渭原·楚山·龍川等五邑得一犁.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登場, 晚黍粟·稷唐·早稻舉皆成熟, 木花今始摘絮, 晚稻日就入實, 豆太漸次成實, 根豆·木麥方始結穎.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今始刈取, 晚黍粟·稷唐·早稻方張向熟, 木花早穎漸綻, 晚稻幾盡發穗, 豆太間或結殼, 根豆·木麥爛熳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日漸向熟, 根豆·木麥間始起花, 而就前報蟲災中, 价川·宣川·鐵山等三邑, 今既寢息, 而邑之次第蟲止, 雖爲多幸, 蝕餘各穀, 無望食實. 且今番潦漲, 沿江諸邑中被沈禾稼, 亦難成熟, 言念穡事, 誠切憂悶是白乎旃. 臣營下今二十四日辰時量始雨, 或灑或霏, 至二十五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一分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向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9일 평양 등 36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계는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창성·벽동·위원·초산·용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타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대부분 익었고, 목화는 지금 솜을 따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날로 알이 들고, 콩·팥은 점차 여물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베어 거두기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한창 익어가고 있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점점 솜이 터지고, 늦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콩·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날로 점점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그사이에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벌레 재해 중 개천·선천·철산 등 3개 고을은, 지금 이미 그쳤는데, 차례로 고을의 벌레가 그쳐 비록 다행이지만, 먹고 남은 각종 곡식은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습니다. 또 이번에 큰비로 불어나 강가 여러 고을에서 물에 잠긴 벼곡식은 또한 익기 어렵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걱정입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4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5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0. 1856년(철종 7) 9월 1일(양력 9월 29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66a-166c) / 平安監營啓錄 25책(103a-103b)

去月廿五日得雨二寸一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順川得二犁, 永柔·肅川·江西·三和·咸從·甌山·祥原·三登·江東·慈山等十邑得一犁, 平壤·龍岡兩邑得二鋤, 中和·順安·成川·寧邊·安州·嘉山·定州等七邑得一鋤, 廿七日驟雨. 江西段, 自龍淵坊菖浦里, 延及於水川坊於京里, 西部坊竹笛里, 東部坊[東部坊]秀山洞等地西面, 雨雹交下, 不移時乃止, 〈雹〉狀大如山棗, 小如太粒, 所經〈處〉, 長爲四十里, 廣爲十里許, 而未刈之晚稻·稷唐, 多被剝落, 成實之豆太·木麥, 無不受損. 甌山段, 東自師賢坊, 延及於聖陶黃壤邑內三坊, 雨雹驟過, 霎時乃止, 雹狀大如榛子, 小如太粒, 所經處, 長爲十八里, 廣爲七里許, 而各穀傷損不少. 平壤段, 自苾次串坊二里, 延及於九里, 雨雹交下, 霎時旋止, 雹狀如小豆, 所經處, 長爲三里, 廣爲一里許, 而田畝各種, 別無被損, 雲山廿七日曉, 水霜降下是如爲白乎旆. 臣營下三十日已時量又雨, 或灑或霏, 至今月初一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是白如乎. 迨此晚〈秋〉, 各穀成熟之時, 過寸之冷雨, 若是頻仍, 已極可悶, 而江·甌·平三邑之匪意雹損, 雲山郡之差早霜信, 無往非瘁稼之端, 言念民事, 去益差[嗟]惜, 列邑雨澤, 向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5일에 내린 비가 2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순천은 2려가 내렸고, 영유·숙천·강서·삼화·함중·증산·상원·삼등·강동·자산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용강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중화·순안·성천·영변·안주·가산·정주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27일의 소나기에다 강서의 경우 용연방 창포리에서 수천방 어정리, 서부방 죽적·리, 동부방 수산동 등 지역의 서쪽 면까지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산 대추만 하고 작은 것은 콩알만 하며, 거쳐 간 곳의 길이는 40리이고 너비는 10리가량입니다. 베지 않은 늦벼·수수는 많이 깎이거나 떨어졌고, 여문 콩·팥·메밀은 손상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증산의 경우, 동쪽은 사현방에서 성도·화양·읍내 3개 방까지 우박이 갑자기 지나가고 순식간에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개암만 하고 작은

것은 콩알만 하며, 거쳐 간 곳의 길이는 18리이고 너비는 7리가량입니다. 각종 곡식의 손상이 적지 않습니다. 평양의 경우, 잉차꽃방 2리에서 9리까지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순식간에 곧바로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작은 콩만 하며, 거쳐 간 곳의 길이는 3리이고 너비는 1리가량입니다. 논밭의 각종 입은 손상이 별로 없습니다. 운산은 27일 새벽에 무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30일 사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 이렇게 늦가을에 이르러 각종 곡식이 익은 때에 1치 넘는 찬비가 이처럼 빈번히 내려 이미 그지없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강서·중산·평양 3개 고을의 뜻밖의 우박 손상과 운산군의 조금 이른 서리 소식은 가는 곳마다 곡식 손상의 단서가 아님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애달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1. 1856년(철종 7) 9월 5일(양력 10월 3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66d-167c) / 平安監營啓錄 25책(104a-105a)

去月廿七日驟雨, 江西等三邑雹災形止及臣營下今月初一日得雨一寸八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三和·咸從·甌山·三登·江東等十邑得一犁, 平壤·中和·成川·順川·价川·殷山·慈山·龍岡·博川·嘉山·定州等十一邑得一鋤. 順安段, 廿七日驟雨, 自順化面一里, 延及於冬花縣內定坊松峴東頭峯松等七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太粒, 小如小豆, 所經處, 長爲三十五里許, 廣爲二十里許, 而未穫之稷唐·晚稻, 間或剝落, 不止[至]大段. 肅川段, 自吹里面二里, 延及於三里面七里, 雨雹交下, 霎時旋止, 雹狀大如榛子, 小如大豆, 所經處, 長爲二十里許, 廣爲十里許, 而各穀多致傷損. 中和段, 自義山坊一里, 延及於馬井下道唐村龍興楊武岱上道等七[六]面, 雨雹交下, 不移時乃止, 雹狀如榛子, 長爲三十里許, 廣爲五里許, 而未穫之晚稻·稷唐, 大半剝落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晚黍粟次第刈取, 稷唐·早稻間始刈穫, 木花方張摘拾, 晚稻漸次向熟, 豆太日就成實, 根豆·木麥過半結殼.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舉皆刈穫, 晚黍粟·稷唐·早稻已盡成熟, 木花間或拾絮, 晚稻今始入實, 豆太幾盡結殼, 根豆·木麥方始結殼.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半成熟, 根豆·木麥爛熳起花. 蟲災段, 前報中順安·永柔·肅川·安州·德川·順川·咸從·甌山·三和·龍岡等十一邑, 次第寢息, 平壤·順川·博川·寧邊·定州·郭山等六邑, 初一日曉, 水霜降下, 江西·順安·肅川·三登·江東·价川·慈山·殷山等八邑, 初二日曉, 水霜降下. 而早種今旣畢穫, 其所失稔, 更無可論, 而食實之望, 惟在於晚各穀之善就, 蓋此豆太·木麥, 以其早乾之故, 未能及時耕種, 自至最晚始播, 則幸得秋陽之調和, 可期桑榆之收效是白如中. 迺自去月念後, 迄至今初, 日候猝涼, 涼雨雨雹, 迭相爲害, 況又霜信早遍於南北, 使此幾熟之物, 遽致虧實之歎是日岔除良. 蟲災各邑, 間皆告寢, 蝕餘禾稼, 亦難成實, 縱非統一省全一邑之被災, 爲念穡事, 愈往愈悶, 未報遠邑雨澤. 向後農形利害,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7일의 소나기와 강서 등 3개 고을의 우박 재해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에 내린 비가 1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삼화·함중·증산·삼등·강동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중화·성천·순천·개천·은산·자산·용강·박천·가산·정주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순안의 경우, 27일 소나기에다 순화면 1리에서 동화·현내·정방·송현·동두·봉송 등 7개 면까지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순식간에 곧바로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콩알만 하고 작은 것은 작은 팔만 하며, 거처 간 곳의 길이는 35리가량이고 너비는 20리가량입니다. 수확하지 못한 수수·늦벼는 간혹 깎이거나 떨어졌는데, 대단하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숙천의 경우, 취리면 2리에서 삼리면 7리까지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순식간에 곧바로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개암만 하고 작은 것은 큰 팔만 하며, 거처 간 곳의 길이는 20리가량이고 너비는 10리가량인데, 각종 곡식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중화의 경우, 의산방 1리에서 마정·하도·당촌·용현·양무·별상·상도 등 7개 면까지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개암만 하고 (거처 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인데, 수확하지 못한 늦벼·수수는 대부분 깎이거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베어 거두고, 수수·올벼는 그사이에 베어 수확하고, 목화는 한창 (솜을) 따서 거두고, 늦벼는 점차 익어가고, 콩·팥은 날로 알이 영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절반 이상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베어 수확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이미 다 익었고, 목화는 간혹 솜을 따고, 늦벼는 지금 알이 들기 시작하였고, 콩·팥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거의 절반이 익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벌레 재해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순안·영유·숙천·안주·덕천·순천·함중·증산·삼화·용강 등 11개 고을은 차례로 그쳤습니다. 평양·순천·박천·영변·정주·곽산 등 6개 고을은 초1일 새벽에 무서리가 내렸고, 강서·순안·숙천·삼등·강동·개천·자산·은산 등 8개 고을

은 초2일 새벽에 무서리가 내렸습니다. 올곡은 지금 이미 수확을 마쳤는데, 흉작인 것은 다시 따질 것이 없고, 열매를 먹을 가망은 오로지 늦은 각종 곡식이 잘 여물기에 달렸습니다. 대개 이렇게 콩·팥·메밀은 이른 가뭄 때문에 제때에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지 못해 자연히 가장 늦게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는데, 다행히 가을에 햇볕이 조화로워 가을걷이에 거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이후로 이번 초까지 날씨가 갑자기 서늘하고, 서늘한 비와 우박으로 번갈아 손해를 되고, 하물며 또 서리 소식이 남북에 두루 빨라서, 이렇게 거의 익은 곡식은 서두른 날씨로 조금 부족함을 탄식하게 합니다. 벌레 재해의 경우, 각 고을은 그사이에 모두 그쳤다고 아뢰고, 먹고 남은 벼곡식 또한 알이 영글기 어렵습니다. 비록 평안도 전체나 고을 전체가 재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농사를 생각하면 갈수록 더 걱정입니다. 보고하지 않은 먼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2. 1856년(철종 7) 9월 15일(양력 10월 13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68d-169b) / 平安監營啓錄 25책(106a-106b)

道內農形及本月初一日順安等二十一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等五邑得一犁, 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泰川·龜城等七邑得一鋤, 宣川段, 去月廿七日驟雨, 自深川面書院里, 延及於山普光面下端里等地,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如太粒, 所經處, 長爲二十五里許, 廣爲十里許, 而向熟之各穀, 多被剝落是如爲白有旆. 碧潼廿六日曉, 寧遠廿七日夜, 朔州·江界兩邑廿八日曉, 泰川·龜城·龍川·鐵山·義州等五邑今初二日夜, 德川·孟山·嘉山·宣川·成川·熙川等六邑初二日曉, 昌城初四日夜, 安州初十日曉, 祥原·三和兩邑十一日曉, 嚴霜降下.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晚黍稷已盡登場, 稷唐·早稻過半刈穫, 木花幾半摘拾, 晚稻次第成熟, 豆太日漸向熟, 根豆·木麥間始入實.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晚黍粟·稷唐·早稻間或刈取, 木花方張拾絮, 晚稻幾盡入實, 豆太日就入實, 根豆·木麥舉皆結殼.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方始刈取, 根豆·木麥間或結殼是如爲白有臥乎所. 宣川之兩面雹災晚稼之如于[干]在野者, 又此被損, 言念民事, 去益悶然, 見今霜信已遍, 農功垂畢, 一路災實, 各邑分等, 更加詳探, 追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1일의 순안 등 21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꾀산·선천·철산·용천·의주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태천·구성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선천의 경우, 지난달 27일의 소나기에다 심천면 서원리에서 산보광면 하단리 등지까지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순식간에 이때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콩알만 하며, 거쳐 간 곳의 길이는 25리가량이고 너비는 10리가량인데, 익어가던 각종 곡식은 꺾이거나 떨어진 것이 많다고 합니다. 벽동은 26일 새벽에, 영원은 27일 밤, 삭주·강계 2개 고을은 28일 새벽에, 태천·구성·용천·철산·의주 등 5개 고을은 초2일 밤에, 덕천·맹산·가산·선천·

성천·회천 등 6개 고을은 초2일 새벽에, 창성은 초4일 밤에, 안주는 초10일 새벽에, 상원·삼화 2개 고을은 11일 새벽에 된서리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증화·상원·삼동·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늦기장은 이미 다 타작하였고, 수수·올벼는 절반 이상 베어 수확하였고, 목화는 거의 절반 따서 거둬고, 늦벼는 차례로 익어가고, 콩·팥은 날로 점점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그사이에 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간혹 베어 거두고, 목화는 한창 솜을 따고 있고, 늦벼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콩·팥은 날로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대부분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막 베어 거두기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간혹 꼬투리를 맺는다고 합니다. 선천의 2개 면 우박 재해는 들판에 있는 어지간한 늦벼에 또 이렇게 손상을 입히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더욱 걱정됩니다. 현재 서리 소식이 이미 두루 들리고 농사가 거의 끝났으니, 도내 전체의 재해와 결실, 각 고을의 등급은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23. 1856년(철종 7) 11월 22일(양력 12월 19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184b-184b) / 平安監營啓錄 25책(125b-125b)

卽接義州府尹韓敬源本月二十日午時成貼狀啓臚報內, 本府境鴨綠江上下流, 今已畢合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접수한 의주 부윤 한경원이 이번 달 20일 오시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내용에, 의주부 지역의 압록강 상·하류에 지금 이미 얼음이 다 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24. 1857년(철종 8) 2월 23일(양력 3월 18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203d-203d) / 平安監營啓錄 25책(149b-150a)

卽接義州府尹韓敬源本月二十一日戌時成〈貼〉狀啓謄報內, 中江開市撤罷, 大國人還歸, 本府境鴨綠江上下流, 間間解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접수한 의주 부윤 한경원이 이번 달 21일 술시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내용에, 중강개시를 철폐하고 대국 사람을 돌려보냈으며, 의주부 지역의 압록강 상·하류에 간간이 얼음이 녹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525. 1857년(철종 8) 3월 13일(양력 4월 7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206a-206a) / 平安監營啓錄 25책(155a-155b)

卽接各邑所報，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牟麥方始抽芽，春牟隨其土解，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見今天氣尙峭，餘寒未退，耕作自致差晚是白如乎。凡係課農之節，另加申飭，使之着念舉行爲白乎旆。外此諸邑，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막 싹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땅이 풀리는 대로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날씨가 조금 매섭고 남은 추위가 물러가지 않아 땅을 가는 것은 자연히 조금 늦어집니다. 무릇 농사에 관계되는 사항은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여 유념해서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의 여러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26. 1857년(철종 8) 3월 18일(양력 4월 12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5책(206c-206d) / 平安監營啓錄 25책(156a-156a)

平壤等十九邑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本月十七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至當[翌]日卯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如乎。列邑均霑與否，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19개 고을의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7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고루 적셨는지 여부와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27. 1857년(철종 8) 4월 11일(양력 5월 4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10d-210d) / 平安監營啓錄 26책(5a-5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本月初九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八分, 而陰雲不散, 尙未快霽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9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아직도 말끔하게 개지 않았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8. 1857년(철종 8) 4월 13일(양력 5월 6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11a-211c) / 平安監營啓錄 26책(5b-6a)

臣營下本月初九日得雨八分, 而尙未快霽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永柔·慈山·龍岡等五邑, 得一鋤. 祥原得二鋤. 中和·三和兩邑, 得一犁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日漸茁茂[茂], 春麴向青, 早黍粟方張耕播,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始爲播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麴麥幾盡抽芽, 春麴次第立苗, 早黍粟今始耕種, 晚黍粟·稷唐·早稻·木花, 間或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麴已訖播種是如爲白乎旅. 臣營下今十一日丑時量又雨, 或霏或灑, 至當日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是白如乎. 列邑之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9일에 내린 비가 8푼이고, 아직도 말끔하게 개지 않은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자산·용강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상원은 2서가 내렸고, 중화·삼화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봄보리는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비로소 씨앗을 뿌립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1일 축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9. 1857년(철종 8) 4월 23일(양력 5월 16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11d-212b) / 平安監營啓錄 26책(6b-7a)

本月初九日平壤等八邑雨澤. 臣營下十一日得雨一寸七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九日雨, 江西·咸從·甌山·肅川·价川等五邑, 得一犁. 三登·江東·陽德·殷山·寧遠·孟山·嘉山·定州·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泰川等十五邑, 得一鋤. 成川·順川·德川·安州·郭山·博川·龜城等七邑浥塵. 十一日雨, 中和·祥原·江東·成川·殷山·順川·龍岡·三和·寧遠·順安·永柔·定州等十二邑, 得一犁. 三登·龍川兩邑, 得二鋤. 平壤·肅川·安州·嘉山·郭山·宣川·鐵山·義州·江西·咸從·甌山·慈山·价川·德川·孟山·陽德·寧邊·雲山·博川·泰川·龜城等二十一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粳麥日益茁長, 春粳方始向茁, 早黍粟間或立苗,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已盡耕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粳麥日漸茁茂, 春粳今方向青, 早黍粟幾訖耕種,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次第播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間始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9일의 평양 등 8개 고을의 우택과 저의 감영에 11일에 내린 비가 1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9일의 비로 강서·함중·증산·숙천·개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삼등·강동·양덕·은산·영원·맹산·가산·정주·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태천 등 1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성천·순천·덕천·안주·곽산·박천·구성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11일의 비로 중화·상원·강동·성천·은산·순천·용강·삼화·영원·순안·영유·정주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삼등·용천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평양·숙천·안주·가산·곽산·선천·철산·의주·강서·함중·증산·자산·개천·덕천·맹산·양덕·영변·운산·박천·태천·구성 등 21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

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더욱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막 싹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봄보리는 지금 막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차례로 씨앗을 뿌리고,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그사이에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내린 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0. 1857년(철종 8) 5월 3일(양력 5월 25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15b-215c) / 平安監營啓錄 26책(10a-10b)

道內農形及去月初九日江西等二十七邑, 十一日中和等三十五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九日雨, 熙川·江界·渭原·楚山等四邑, 得一鋤. 十一日雨, 碧潼·楚山·江界·熙川·渭原等五邑, 得一鋤. 朔州·昌城溫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方始胚胎, 春牟日漸茁茂, 早黍粟幾盡立苗, 晚黍粟(早)稷唐·早稻·木花, 間始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日漸茁長, 春牟舉皆向青, 早黍粟間或立苗,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已訖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向青, 火粟始播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초9일의 강서 등 27개 고을과 11일의 중화 등 35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9일의 비로 회천·강계·위원·초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11일의 비로 벽동·초산·강계·회천·위원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삭주·창성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막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그사이에 싹이 돋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푸르러지고, 화속은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1. 1857년(철종 8) 5월 13일(양력 6월 4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19c-220a) / 平安監營啓錄 26책(15b-15b)

臣營下本月初六日得雨四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永柔·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順川·德川·寧邊·雲山·熙川·博川·泰川·龜城等二十三邑, 得一鋤. 順安·肅川·安州·嘉山·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价川等十邑沍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次第發穗, 春麴今方胚胎, 早黍粟初鋤伊始,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方張立苗, 晚稻·豆太, 今始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麴麥舉皆胚胎, 春麴日漸茁茂[茂], 早黍粟已盡立苗, 晚黍粟·稷唐·早稻·木花, 間或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防[坊]段, 春麴今方就苗, 火粟過半耕種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에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영유·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순천·덕천·영변·운산·회천·박천·태천·구성 등 2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순안·숙천·안주·가산·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개천 등 10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지금 막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한창 싹이 돋고 있고, 늦벼·콩·팥은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알을 뻗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간혹 싹이 돋고 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지금 막 싹이 무성해지고, 화속은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내린 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2. 1857년(철종 8) 5월 23일(양력 6월 14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20c-221a) / 平安監營啓錄 26책(16b-17a)

道內農形及本月初六日平壤等三十三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雨, 孟山·朔州·昌城·碧潼·渭原等五邑, 得一鋤. 陽德·寧遠·江界·楚山等四邑溫塵. 十三日雨, 龍川得二鋤, 价川·德川·寧遠·孟山·定州·郭山·宣川·鐵山·義州·寧邊·雲山·楚山·龜城·朔州·昌城·碧潼等十六邑, 得一鋤. 中和·祥原·成川·順安·肅川·安州·順川·三和·博川·泰川等十邑溫塵. 十八日雨, 中和·江東·龍岡·咸從·三和等五邑, 得一鋤. 祥原·江西·永柔等三邑溫塵是如爲乎旅.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粳麥漸次向實, 春粳次第發穗, 早黍粟初鋤垂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方張初鋤, 晚稻·豆太過半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粳麥日益發穗, 春粳舉皆胚胎, 早黍粟初鋤伊始,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已盡立苗, 晚稻·豆太方始耕種. 江界之三川·慈山[慈城]兩坊段, 春粳方胎, 火粟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6일의 평양 등 33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맹산·삭주·창성·벽동·위원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양덕·영원·강계·초산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13일의 비로 용천은 2서가 내렸고, 개천·덕천·영원·맹산·정주·곽산·선천·철산·의주·영변·운산·초산·구성·삭주·창성·벽동 등 1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중화·상원·성천·순안·숙천·안주·순천·삼화·박천·태천 등 10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18일의 비로 중화·강동·용강·함중·삼화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상원·강서·영유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알이 들고, 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

올벼·목화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콩·팥은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더욱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대부분 알을 뺐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벼·콩·팥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막 알을 배고, 화속은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3. 1857년(철종 8) 윤5월 1일(양력 6월 22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21d-222a) / 平安監營啓錄 26책(19a-19a)

道內農形及去月初六日孟山等九邑, 十三日龍川等二十七邑, 十八日中和等八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三日雨, 江界·渭原得一鋤. 十八日雨, 郭山得一鋤. 定州泥塵. 二十日雨, 江東·寧遠·寧邊·雲山·楚山等五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去月三十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載陰載陽, 今月初一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六分, 而一向陰翳, 尙有雨意是白如乎. 見今惜乾之餘, 得此霑潤, 亦甚多幸, 繼此周洽, 方切顒望爲白乎旆.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초6일의 맹산 등 9개 고을과 13일의 용천 등 27개 고을, 18일의 중화 등 8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3일의 비로 강계·위원은 1서가 내렸고, 18일의 비로 객산은 1서가 내렸고, 정주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0일의 비로 강동·영원·영변·운산·초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달 30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더니 이번 달 초1일 축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줄곧 짙은 구름이 끼어 아직도 비올 조짐이 있습니다. 현재 가뭄 끝에 이렇게 촉촉하게 적셨으니 또한 매우 다행입니다. 이후로 두루 흡족하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4. 1857년(철종 8) 윤5월 3일(양력 6월 24일)

각사등록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22b-222c) / 平安監營啓錄 26책(19b-19b)

臣營下本月初一日得雨六分, 一向陰翳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日以後, 乍陰乍陽, 初二日戌時量又雨霏灑, 初三日卯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 而連接各邑所報, 則初一日雨, 平壤·永柔·安州·中和·江東等五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粳麥間或向熟, 春粳漸次入實, 早黍粟方張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初鋤垂畢, 晚稻·豆太, 始爲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等二十三邑, 秋粳麥今方向實, 春粳日益發穗, 早黍粟初鋤已訖,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初鋤伊始, 晚稻·豆太, 已盡播〈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幾皆發穗, 火粟次第立苗, 而其中江西縣段, 飛蟲熾盛, 早晚各穀, 頗有所損是如爲白有臥乎所, 隨輒捕除, 毋至蔓延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에 내린 비가 6푼인데 줄곧 짙은 구름이 낀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잠깐씩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초2일 술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3일 묘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1일의 비로 평양·영유·안주·중화·강동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둥·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익어가고, 봄보리는 점차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비로소 싹이 돋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여물어가고, 봄보리는 날로 더욱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

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이미 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화속은 차례로 싹이 돋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강서현의 경우, 날벌레가 세차게 번져 올곡이든 늦곡이든 각종 곡식이 자못 손상된다고 합니다. 번번이 잡아 없애 널리 퍼지기에 이르지 말도록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 0535. 1857년(철종 8) 윤5월 8일(양력 6월 29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23c-223d) / 平安監營啓錄 26책(20b-21a)

道內農形及本月初一日平壤等五邑雨澤, 初三日得雨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一日雨, 順川·价川得一犁. 肅川·泰川得二鋤. 慈山·殷山·德川·三登·成川·陽德·江西·龍岡·嘉山·定州·龍川·寧邊·雲山·博川等十四邑, 得一鋤. 三和·咸從·甑山·祥原·順安·郭山·宣川·鐵山·義州等九邑浥塵. 初三日雨, 永柔得二鋤. 平壤·順安·安州·定州·中和·龍岡等六邑, 得一鋤. 祥原·甑山·郭山·宣川等四邑浥塵是如爲白乎旡. 臣營下今初七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酉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 而前後鋤浥之沃潤, 旱農則幸不失時, 至於沓[畚]稼, 則高亢之地, 與灌溉所及水付立種者, 終欠周洽, 繼此一霽, 方切願祝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1일의 평양 등 5개 고을의 우택과 초3일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1일의 비로 순천·개천은 1려가 내렸고, 숙천·태천은 2서가 내렸고, 자산·은산·덕천·삼등·성천·양덕·강서·용강·가산·정주·용천·영변·운산·박천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삼화·함중·증산·상원·순안·곽산·선천·철산·의주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초3일의 비로 영유는 2서가 내렸고, 평양·순안·안주·정주·중화·용강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상원·증산·곽산·선천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7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서나 먼지만 적실 정도의 비로 적서 밭농사는 다행히 시기를 놓치지 않았고, 논곡식의 경우 높고 메마른 지역의 경우 물이 미치는 곳은 물을 주어 씨앗을 뿌렸으나 끝내 두루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이후로 한차례 퍼붓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6. 1857년(철종 8) 윤5월 9일(양력 6월 30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23d-224a) / 平安監營啓錄 26책(21a-21a)

本月初一日順川等二十七邑, 初三日永柔等十一邑雨澤, 初七日營下得雨四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一日雨, 寧遠·孟山得一鋤. 初三日雨, 三和·甑山·鐵山等三邑浥塵. 初七日雨, 順川得一犁. 殷山得二鋤. 中和·三登·順安·三和·咸從·甑山等六邑, 得一鋤. 平壤·祥原·龍岡等三邑浥塵是如爲白乎旡. 臣營下今初九日丑時量又雨, 或灑或霑, 午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如乎. 各邑之得雨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일의 순천 등 27개 고을과 초3일의 영유 등 11개 고을의 우택, 초7일의 감영에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1일의 비로 영원·맹산은 1서가 내렸고, 초3일의 비로 삼화·중산·철산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초7일의 비로 순천은 1려가 내렸고, 은산은 2서가 내렸고, 중화·삼등·순안·삼화·함중·중산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양·상원·용강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9일 축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오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의 내린 비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537. 1857년(철종 8) 윤5월 13일(양력 7월 4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25b-225d) / 平安監營啓錄 26책(22b-23a)

本月初七日順川等十一邑雨澤, 初九日營下得雨一寸二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七日雨, 永柔得一犁. 江西得二鋤. 成川·价川·安州·定州·鐵山等五邑, 得一鋤. 龍岡·肅川·博川·泰川·龜城等五邑浥塵. 初九日雨, 順安川渠微漲. 殷山·順川·肅川·安州等四邑, 得一犁. 平壤·甑山·咸從·慈山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粳麥幾盡向熟, 春粳舉皆入實, 早黍粟再鋤垂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再鋤伊始, 晚稻·豆太皆已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粳麥過半入實, 春粳漸次入實, 早黍粟間或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方張初鋤, 晚稻·豆太間始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日益向實, 火粟初鋤伊始是如爲白乎旆. 就中三和·龍岡兩邑, 飛蟲所過, 田畚各穀, 所損非細是如爲白有臥乎所. 江·三·龍三邑之迭被蟲損, 誠爲悶然是白乎旆. 臣營下今十二日寅時量又雨, 或霏或灑, 未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如乎. 各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7일의 순천 등 11개 고을의 우택과 초9일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7일의 비로 영유는 1려가 내렸고, 강서는 2서가 내렸고, 성천·개천·안주·정주·철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용강·숙천·박천·태천·구성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초9일의 비로 순안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은산·순천·숙천·안주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증산·함중·자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익어가고, 봄보리는 대부분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다 이미 싹이 돋았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절반 이상 알이 들었고, 봄보리는 점차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콩·팥은 그사이에 싹이 돋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날로 더욱 알이 들고, 화속은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삼화·용강 2개 고을의 경우, 날벌레가 지나간 곳은 논밭의 각종 곡식은 손상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강서·삼화·용강 고을이 번갈아 벌레에 손상을 입으니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2일 인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미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 0538. 1857년(철종 8) 윤5월 23일(양력 7월 14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25d-226c) / 平安監營啓錄 26책(23a-23b)

本月初七日永柔等十二邑, 初九日順安等九邑雨澤, 十二日營下得雨一寸二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七日雨, 龍川得一犁. 雲山·渭原兩邑, 得二鋤. 郭山·宣川·寧邊·江界·楚山·陽德·朔州等七邑, 得一鋤. 初九日雨, 价川·德川·孟山·龜城等四邑, 川渠微漲, 寧邊得二犁. 定州·宣川·義州·泰川·陽德·寧遠等六邑, 得一犁. 郭山·博川·熙川等三邑, 得二鋤. 江西·祥原·嘉山·雲山·昌城等五邑, 得一鋤. 十二日雨, 价川·德川兩邑, 川渠微漲. 順安·順川兩邑, 得二犁, 平壤·永柔·定州·宣川·鐵山·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三登·江東等十二邑, 得一犁. 郭山·雲山兩邑, 得二鋤. 肅川·安州·龍川·中和·祥原·博川·泰川·寧邊·楚山·慈山等十邑, 得一鋤. 十四日驟雨, 安州得一犁, 雲山得一鋤. 十五日驟雨, 祥原得一犁, 寧邊得二鋤, 甑山得一鋤. 十七日驟雨, 泰川得一犁, 寧邊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間或刈取, 春麴幾盡向熟, 早黍粟間始三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幾訖再鋤, 晚稻·豆太方張初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麴麥次第登熟, 春麴舉皆入實, 早黍粟已訖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間或再鋤, 晚稻·豆太已盡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麴過半入實, 火粟初鋤幾訖是如爲白乎旆. 就中宣川段, 初七日雨雹交下, 始於深川面橋上里, 終於東林里, 長爲二十里, 廣爲十里許, 而雹狀大如鳥卵, 小如橡實, 所經處, 方熟之麴麥, 莖穗剝落, 漸茁之禾稼, 無不受損. 蟲災段, 江西·龍岡·三和等三邑, 尚未寢熄, 咸從·甑山兩邑, 亦有蟲損, 言念穡事, 誠甚憂悶是如是白如乎.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7일의 영유 등 12개 고을과 초9일의 순안 등 9개 고을의 우택, 12일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7일의 비로 용천은 1려가 내렸고, 운산·위원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광산·선천·영변·강계·초산·양덕·삭주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초9일의 비로 개천·덕천·맹산·구

성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영변은 2려가 내렸고, 정주·선천·의주·태천·양덕·영원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껍산·박천·회천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강서·상원·가산·운산·창성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12일의 비로 개천·덕천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순안·순천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양·영유·정주·선천·철산·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삼등·강동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껍산·운산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숙천·안주·용천·중화·상원·박천·태천·영변·초산·자산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14일의 소나기로 안주는 1려가 내렸고, 운산은 1서가 내렸고, 15일의 소나기로 상원은 1려가 내렸고, 영변은 2서가 내렸고, 증산은 1서가 내렸고, 17일의 소나기로 태천은 1려가 내렸고, 영변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베어 거두고, 봄보리는 거의 다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그사이에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거의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벼·콩·팥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껍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익어가고, 봄보리는 대부분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콩·팥은 이미 다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절반 이상 알이 들었고, 화속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선천의 경우, 초7일에 우박이 어지러이 내렸는데 심천면 교상리에서 시작하여 동림리에서 끝났으며, (거쳐 간 곳의) 길이는 20리, 너비는 10리가량이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도토리만 합니다. 거쳐 간 곳의 막 익은 보리와 밀은 줄기와 이삭이 꺾이거나 떨어졌고, 점점 싹이 자라던 벼곡식은 손상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벌레 재해의 경우, 강서·용강·삼화 등 3개 고을은 아직도 그치지 않았고, 함중·증산 2개 고을 또한 벌레 손상이 있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걱정이라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9. 1857년(철종 8) 6월 3일(양력 7월 23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27b-227d) / 平安監營啓錄 26책(25a-25a)

道內農形及去月十二日价川等二十八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雨, 寧遠·孟山川渠微漲, 陽德·江界·渭原等三邑, 得一犁, 龜城得二鋤, 熙川·碧潼得一鋤.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春秋牟麥, 今已畢穫, 早黍粟幾訖三鋤, 間或胚胎, 晚黍粟·稷唐·早稻·木花, 今始三鋤, 晚稻·豆太次第再鋤, 根豆·木麥方張耕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春秋牟麥纔畢收穫, 早黍粟三鋤伊始,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再鋤垂畢, 晚稻·豆太幾訖初鋤, 根豆·木麥方始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今纔刈取, 隨以根耕, 火粟始爲再鋤是如爲白有臥乎所. 就中三和·咸從·甌山等三邑, 蟲災深爲寢熄, 江西·龍岡尙不止熄, 德川·孟山蟲蝗所過, 黍粟·稷唐, 或有所損是如爲白乎旅. 兩麥已畢收穫, 全省可謂均登, 言念民事, 誠爲萬幸, 而當此各穀長養之時, 一旱數旬, 自多枯損, 迨此一霈, 方切願望是白乎旅. 若而邑蟲災, 亦此悶然, 這這捕除, 毋至蔓延之意, 另加申飭爲白有如乎. 蟲災寢熄與否, 嗣後農形利害,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12일의 개천 등 28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영원·맹산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양덕·강계·위원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구성은 2서가 내렸고, 회천·벽동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지금 이미 수확을 마쳤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세벌 김매기를 마쳤는데 간혹 알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조산·박천·

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방금 수확을 마쳤고, 울기장·울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거의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갈이하는 콩·메밀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지금 막 베에 거두는데, 그대로 그루갈이하고, 화속은 비로소 두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삼화·함중·증산 등 3개 고을은 벌레 재해가 심했으나 점점 그쳤고, 강서·용강은 아직도 그치지 않았고, 덕천·맹산은 메뚜기가 지나간 곳은 기장·조·수수는 더러 손상됐다고 합니다. 보리와 밀은 이미 수확을 마쳤는데, 평안도 전체적으로 고루 잘 됐다고 할 만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성장하는 시기에 수십 일 간의 한차례 가뭄으로 자연히 마르는 손상이 많으니, 여기에 한차례 퍼붓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고을의 벌레 재해 또한 걱정스럽습니다. 낱알이 잡아 없애 널리 퍼지기에 이르지 말도록 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벌레 재해가 그쳤는지 여부와 이후 농사 상황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40. 1857년(철종 8) 6월 5일(양력 7월 25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29a-229b) / 平安監營啓錄 26책(26b-27a)

道內農形及三和等七邑旱蝗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初三日亥時量始雨, 或霏灑或滂沱, 初五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七寸八分是白如乎. 渴悶之餘, 三日甘霖, 得此優渥, 農情慰滿, 民事萬幸, 列邑均霑, 蟲蝗寢熄,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삼화 등 7개 고을의 가뭄과 메뚜기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3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짹짹 쏟아지더니 초5일 축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8푼이었습니다. 애타게 걱정하던 끝에 3일간의 단비가 이렇게 넉넉하게 적셔 농사짓는 심정을 가득히 위로하니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의 고루 적셨는지와 메뚜기가 그쳤는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41. 1857년(철종 8) 6월 9일(양력 7월 29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31b-231c) / 平安監營啓錄 26책(29b-29b)

臣營下今初五日得雨七寸八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雨, 中和·三登川渠微漲. 平壤·江西·龍岡·三和等四邑, 得二犁. 順安·祥原·江東·咸從·甑山·順川等六邑, 得一犁. 永柔得二鋤. 慈山·殷山·嘉山等三邑, 得一鋤. 肅川·安州浥塵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初七日寅時量, 又雨灑霏, 初八日辰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七分, 而一向陰翳, 雨意尙濃是白如乎. 列邑之雨澤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초5일의 내린 비가 7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중화·삼등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평양·강서·용강·삼화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순안·상원·강동·함중·증산·순천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유는 2서가 내렸고, 자산·은산·가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숙천·안주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7일 인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뿌리거나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8일 진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7푼이었고, 줄곧 짙은 구름이 끼어 있어 비올 조짐이 아직도 짙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42. 1857년(철종 8) 6월 13일(양력 8월 2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33b-233d) / 平安監營啓錄 26책(31b-32a)

本月初五日中和等十九邑雨澤及臣營下初八日得雨三寸七分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五日雨, 陽德得一犁. 龍川溫塵. 初八日雨, 三登川渠微漲. 平壤·順安·江西·三和·甌山·江東·寧邊等七邑, 得二犁. 龍岡·咸從·永柔·肅川·安州·慈山·殷山·順川·价川·祥原·泰川等十一邑, 得一犁. 宣川·博川得二鋤. 嘉山·定州·龜城等三邑, 得一鋤. 郭山溫塵是如爲白乎旅.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胚胎, 今方發穗, 晚黍粟·稷唐·早稻, 日漸胚胎, 木花方始起花, 晚稻·豆太次第三鋤, 根豆·木麥初鋤伊始.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已訖三鋤, 幾盡胚胎,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方張三鋤, 晚稻·豆太再鋤垂畢, 根豆·木麥舉皆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已訖再鋤, 根豆·木麥間或立苗, 而就中江西·德川·孟山等三邑, 蟲災已爲寢熄, 龍岡尚未止熄是白遣. 今番雨澤, 清南諸邑, 雖有均霑之喜, 至若清北之郭山·義州, 霏灑難以沃焦, 各穀多有枯損, 民情渴悶, 望霓益切是如, 有所報來乙仍于. 上項兩邑祈雨祭, 不卜日設行之意, 措辭關飭爲白乎旅. 各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초5일의 중화 등 19개 고을의 우택 및 저의 감영의 초8일에 내린 비가 3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5일의 비로 양덕은 1려가 내렸고, 용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초8일의 비로 삼등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평양·순안·강서·삼화·증산·강동·영변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용강·함중·영유·숙천·안주·자산·은산·순천·개천·상원·태천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선천·박천은 2서가 내렸고, 가산·정주·구성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꾀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알을 댔는데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점점 알을 배고, 목화는 막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세벌 김매기를 마쳤는데 거의 다 알을 났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대부분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간혹 싹이 돋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강서·덕천·맹산 등 3개 고을은 벌레 재해가 이미 그쳤는데 용강은 아직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우택으로 청천강 남쪽 여러 고을은 비록 고루 적서 기쁘지만, 청천강 북쪽의 곽산·의주 같은 경우 타는 술에 뿌리는 격으로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는 것으로는 어려워 각종 곡식이 많이 마르고 손상되어 백성들의 심정은 애타게 걱정입니다. 비를 더욱 간절히 바란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위 향의 2개 고을의 기우제는 날짜를 가리지 말고 시행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각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43. 1857년(철종 8) 6월 18일(양력 8월 7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36a-236b) / 平安監營啓錄 26책(34b-35a)

本月初五日陽德·龍川雨澤, 初八日三登等二十五邑雨澤及郭山·義州祈雨祭, 不卜日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五日雨, 成川得一鋤, 孟山·昌城溫塵. 初八日雨, 陽德川渠漲滿, 德川得二犁, 成川·寧遠·孟山等三邑, 得一犁. 龍川·熙川得二鋤. 中和·鐵山·朔川[朔州]·昌城·雲山等五邑, 得一鋤. 義州溫塵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十六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十八日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六寸一分, 而一向陰翳, 雨意尙存是白遣. 祈雨祭段, 義州先行一次, 而十一日驟雨, 得一鋤後, 仍爲停止. 郭山段, 雨澤尙未均霑, 連行二次, 安州·熙川, 初八日雨, 雖得鋤犁, 猶不善洽, 圭壁[璧]之舉, 觀勢設禱計料是如, 有所報來乙仍于. 上項兩邑祈雨祭, 隨其被旱淺深, 不卜日設行之意, 更爲關飭爲白乎旆.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5일의 양덕·용천의 우택과 초8일의 삼등 등 25개 고을의 우택 및 광산·의주에서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말고 시행하라고 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5일의 비로 성천은 1서가 내렸고, 맹산·창성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초8일의 비로 양덕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덕천은 2려가 내렸고, 성천·영원·맹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용천·회천은 2서가 내렸고, 중화·철산·삭주·창성·운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의주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6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8일 사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1푼이었고, 줄곧 짙은 구름이 끼어 비올 조짐이 아직도 있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의주는 먼저 1차례 시행하였는데, 11일의 소나기로 1서가 내린 뒤 이내 중지하였습니다. 광산의 경우, 우택이 아직도 고루 적시지 않아 연이어 2차례 시행하였습니다. 안주·회천은 초8일의 비로 비록 1서·1려가 내렸으나 여전히 두루 흡족하지 않은데 기우제 거행은 형세를 보아 빌기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가 왔습니다. 위 향의 2개

고을의 기우제는 당한 가뭄이 얕은지 심한지에 따라 날짜를 가리지 말고 시행하라는 뜻을 다시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44. 1857년(철종 8) 6월 20일(양력 8월 9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37d-238a) / 平安監營啓錄 26책(37a-37a)

臣營下今月十八日得雨六寸一分及安州·熙川祈雨祭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雨, 平壤·順安·永柔·中和·三登等五邑, 川渠漲滿. 三和·德川川渠微漲. 順川·咸從·肅川·慈山等四邑, 得二犁. 安州·龍岡·甑山·殷山等四邑, 得一犁. 江西·孟山得二鋤, 价川·祥原·定州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旣. 臣營下十九日巳時量, 又雨灑霏, 亥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是白遣. 祈雨祭段, 安州一次設行, 而旣得一犁, 仍爲停止, 熙川一次設行是白如乎. 列邑雨澤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8일에 내린 비가 6치 1푼인 것 및 안주·희천에서 기우제를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중화·삼등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삼화·덕천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순천·함중·숙천·자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안주·용강·증산·은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서·맹산은 2서가 내렸고, 개천·상원·정주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19일 사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뿌리거나 주룩주룩 내리다가 해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안주는 1차례 시행하였는데, 이미 1려가 내려 이내 중지하였고, 희천은 1차례 시행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45. 1857년(철종 8) 6월 23일(양력 8월 12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39b-239d) / 平安監營啓錄 26책(38b-39a)

本月十八日平壤等二十邑雨澤。臣營下十九日得雨二寸二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 則十八日雨, 江東·陽德·寧遠·郭山·宣川·鐵山·成川等七邑, 川渠微漲。寧邊得二犁。泰川·龜城得一犁, 嘉山·義川[義州]·博川·雲山等四邑, 得二鋤。朔州得一鋤。十九日雨, 祥原·永柔·江西·龍岡·三和等五邑, 川渠漲滿。平壤·順安川渠微漲。安州得二犁。中和·咸從得一犁, 慈山得二鋤, 肅川得一鋤。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日漸入實, 晚黍粟·稷唐·早稻, 次第發穗, 木花連爲結穎, 晚稻胚胎, 豆太起花, 根豆·木麥方張再鋤。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今方發穗, 晚黍粟·稷唐·早稻, 日益胚胎, 木花起花, 晚稻·豆太已訖三鋤, 根豆·木麥幾盡初鋤。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三鋤垂畢, 根豆·木麥初鋤伊始是如爲白乎旃。郭山祈雨祭三次設行, 宣川一次設行, 而俱得甘露, 竝爲停止是白如乎。列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8일의 평양 등 20개 고을의 우택과 저의 감영의 19일에 내린 비가 2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8일의 비로 강동·양덕·영원·곽산·선천·철산·성천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영변은 2려가 내렸고, 태천·구성은 1려가 내렸고, 가산·의주·박천·운산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삭주는 1서가 내렸고, 19일의 비로 상원·영유·강서·용강·삼화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평양·순안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안주는 2려가 내렸고, 중화·함중은 1려가 내렸고, 자산은 2서가 내렸고, 숙천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날로 점점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목화는 연이어 다래를 맺고, 늦벼는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



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  
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올  
벼는 날로 더욱 알을 배고, 목화는 꽃이 피고, 늦벼·콩·팥은 이미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곽산은 기우제를 3차례 시행하였고, 선천은 1차례 시행하였는데, 모두 단비를 만나 모두  
중지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46. 1857년(철종 8) 7월 3일(양력 8월 22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41d-242a) / 平安監營啓錄 26책(42a-42b)

道內農形及去月十八日江東等十五邑雨澤, 十九日祥原等十二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八日雨, 龍川·昌城·碧潼·熙川·江界等五邑, 得一犁. 渭原·楚山得一鋤. 十九日雨, 甑山川渠漲滿, 价川·寧邊川渠微漲, 龜城得二犁, 郭山·宣川得一犁. 雲山·博川得二鋤, 殷山·順川·鐵山·義州·熙川·江界·泰川·昌城等八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旃.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次第向熟, 晚黍粟·稷唐·早稻, 日漸入實, 木花顆房漸堅, 晚稻方漲[張]發穗, 豆太間或結殼, 根豆·木麥再鋤垂畢.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漸次入實, 晚黍粟·稷唐·早稻, 方始發穗, 木花過半結顆, 晚稻胚胎, 豆太起花, 根豆·木麥今方再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舉皆胚胎, 根豆·木麥已訖初鋤, 而就中龍岡蟲災寢熄, 熙川祈雨祭一次設行後, 連得甘露, 仍爲停止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18일의 강동 등 15개 고을의 우택과 19일의 상원 등 12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8일의 비로 용천·창성·벽동·회천·강계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위원·초산은 1서가 내렸고, 19일의 비로 증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개천·영변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구성은 2려가 내렸고, 광산·선천은 1려가 내렸고, 운산·박천은 2서가 내렸고, 은산·순천·철산·의주·회천·강계·태천·창성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점점 알이 들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점 단단해지고, 늦벼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콩·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가산·정주·광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

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점차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막 이삭이 패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절반 이상 다래를 맺었고, 늦벼는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합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대부분 알을 났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미 초벌 김매기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용강의 벌레 재해는 그쳤고, 희천은 기우제를 1차례 시행한 뒤 연이어 단비를 만나 이내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47. 1857년(철종 8) 7월 6일(양력 8월 25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42b-242b) / 平安監營啓錄 26책(42b-42b)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本月初四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初六日寅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九分是白如乎. 列邑雨澤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4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6일 인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9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48. 1857년(철종 8) 7월 13일(양력 9월 1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47a-247b) / 平安監營啓錄 26책(47b-48a)

臣營下本月初六日得雨二寸九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雨, 順安·肅川·龍岡·三和·咸從·价川·德川等七邑, 川渠微漲. 平壤·江西·甑山·慈山等四邑, 得二犁. 永柔·安州·江東·成川·殷山·順川·寧邊等七邑, 得一犁. 中和·祥原·三登·孟山·嘉山·博川等六邑, 得二鋤. 定州·郭山·宣川·鐵山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幾盡登熟, 間或刈穫, 晚黍粟·稷唐·早稻, 日漸向熟, 木花早顆向綻, 晚稻漸次入實, 豆太已盡結殼, 根豆·木麥爛熳起花.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次第成熟, 晚黍粟·稷唐·早稻, 方張入實, 木花顆房漸堅, 晚稻日益發穗, 豆太方始結殼, 根豆·木麥今方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舉皆發穗, 根豆·木麥再鋤垂畢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의 내린 비 양이 2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순안·숙천·용강·삼화·함중·개천·덕천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평양·강서·증산·자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영유·안주·강동·성천·은산·순천·영변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중화·상원·삼등·맹산·가산·박천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정주·곽산·선천·철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었는데 간혹 베어 수확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숨이 터져가고, 늦벼는 점차 알이 들고, 콩·팥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

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점 단단해지고, 늦벼는 날로 더욱 이삭이 패고, 콩·팥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하였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지금 막 꽃이 피고 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대부분 이삭이 뻗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49. 1857년(철종 8) 7월 14일(양력 9월 3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47c-247c) / 平安監營啓錄 26책(48a-48b)

道內農形及本月初六日順安等二十八邑雨澤, 已爲馳啓(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寧遠·龍川·義州·泰川·龜城·朔州·昌城等七邑, 得一犁. 陽德·雲山·熙川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十四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 列邑雨澤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6일의 순안 등 28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영원·용천·의주·태천·구성·삭주·창성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양덕·운산·희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4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50. 1857년(철종 8) 7월 23일(양력 9월 11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48c-249a) / 平安監營啓錄 26책(49b-50a)

本月初六日寧遠等十邑雨澤. 臣營下十四日得雨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六日雨, 江界·渭原·楚山·碧潼等四邑得一犁. 十四日雨, 慈山·順川·价川·德川·寧遠·江東等六邑, 得一犁. 三登·成川·寧邊·雲山等四邑, 得二鋤.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郭山·中和·祥原·陽德·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殷山·孟山·博川·泰川·熙川等二十一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幾盡刈穫, 間或登場, 晚黍粟·稷唐·早稻, 過半成熟, 木花今始拾絮, 晚稻幾皆入實, 豆太次第成實, 根豆·木麥方始結殼.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方張刈取, 晚黍粟·稷唐·早稻, 日漸向熟, 木花早顆漸綻, 晚稻舉皆發穗, 豆太已盡結殼, 根豆·木麥爛熳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日益入實, 根豆·木麥漸次起花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6일의 영원 등 10개 고을의 우택과 저의 감영의 14일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6일의 비로 강계·위원·초산·벽동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14일의 비로 자산·순천·개천·덕천·영원·강동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삼등·성천·영변·운산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정주·곽산·중화·상원·양덕·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은산·맹산·박천·태천·회천 등 21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베어 수확하였는데 간혹 타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절반 이상 익었고, 목화는 지금 솜을 거두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콩·팥은 차례로 알이 영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



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점점 솜이 터지고, 늦벼는 대부분 이삭이 뻗고, 콩·팥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날로 더욱 알이 들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점차 꽃이 핀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51. 1857년(철종 8) 8월 3일(양력 9월 20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52d-253a) / 平安監營啓錄 26책(54a-54a)

道內農形及去月十四日慈山等三十一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雨, 江界·渭原·楚山等三邑, 得二鋤是如爲白乎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登場, 晚黍粟今方刈穫, 稷唐·早稻舉皆成熟, 木花方張摘拾, 晚稻日漸向熟, 豆太幾皆入實, 根豆·木麥次第結穀[穀].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已畢刈取, 晚黍粟·稷唐·早稻, 幾盡成熟, 木花今始拾絮, 晚稻日益成實, 豆太漸次入實, 根豆·木麥過半結穀[穀].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皆就熟, 根豆·木麥, 聞[間]或結穀[穀]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14일의 자산 등 31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계·위원·초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둥·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타작하였고, 늦기장·늦조는 지금 막 베어서 수확하고, 수수·올벼는 대부분 익었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고 있고, 늦벼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콩·팥은 거의 다 알이 들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차례로 꼬투리를 맺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베어 거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거의 다 익었고, 목화는 지금 솜을 따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날로 더욱 알이 영글고, 콩·팥은 점차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절반 이상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거의 다 익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간혹 꼬투리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52. 1857년(철종 8) 8월 13일(양력 9월 30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53d-254b) / 平安監營啓錄 26책(55a-55b)

道內農形及去月十四日江界等三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晚黍粟已盡登場, 稷唐·早稻次第刈取, 木花一向摘拾, 晚稻間或刈獲, 豆太日漸向熟, 根豆·木麥舉皆入實.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晚黍粟已畢刈獲, 稷唐·早稻今始刈取, 木花方張摘拾, 晚稻日益成熟, 豆太漸次向熟, 根豆·木麥幾盡成實.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今方刈獲, 根豆·木麥過半入實是如爲白乎旆. 就其中, 今月初七日驟雨, 平壤段, 栗里·柴足·秋鬱美等三面,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栗子, 小如鳥卵, 所經處長爲十三里許, 廣爲七里許. 慈山段, 五灘歸厚兩面, 雨雹交下即止, 雹狀大如棗栗, 小如豆太, 所經處長爲十里許, 廣爲五里許. 嘉山段, 東北元蓮兩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鷄卵, 小如橡實, 所經處長爲十二里許, 廣爲五里許, 而晚稻·稷唐·豆太·木花·木麥, 俱有傷損是如爲白有臥乎所. 迨此各穀登熟之時, 平壤·慈山·嘉山等三邑, 若以面之偏受意外之災, 言念穡事, 誠極可悶,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14일의 강계 등 3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속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타작하였고, 수수·올벼는 차례로 베어 거두고, 목화는 줄곧 솜을 따서 거두고, 늦벼는 간혹 베어 수확하고, 콩·팥은 날로 점점 익어가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대부분 알이 들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베어 수확하였고, 수수·올벼는 지금 베어 거두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고 있고, 늦벼는 날로 더욱 익어가고, 콩·팥은 점차 익어가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거의 다 알이 영글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지금 막 베어 수확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절반 이상 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번 달 초7일 소나기에다 평양의 경우, 울리·시족·추울미 등 3개 면은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밤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며, 거쳐 간 곳의 길이는 13리가량이고 너비는 7리가량입니다. 자산의 경우, 오탄·귀후 2개 면은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즉시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대추나 밤만 하고 작은 것은 콩이나 팥만 하며, 거쳐 간 곳의 길이는 10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가산의 경우, 동북·원연 2개 면은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순식간에 이내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달걀만 하고 작은 것은 도토리만 하며, 거쳐 간 곳의 길이는 12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늣벼·수수·콩·팥·목화·메밀은 모두 손상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익어가는 시기에 평양·자산·가산 등 3개 고을에 이와 같은 면이 두루 뜻밖의 재해를 받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그지없이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53. 1857년(철종 8) 8월 23일(양력 10월 10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55d-256b) / 平安監營啓錄 26책(57b-58a)

道內農形及本月初七日平壤等三邑雨雹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八日驟雨, 成川段, 藍田天成龍淵等三面,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粒, 長爲十五里許, 廣爲九里許. 博川段, 南面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粒, 長爲十三里許, 廣爲十里許. 泰川段, 西面南面兩面,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粒, 長爲十二里許, 廣爲七里許. 朔州段, 仇寧面雨雹交下卽止, 雹狀大如山棗, 小如豆粒, 長爲七里許, 廣爲三里許. 江界段, 西面南面公西公北曲河等五面, 雨雹交下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粒, 長爲三十里許, 廣爲十五里許, 而未獲之晚稻·稷唐, 成熟之豆太·木麥, 俱有傷損是如爲白乎旆. 十三日夜, 德川·寧遠·陽德·孟山·定州·宣川·龍川·義州·龜城·昌城·碧潼·雲山·渭原等十三邑, 水霜降下. 十五日夜, 肅川·安州·殷山·价川·龍岡·甑山·祥原·三登·江東·成川·嘉山·郭山·鐵山·博川·泰川·寧邊·熙川等十七邑, 水霜降下. 朔州·江界·楚山等三邑, 嚴霜降下, 而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稷唐·早稻已盡登場, 木花幾盡摘拾, 晚稻幾皆刈穫, 豆太方張刈取, 根豆·木麥漸次刈穫.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稷唐·早稻舉皆登場, 木花過半摘拾, 晚稻次第收穫, 豆太今方刈取, 根豆·木麥隨熟隨穫.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穫, 根豆·木麥始刈是如爲白有臥乎所. 見今節序向晚, 穡事垂畢, 一路災實, 各邑分等, 更加詳探, 追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7일의 평양 등 3개 고을의 우박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8일의 소나기에다 성천의 경우, 감전·천성·용연 등 3개 면에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알만 하며, (거쳐 간 곳의) 길이는 15리가량이고 너비는 9리가량입니다. 박천의 경우, 남면에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순식간에 이내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알만 하며,

(거처 간 곳의) 길이는 13리가량이고 너비는 10리가량입니다.

태천의 경우, 서면·남면 2개 면에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알만 하며, (거처 간 곳의) 길이는 12리가량이고 너비는 7리가량입니다. 삭주의 경우, 구령면에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즉시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산 대추만 하고 작은 것은 팔알만 하며, (거처 간 곳의) 길이는 7리가량이고 너비는 3리가량입니다. 강계의 경우, 서면·남면·공서·공북·곡하 등 5개 면에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이내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알만 하며, (거처 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15리가량입니다. 수확하지 못한 늦벼·수수와 익은 콩·팥·메밀은 모두 손상됐다고 합니다.

13일 밤에 덕천·영원·양덕·맹산·정주·선천·용천·의주·구성·창성·벽동·운산·위원 등 13개 고을은 무서리가 내렸고, 15일 밤에 숙천·안주·은산·개천·용강·증산·상원·삼등·강동·성천·가산·곽산·철산·박천·태천·영변·회천 등 17개 고을은 무서리가 내렸고, 삭주·강계·초산 등 3개 고을은 된서리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수수·올벼는 이미 다 타작하였고, 목화는 거의 다 따서 거뒀고, 늦벼는 거의 다 베어 수확하였고, 콩·팥은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점차 베어 수확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수수·올벼는 대부분 타작하였고, 목화는 절반 이상 솜을 따서 거뒀고, 늦벼는 차례로 수확하고, 콩·팥은 지금 막 베어 거두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익는 대로 수확합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숙은 거의 수확하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베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절기가 늦어지고 농사가 거의 끝났으니, 도내 전체의 재해와 결실, 각 고을의 등급은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54. 1857년(철종 8) 11월 18일(양력 1월 2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70c-270c) / 平安監營啓錄 26책(75b-75b)

卽接義州府尹金應均本月十六日申時成貼狀啓謄報內, 本府境鴨綠江上下流, 今已畢合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접수한 의주 부윤 김응균이 이번 달 16일 신시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내용에, 의주부 지역 압록강 상·하류는 지금 이미 얼음이 다 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55. 1858년(철종 9) 2월 3일(양력 3월 17일)

卽接義州府尹金應均本月初二日未時成貼狀啓謄報內，本府境鴨綠江上下流，今已畢解冰是如爲白有跡。一時到付該府尹同日同時成貼狀啓謄報內，今月望前巡檢大國人十名出來是如爲白〈有〉等以，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접수한 의주 부윤 김응균이 이번 달 초2일 미시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내용에, 의주부 지역 압록강 상·하류가 지금 이미 얼음이 다 풀렸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도착한 의주 부윤의 같은 날 동시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내용에, 이번 달 보름 전에 순검으로 대국 사람 1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56. 1858년(철종 9) 3월 2일(양력 4월 15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6책(297a-297b) / 平安監營啓錄 26책(109a-109a)

卽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次第抽芽, 春麴方張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麴麥今方抽芽, 春麴隨其土解, 間或耕播是如爲白乎旆. 本道觀察使臣徐方在廢務中. 故臣代行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땅이 풀리는 대로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본 평안도 관찰사 서엄순(徐念淳)은 바야흐로 업무를 보지 않는 중이므로 제가 대신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57. 1858년(철종 9) 3월 13일(양력 4월 26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298a-298a) / 平安監營啓錄 27책(1a-1a)

道內農形及初九日雨澤，假都事臣尹致誠已爲馳啓爲白有在果。卽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江西·甑山·三登·江東等五邑得一犁，慈山得二犁，祥原得二鋤是如爲白乎旆。臣營下今十二日午時量又雨，或霏或灑，當日申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是白如乎。列邑雨澤，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초9일의 우택은 임시도사인 저 윤치성이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강서·증산·삼등·강동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자산은 2려가 내렸고, 상원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2일 오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58. 1858년(철종 9) 3월 22일(양력 5월 5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299b-299d) / 平安監營啓錄 27책(2b-3a)

臣營下今月十三日得雨一寸一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九日之雨, 三和得二犁. 順安·肅川·永柔·郭山·宣川·鐵山·龍川·殷山·順川·价川·德川·寧遠·中和·成川·龍岡·咸從·楚山·碧潼等十八邑得一犁. 安州·嘉山·定州·義州·泰川·寧邊·渭原等七邑得二鋤. 博川·龜城·雲山·陽德·孟山等五邑得一鋤. 十三日之雨, 江西·永柔·三登·成川·義州等五邑得一犁. 平壤·祥原·慈山·寧遠等四邑得二鋤. 中和·順安·肅川·安州·嘉山·龍川·三和·龍岡·殷山·順川·价川·寧邊·雲山·陽德·朔州等十五邑得一鋤.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方始向青, 春牟幾盡立苗, 早黍粟今方播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舉皆抽芽, 春牟次第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始耕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期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3일에 내린 비가 1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초9일의 비로 삼화는 2려가 내렸고, 순안·숙천·영유·곽산·선천·철산·용천·은산·순천·개천·덕천·영원·중화·성천·용강·함중·초산·벽동 등 1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주·가산·정주·의주·태천·영변·위원 등 7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박천·구성·운산·양덕·맹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13일의 비로 강서·영유·삼등·성천·의주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상원·자산·영원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중화·순안·숙천·안주·가산·용천·삼화·용강·은산·순천·개천·영변·운산·양덕·삭주 등 15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막 푸르러지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

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돋고 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59. 1858년(철종 9) 3월 25일(양력 5월 8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01d-302a) / 平安監營啓錄 27책(5b-5b)

道內農形及本月十三日江西等二十四邑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本月二十三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二十四日戌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而一向陰翳是白如乎。列邑得雨多寡，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3일의 강서 등 24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3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4일 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고, 줄곧 짙은 구름이 끼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60. 1858년(철종 9) 4월 초1/2일(양력 5월 13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02a-302b) / 平安監營啓錄 27책(6a-6a)

道內農形及江西等二十四邑, 去月十三日雨澤. 臣營下二十三日得雨二寸二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三日之雨, 楚山·碧潼得一犁. 孟山·渭原得二鋤, 熙川得一鋤. 二十三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江西·龍岡·三和·咸從·中和·祥原·三登·成川·陽德·慈山·順川·价川·泰川等十九邑得一犁. 殷山·博川·定州·郭山等四邑得二鋤. 甑山·江東·寧邊·宣川·昌城等五邑得一鋤是如爲白乎旃.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漸次茁茂, 春牟今方向青, 早黍粟已盡播種, 晚黍粟·稷唐·早稻·木花, 今始耕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日益向青, 春牟舉皆立苗, 早黍粟今纔播種, 晚黍粟·稷唐·早稻·木花, 間或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畢耕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강서 등 24개 고을의 지난달 13일의 우택과 저의 감영의 23일에 내린 비가 2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3일의 비로 초산·벽동은 1려가 내렸고, 맹산·위원은 2서가 내렸고, 희천은 1서가 내렸고, 23일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강서·용강·삼화·함중·중화·상원·삼등·성천·양덕·자산·순천·개천·태천 등 1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은산·박천·정주·곽산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증산·강동·영변·선천·창성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싹이 무성하고, 봄보리는 지금 막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씨앗을 뿌렸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

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더욱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씨앗을 뿌리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땅 갈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61. 1858년(철종 9) 4월 12일(양력 5월 24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07b-307c) / 平安監營啓錄 27책(13b-14a)

道內農形及平壤等十九邑, 去月二十三日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江界·渭原·楚山·昌城·義州·鐵山等六邑得一犁, 龍川·雲山·熙川等三邑得二鋤, 龜城·朔州·碧潼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乎旃.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日益茁長, 春牟次第向茁, 早黍粟幾盡立茁, 晚黍粟·稷唐·早稻·木花, 過半耕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漸次茁茂, 春牟今方向青, 早黍粟已訖播種,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次第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立茁, 火粟始耕是如爲白乎旃.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평양 등 19개 고을의 지난달 23일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계·위원·초산·창성·의주·철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용천·운산·희천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구성·삭주·벽동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더욱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싹이 무성하고, 봄보리는 지금 막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씨앗 뿌리기를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싹이 돋고, 화속은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62. 1858년(철종 9) 4월 22일(양력 6월 3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08c-308d) / 平安監營啓錄 27책(15a-15b)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方張胚胎, 春牟日漸茁茂, 早黍粟今方向青,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次第立苗, 晚稻·豆太方始耕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日益茁長, 春牟次第茁青, 早黍粟方始立苗, 晚黍粟·稷唐·早稻·木花, 間間立苗, 晚稻·豆太間或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向青, 火粟幾盡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形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둥·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푸르러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차례로 싹이 돋고, 늦벼·콩·팥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더욱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푸르고, 올기장·올조는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간간이 싹이 돋고, 늦벼·콩·팥은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싹이 푸르러지고, 화숙은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63. 1858년(철종 9) 4월 28일(양력 6월 9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10c-310c) / 平安監營啓錄 27책(17b-17b)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本月二十七日卯時量始雨, 或灑或霏或霑, 至酉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 而陰雲四翳, 尙未開霽是白如乎. 跨朔慳閔[閔]之餘, 得此一霽之優洽, 言念民事, 誠爲萬幸, 列邑均霑與否,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7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더러 주룩주룩 내리더니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고, 먹구름이 사방을 덮고 아직도 개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걸친 가뭄 끝에 이렇게 한차례 퍼부은 우택이 흡족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의 고루 적셨는지 여부와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64. 1858년(철종 9) 5월 2일(양력 6월 12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12b-312d) / 平安監營啓錄 27책(20a-20a)

臣營下去月二十七日得雨二寸四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江西·咸從·甌山·江東·成川·順川等十邑得一犁, 祥原得二鋤. 三和·中和·安州·定州等四邑得一鋤.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已盡發穗, 春牟次第胚胎, 早黍粟初鋤垂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日漸向青, 晚稻·豆太今始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方張胚胎, 春牟日漸茁長, 早黍粟初鋤方始,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已盡立苗, 晚稻·豆太舉皆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向茁, 火粟間或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달 27일에 내린 비가 2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강서·함중·증산·강동·성천·순천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원은 2서가 내렸고, 삼화·중화·안주·정주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맺고, 봄보리는 차례로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늦벼·콩·팥은 지금 싹이 돋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벼·콩·팥은 대부분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싹이 자라고, 화속은 간혹

짜이 돈는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65. 1858년(철종 9) 5월 12일(양력 6월 22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16b-316d) / 平安監營啓錄 27책(24a-24b)

平壤等十五邑, 去月二十七日雨澤及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江界川渠微漲, 慈山·龍川得二犁, 三登·殷山·价川·寧遠·寧邊·嘉山·郭山·鐵山·義州·昌城·碧潼等十一邑得一犁, 龍岡·博川·定州·雲山·渭原等五邑得二鋤, 陽德·熙川·龜城·朔州等四邑得一鋤.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方張入實, 春牟已盡發穗, 早黍粟方張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日漸茁長, 晚稻·豆太已盡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方張發穗, 春牟次第胚胎, 早黍粟初鋤垂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日漸向青, 晚稻·豆太今始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間或胚胎, 火粟幾盡立苗, 而就其中熙川段, 去月二十七日驟雨, 北面館岱里, 西面加羅之里, 東面清涼里, 南面驛坪里, 邑內面上里下里等處,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楸子, 小如鳥卵. 所經處長廣, 自北面館岱里, 至于南面驛坪里, 長爲七十里, 自東面清涼里, 西至加羅之里, 廣爲十五里許, 而立苗各穀, 俱被雹打, 無望更蘇是如爲白有臥乎所. 迨此兩麥發穗各穀, 成苗之時, 災形之若是偏酷, 言念民事, 殊甚可悶, 至若受損最甚處, 卽速代播, 無或失時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15개 고을의 지난달 27일의 우택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계는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자산·용천은 2려가 내렸고, 삼등·은산·개천·영원·영변·가산·곽산·철산·의주·창성·벽동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용강·박천·정주·운산·위원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양덕·희천·구성·삭주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증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

조·수수·올벼·목화는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늦벼·콩·팥은 이미 다 싹이 돋았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봄보리는 차례로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늦벼·콩·팥은 지금 싹이 돋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간혹 알을 배고, 화속은 거의 다 싹이 돋았습니다.

그 가운데 회천의 경우, 지난달 27일 소나기에다 북면 관대리·서면 가라지리·동면 청량리·남면 역평리·읍내면 상리와 하리 등의 곳에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가래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합니다. 거쳐 간 곳의 길이와 너비의 경우, 북면 관대리에서 남면 역평리까지 길이 70리, 동면 청량리에서 가라지리까지 너비 15리가량입니다. 싹이 돋은 각종 곡식은 모두 우박에 두들겨 맞아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리와 밀은 이삭이 패고 각종 곡식은 싹이 자라는 때에 재해의 형상이 이처럼 매우 혹독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특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받은 손상이 가장 심한 곳의 경우 신속히 대신 씨앗을 뿌려 혹시라도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66. 1858년(철종 9) 5월 13일(양력 6월 23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16d-317a) / 平安監營啓錄 27책(24b-25a)

道內農形及去月二十七日熙川郡雨雹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本月十一日亥時量始雨，或霏或灑，十二日未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列邑得雨多寡，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7일의 회천군 우박의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1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미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67. 1858년(철종 9) 5월 16일(양력 6월 26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17c-317d) / 平安監營啓錄 27책(25b-25b)

臣營下本月十二日得雨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永柔·慈山·順川·价川等四邑得一犁, 平壤·順安得二鋤, 中和·江西·三和·咸從·成川·博川·寧邊等七邑得一鋤, 安州·嘉山·泰川·龜城等四邑, 洽爲浥塵是如爲白乎旆. 臣營下本月十五日子時量始雨, 當日辰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2일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영유·자산·순천·개천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은 2서가 내렸고, 중화·강서·삼화·함중·성천·박천·영변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안주·가산·태천·구성 등 4개 고을은 흠족하게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5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당일 진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568. 1858년(철종 9) 5월 20일(양력 6월 30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20a-320b) / 平安監營啓錄 27책(28a-28a)

本月十一二日永柔等十七邑雨澤及十五日得雨四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一二日之雨, 甑山·慈山·殷山·順川·宣川·楚山等六邑得一犁. 孟山得二鋤, 江東·祥原·三登·寧遠·雲山·定州等六邑得一鋤. 十五日之雨, 義州得一犁, 祥原得二鋤, 平壤得一鋤, 順安·成川·湍塵是如爲白乎旅. 臣營下今月十九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酉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 列邑之前後雨澤, 今雨之所得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1·12일의 영유 등 17개 고을의 우택 및 15일의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1·12일의 비로 증산·자산·은산·순천·선천·초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맹산은 2서가 내렸고, 강동·상원·삼등·영원·운산·정주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15일의 비로 의주는 1려가 내렸고, 상원은 2서가 내렸고, 평양은 1서가 내렸고, 순안·성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9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지금 까지 우택과 이번 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69. 1858년(철종 9) 5월 22일(양력 7월 2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20b-320c) / 平安監營啓錄 27책(28a-28b)

本月十一二日永柔等十七邑, 十五日義州等五邑雨澤及臣營下十九日得雨七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一二之雨, 德川川渠漲滿, 鐵山·龍川·昌城等三邑得一犁, 陽德·郭山·朔州等三邑得一鋤. 十五日之雨, 鐵山得一犁, 江西·嘉山·定州·郭山·龜城·雲山等六邑得一鋤, 十九日之雨, 平壤得一犁, 中和·安州·定州等三邑得一鋤. 永柔溫塵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次第向熟, 春牟舉皆入實, 早黍粟再鋤垂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已訖初鋤, 晚稻·豆太今方向青.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日漸入實, 春牟已盡發穗, 早黍粟方張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伊始, 晚稻·豆太舉皆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方始發穗, 火粟今方向青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之前後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1·12일의 영유 등 17개 고을과 15일의 의주 등 5개 고을의 우택 및 저의 감영에 19일의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1·12일의 비로 덕천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철산·용천·창성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양덕·곽산·삭주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16일의 비로 철산은 1려가 내렸고, 강서·가산·정주·곽산·구성·운산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19일의 비로 평양은 1려가 내렸고, 중화·안주·정주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영유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익어가고, 봄보리는 대부분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이미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벼·콩·팥은 지금 막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

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알이 들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뻗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대부분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막 이삭이 뻗기 시작하였고, 화속은 지금 막 푸르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지금까지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70. 1858년(철종 9) 5월 30일(양력 7월 10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22c-322c) / 平安監營啓錄 27책(31a-31a)

道內農形及本月十一二日五日九日之雨, 列邑所得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一二日之雨, 江界·渭原得二鋤. 十五日之雨, 宣川得二犁, 朔州·楚山得一犁, 渭原得二鋤, 三和得一鋤. 十九日之雨, 嘉山·宣川·鐵山·龍川·泰川·朔州·熙川等七邑, 川渠漲滿, 价川·寧遠, 川渠微漲, 慈山·義州得二犁, 順安·肅川·郭山·三登·江東·江西·三和·咸從·甑山·殷山·順川·寧邊·雲山·江界·博川·龜城等十六邑得一犁, 祥原得二鋤, 龍岡·成川·德川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月二十九日丑時量始雨, 或霏或霏, 辰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如乎. 列邑之雨澤多寡, 農形如何,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1·12일·5일·9일의 비가 여러 고을에 내린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1·12일의 비로 강계·위원은 2서가 내렸고, 15일의 비로 선천은 2려가 내렸고, 삭주·초산은 1려가 내렸고, 위원은 2서가 내렸고, 삼화는 1서가 내렸고, 19일의 비로 가산·선천·철산·용천·태천·삭주·회천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개천·영원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자산·의주는 2려가 내렸고, 순안·숙천·곽산·삼등·강동·강서·삼화·함중·증산·은산·순천·영변·운산·강계·박천·구성 등 1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원은 2서가 내렸고, 용강·성천·덕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9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진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양과 농사 상황이 어떠한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71. 1858년(철종 9) 6월 2일(양력 7월 12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22d-323b) / 平安監營啓錄 27책(32a-32b)

去月十九日列邑雨澤及二十九日臣營下得雨一寸二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十九日之雨, 昌城·碧潼得一犁. 二十九日之雨, 安州川渠漲滿, 甑山川渠微漲, 平壤·順安·永柔·肅川·江西·咸從等六邑, 得一犁, 慈山得二鋤, 中和·祥原·江東·三和等四邑得一鋤是如爲白乎旃.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方張刈穫, 春牟舉皆就熟, 間間刈取, 早黍粟方始三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幾盡再鋤, 晚稻·豆太今方再鋤, 根豆·木麥今始耕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次第成熟, 間或刈穫, 春牟已皆入實, 方張向熟, 早黍粟已訖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今始再鋤, 晚稻·豆太方張初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方張入實, 火粟今方初鋤, 而前有跨朔之慳閼, 近因雨水之頻仍, 方熟之兩麥, 舉有徑枯之患, 向茁之各穀, 或致愆鋤之歎, 而就中江西·三和·甑山·成川·价川等若而邑段, 間因東風之連吹, 亦有禾稼之受瘁是如爲白有臥乎所. 言念農功, 殊甚悶然是白乎旃. 臣營下今初一日辰時量始雨, 或霏或霏, 至初二日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 而一向陰翳, 尚未開霽是白如乎. 列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19일의 여러 고을의 우택 및 29일의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19일의 비로 창성·벽동은 1려가 내렸고, 29일의 비로 안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증산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평양·순안·영유·숙천·강서·함종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자산은 2서가 내렸고, 중화·상원·강동·삼화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베어 수확하고 있고, 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는데 간간이 베어 거두고, 올기장·올조는 막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콩·팥은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  
 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  
 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익는데 간혹 베어 수확하고, 봄보리는 이미 다 알이 들었는데 한창 익어가고 있고, 올기장·  
 올조는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화속은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한 달에 걸쳐 가물었는데 요즈음은 빗물이 빈번합니다. 막 익은 보리와 밀은  
 대부분 지레 마를 근심이 있었고 싹이 자라던 각종 곡식은 더러 김매기가 늦는 탄식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 강서·삼화·중산·성천·개천 등과 같은 고을의 경우, 그사이에  
 동풍이 연이어 불었기 때문에 또한 벼곡식은 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농사일을 생각하면  
 특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1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2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고,  
 줄곧 짙은 구름이 아직도 개지 않았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72. 1858년(철종 9) 6월 8일(양력 7월 18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23d-324a) / 平安監營啓錄 27책(33a-33b)

道內農形及去月十九日二十九日列邑雨澤. 臣營下今月初一二日得雨二寸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十九日之雨, 渭原·楚山兩邑江川漲溢, 孟山·陽德兩邑得二鋤. 二十二日驟雨, 江界·昌城·碧潼等三邑川渠漲滿. 二十九日之雨, 三登·寧邊·嘉山等三邑川渠漲滿, 价川·博川·宣川·寧遠·孟山等五邑, 川渠微漲, 定州·義州·德川·泰川·雲山等五邑得一犁, 郭山·龍川兩邑得二鋤, 龍岡·成川·鐵山·龜城·陽德等五邑得一鋤. 今月初一二日之雨, 三登江川漲滿, 順安·甑山·慈山·順川·成川等五邑川渠微漲, 平壤·肅川·江西·龍岡等四邑得二犁, 永柔·三和·咸從·祥原·江東·价川·嘉山等七邑得一犁, 定州·寧邊兩邑得二鋤, 中和·安州·郭山·鐵山·雲山等五邑得一鋤是如爲白乎旃. 臣營下今初七日卯時量始雨, 或霖或霏, 至亥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 而一向陰翳, 尙未開霽是白如乎. 前雨之未報, 今雨之多寡, 待列邑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19일·29일의 여러 고을의 우택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2일에 내린 비가 2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19일의 비로 위원·초산 2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고, 맹산·양덕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22일의 소나기로 강계·창성·벽동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29일의 비로 삼등·영변·가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개천·박천·선천·영원·맹산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정주·의주·덕천·태천·운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광산·용천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용강·성천·철산·구성·양덕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이번 달 초1·2일의 비로 삼등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가득 찼고, 순안·증산·자산·순천·성천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평양·숙천·강서·용강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영유·삼화·함중·상원·강동·개천·가산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정주·영변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중화·안주·광산·철산·운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7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해시썸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고, 줄곧 짙은 구름이 아직도 개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비를 보고하지 못한 것과 이번의 비 양은 여러 고을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 0573. 1858년(철종 9) 6월 12일(양력 7월 22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25d-326b) / 平安監營啓錄 27책(35a-35b)

去月二十九日今月初一二日列邑雨澤及臣營下今初七日得雨二寸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九日之雨, 熙川得一犁. 今月初一二日之雨, 宣川川渠漲滿. 初七日之雨, 順川江川漲滿, 甑山川渠微漲, 平壤得二犁, 中和·順安·江西·三和·咸從·殷山等六邑得一犁, 慈山·祥原·永柔·定州·宣川等五邑得二鋤, 肅川·安州·博川·龜城·郭山·鐵山·寧邊·成川·江東等九邑得一鋤是爲[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殷山·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順川·价川等十九邑, 春秋麴麥已盡登場, 早黍粟今始四鋤, 間或胚胎, 晚黍粟·稷唐·早稻·木花過半三鋤, 晚稻·豆太已訖再鋤, 根豆·木麥舉皆耕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春秋麴麥次第刈穫, 早黍粟方張三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幾盡再鋤, 晚稻·豆太今始再鋤, 根豆·木麥漸次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麴日益就熟, 火粟間或再鋤, 而就中龍川段, 近海鹽鹵, 前以旱乾, 晚時耕播, 旋因潦浸, 不得立苗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十一日午時量始雨, 或霏或霏, 至十二日午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 而一向陰翳, 尙未開霽是白如乎. 遠邑未報雨澤, 嗣後農形如何,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이번 달 초1·2일의 여러 고을의 우택 및 저의 감영에 이번 초7일에 내린 비가 2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의 비로 희천은 1려가 내렸고, 이번 달 초1·2일의 비로 선천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초7일의 비로 순천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가득 찼고, 증산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평양은 2려가 내렸고, 중화·순안·강서·삼화·함중·은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자산·상원·영유·정주·선천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숙천·안주·박천·구성·곽산·철산·영변·성천·강동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은산·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순천·개천 등 19개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타작

하였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네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는데 간혹 알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콩·팥은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대부분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베어 수확하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콩·팥은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점차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날로 더욱 익어가고, 화속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용천의 경우, 바다 가까이 소금기 있는 논은 앞서 가뭄으로 때늦게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는데, 곧바로 장마로 인해 잠겨 싹이 돋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1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2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고, 줄곧 짙은 구름이 끼어 아직도 개지 않았습니다. 먼 고을의 보고하지 않은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이 어떠한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74. 1858년(철종 9) 6월 19일(양력 7월 29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27d-328a) / 平安監營啓錄 27책(37a-37b)

道內農形及今月初一二日七日列邑雨澤. 臣營下十一二日得雨三寸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二日之雨, 渭原得二鋤, 寧遠得一鋤. 初七日之雨, 龍岡得二犁, 价川·嘉山兩邑得一犁, 德川·泰川兩邑得二鋤, 陽德·孟山·龍川·雲山等四邑得一鋤. 十一二日之雨, 江西江川漲滿, 平壤·甑山兩邑川渠微漲, 中和·順安·永柔·三和·龍岡·慈山等六邑得二犁, 順川·价川·德川·成川·祥原·咸從等六邑得一犁, 肅川·嘉山·郭山·泰川·寧邊等五邑得二鋤, 安州·定州·博川·雲山等四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十八日戌時量始雨, 或霍或霏, 至十九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如乎. 列邑之前後雨澤, 農形如何,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1·2일·7일의 여러 고을의 우택과 저의 감영에 11·12일의 내린 비가 3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초1·일의 비로 위원은 2서가 내렸고, 영원은 1서가 내렸고, 초7일의 비로 용강은 2려가 내렸고, 개천·가산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덕천·태천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양덕·맹산·용천·운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11·12일의 비로 강서는 강과 시내가 불어나 가득 찼고, 평양·증산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중화·순안·영유·삼화·용강·자산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순천·개천·덕천·성천·상원·함중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숙천·가산·곽산·태천·영변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안주·정주·박천·운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8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9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지금까지 우택과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75. 1858년(철종 9) 6월 22일(양력 8월 1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28d-329b) / 平安監營啓錄 27책(38a-38b)

本月初七日十一二日列邑雨澤及臣營下十八九日得雨一寸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七日之雨, 寧遠得一鋤. 十一二日之雨, 陽德得一犁. 十八九日之雨, 平壤·順安·祥原·江東等四邑得一犁, 慈山得二鋤, 成川·三和·甌山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 旣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胚胎, 次第發穗, 晚黍粟·稷唐·早稻方張胚胎, 木花間或起花, 晚稻·豆太間始三鋤, 根豆·木麥今始初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春秋粳麥已皆收穫, 早黍粟今方四鋤, 漸次胚胎, 晚黍粟·稷唐·早稻·木花過半三鋤, 晚稻·豆太幾盡再鋤, 根豆·木麥舉皆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隨刈根耕, 火粟再鋤垂畢, 而就〈其〉中德川·孟山兩邑段, 間因東風, 各穀受損是如爲白有臥乎所. 見今兩麥已盡登場, 而推諸邑牒, 參以聽聞, 則倣載之初, 土脈融解, 播種無愆, 立苗既臧, 庶期善就矣. 及夫胚胎之時, 旱乾頗甚, 成熟之際, 雨水頻仍, 高燥之田, 率多徑枯, 低濕之地, 或致萎黃, 畢竟所收, 有違始料, 以南以北, 別無優劣, 統而論之, 終未免歉是白如乎. 言念民事, 殊甚悶然, 遠邑雨澤多寡, 嗣後農形利害,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7일·11·12의 여러 고을의 우택 및 저의 감영에 18·19에 내린 비가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7일의 비로 영원은 1서가 내렸고, 11·12일의 비로 양덕은 1려가 내렸고, 18·19일의 비로 평양·순안·상원·강동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자산은 2서가 내렸고, 성천·삼화·중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알을 뱉는데 차례로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늦벼·콩·팥은 그사이에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초벌 김매

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수확하였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네벌 김매기를 하는데 점차 알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콩·팥은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대부분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베는 대로 그루같이하고, 화속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덕천·맹산 2개 고을의 경우, 그사이에 동풍으로 인해 각종 곡식이 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보리와 밀은 이미 다 타작했는데, 여러 고을의 문서로 미루어보고, 들은 것을 참조하자면, 일을 시작하던 초기에 땅이 녹고 풀리자 늦지 않게 씨앗을 뿌렸고, 돋은 싹이 이미 좋아서 거의 잘 여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을 벨 때에 이르러 가뭄이 자못 심하여 익을 즈음에 빗물이 빈번했습니다. 높고 메마른 밭에는 대부분 지레 말랐고 낮고 습한 땅에는 더러 누렇게 시들어 끝내 거둔 것은 처음에 예상한 것과 어긋났습니다. (청천강) 남쪽이나 북쪽이나 별로 우열은 없고, 통틀어 따지자면 끝내 흉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특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먼 고을의 우택 양과 이후 농사 상황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76. 1858년(철종 9) 7월 2일(양력 8월 10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29c-329d) / 平安監營啓錄 27책(40a-40a)

道內農形及去月十八九日列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德川·泰川·孟山等三邑川渠微漲, 三登得二犁, 安州·嘉山·龍岡·殷山·价川·陽德·寧邊·雲山等八邑得一犁, 肅川得二鋤, 江西·順川·博川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間或入實, 晚黍粟·稷唐·早稻漸次發穗, 木花方始結穎, 晚稻胚胎, 豆太起花, 根豆·木麥幾盡初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今方發穗, 晚黍粟·稷唐·早稻方張胚胎, 木花間始起花, 晚稻·豆太今方三鋤, 根豆·木麥今始初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方始三鋤, 根豆·木麥間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形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18·19일의 여러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덕천·태천·맹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삼등은 2려가 내렸고, 안주·가산·용강·은산·개천·양덕·영변·운산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숙천은 2서가 내렸고, 강서·순천·박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혹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점차 이삭이 패고, 목화는 막 다래를 맺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그사이에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지금 막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습니

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막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간간이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이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77. 1858년(철종 9) 7월 12일(양력 8월 20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33d-334b) / 平安監營啓錄 27책(44b-45a)

道內農形及去月十八九日列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江界·楚山兩邑得一犁, 渭原得二鋤, 今初二日驟雨, 三登·泰川兩邑得二鋤, 慈山·順川·祥原·江東·三和·甌山·陽德·寧邊等八邑得一鋤, 順安·永柔·博川·嘉山·龍川·孟山等六邑浥塵是如爲白乎旃.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入實, 間或向熟, 晚黍粟·稷唐·早稻今始入實, 木花舉皆結穎, 晚稻發穗, 豆太結殼, 根豆·木麥方張再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今方入實, 晚黍粟·稷唐·早稻次第發穗, 木花方始結穎, 晚稻胚胎, 豆太起花, 根豆·木麥幾盡初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方始胚胎, 根豆·木麥初鋤是如是日在如中. 自去月念後, 若而邑驟雨, 不過鋤浥而止, 外此沿峽諸處, 一直亢旱, 入實之黍粟, 方茁之豆太, 在在萎枯, 乾播畚稻, 亦不無惱旱受病之慮是白如乎. 望覲民情, 日甚一日, 而尙此果出, 雨意漠然, 言念農功, 誠極憂悶, 及今一霈, 方切顙祝爲白乎旃.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18·19일의 여러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계·초산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위원은 2서가 내렸고, 이번 초2일의 소나기로 삼등·태천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자산·순천·상원·강동·삼화·중산·양덕·영변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순안·영유·박천·가산·용천·맹산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알이 들었는데 간혹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지금 알이 들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었고, 늦벼는 이삭이 패고, 콩·팥은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



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목화는 막 다래를 맺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막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20일 이후로 이상과 같은 고을의 소나기는 1서나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밖의 물가나 산골 여러 곳은 줄곧 가물어 알이 든 기장과 조나 막 싹이 자란 콩과 팥은 곳곳에서 시들어 마르고,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논벼 또한 심한 가뭄에 병들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비를 바라는 백성들의 심정은 하루하루 심해지는데, 아직도 이렇게 쨍쨍 해가 나오니 비 조짐은 아득합니다. 농사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지없이 근심·걱정입니다. 지금에 이르러 한차례 퍼붓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78. 1858년(철종 9) 7월 15일(양력 8월 23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34c-334d) / 平安監營啓錄 27책(45a-45b)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見今秋節已屆, 農功得失, 惟在結實, 而自去月念後, 一直亢旱, 間或驟灑, 終靳霑霏, 高處焦燥, 而汚處亦多惜乾, 早晚各穀, 舉皆萎枯, 東風連吹, 雨意尙漠, 沿峽之間, 雖有旱災之淺深, 望霓之急, 實爲列邑之通患, 而至於平壤·肅川·安州·江西·三和·甌山等六邑段, 比他尤甚是如, 請行祈雨祭爲白有臥乎所. 推諸邑報, 參以聽聞, 農形果違始料, 民情誠甚憂悶. 取考臣營臚錄, 則立秋後祈雨, 亦有已例乙仍于, 目下最切急是日在平壤·肅川·安州·江西·三和·甌山等六邑段, 使之不卜日虔誠設行是白遣, 其餘各邑段, 酌量緩急, 觀勢舉行之意, 竝爲知委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가을 절기가 이미 닥쳤는데, 농사일에 있어 잃는 것과 얻는 것은 오직 결실에 달렸습니다. 지난달 20일 이후로 줄곧 가물면서 간혹 갑자기 뿌리지만 끝내 주룩주룩 내리거나 퍼붓지는 않으니, 높은 곳은 타는 듯이 마르고 낮은 곳 또한 많이 가물었습니다. 올곡이든 늦곡이든 각종 곡식은 대부분 시들어 말랐는데, 동풍이 연이어 불고 비올 조짐은 아직도 아득합니다. 물가든 산골이든 간에 비록 가뭄 재해에 얹고 심한 차이는 있지만, 비를 바라는 다급함은 정말로 여러 고을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평양·숙천·안주·강서·삼화·증산 등 6개 고을의 경우, 다른 곳에 비해 더욱 심하다고 하며 기우제 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보고로 미루어보고 들은 것을 참조하면 농사 상황은 정말로 처음에 예측한 것에 어긋납니다. 백성들의 심정은 정말로 매우 근심·걱정입니다. 저의 감영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입추 뒤의 기우제 또한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절실하게 다급한 평양·숙천·안주·강서·삼화·증산 등 6개 고을의 경우,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각 고을의 경우 느긋한지 다급한지를 참작하고 형세를 보아 시행하라는 뜻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579. 1858년(철종 9) 7월 22일(양력 8월 30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35a-335c) / 平安監營啓錄 27책(46a-46b)

平壤等六邑祈雨祭, 不卜日設行, 外他諸邑, 酌量緩急, 觀勢舉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祈雨祭段, 肅川·安州·咸從等三邑四次, 平壤·江西·三和·甌山·順安·江東等六邑二次, 永柔·中和·龍岡·慈山等四邑, 各一次設行是如爲白乎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成熟, 間或刈取, 晚黍粟·稷唐·早稻舉皆入實, 今始向熟, 木花類房漸堅, 晚稻方始入實, 豆太幾盡結殼, 根豆·木麥今方起花.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今方向熟, 晚黍粟·稷唐·早稻次第入實, 木花舉皆結穎, 晚稻發穗, 豆太結殼, 根豆·木麥方張再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漸次發穗, 根豆·木麥已盡初鋤, 而旱災一直孔酷, 東風數旬連吹, 沿海畝農, 舉患枯涸, 高燥田穀, 日漸萎黃, 就中朔州段, 蜚蟲間熾, 畝稻受痒是如爲白有臥乎所. 圭璧遍舉, 靈應尙遲, 言念民事, 轉益渴悶, 雩禱之節, 使之鱗次設行, 而臣亦營下, 連爲不卜日虔誠祈雨爲白乎旡.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6개 고을은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말고 시행하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느긋한지 다급한지를 참작하고 형세를 보아 거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기우제의 경우, 숙천·안주·함종 등 3개 고을은 4차례, 평양·강서·삼화·증산·순안·강동 등 6개 고을은 2차례, 영유·중화·용강·자산 등 4개 고을은 각각 1차례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익었는데 간혹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대부분 알이 들었는데 지금 익어가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점 단단해지고, 늦벼는 막 알이 들기 시작하였고, 콩·팥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막 꽃이 피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

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  
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  
는 차례로 알이 들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었고, 늦벼는 이삭이 패고, 콩·팥은 꼬투리  
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점차 이삭이 패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가뭄 재해가 줄곧 매우 혹독하고 동풍이 수십 일 동안 연이어 불어 바닷가 논농사는  
대부분 물이 마를까 근심이고 높고 메마른 지역의 밭곡식은 날로 점점 누렇게 시듭니다.  
그 가운데 들어 삭주의 경우, 쇠똥구리[蜣螂]가 그사이에 세차게 번져 논벼 손상된다고  
합니다. 기우제를 거행하였으나 신령의 감응이 지체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  
록 애타게 걱정입니다. 기우제 사항은 잇따라 시행하게 하고 저도 또한 감영에서 연이어  
날짜를 가리지 않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비를 빌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80. 1858년(철종 9) 7월 24일(양력 9월 1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36a-336b) / 平安監營啓錄 27책(47a-47a)

道內農形及肅川等十三邑祈雨祭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肅川·安州·咸從等三邑祈雨祭, 連行六次, 江西·中和兩邑四次, 平壤·順安·三和·甑山·慈山·江東等六邑三次, 永柔·龍岡·价川等三邑二次, 定州·郭山·宣川·成川等四邑各一次設行是如爲白乎旣. 臣亦於本月二十三日, 虔誠祈雨祭於崇仁殿, 而自當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申時量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七分, 而經宵陰翳, 今乃開霽是白如乎. 閱月亢旱之餘, 半日霏灑, 雖未普洽, 旣得冥應之效, 又復連設, 反涉瀆褻, 故臣營下祈雨祭, 姑爲停止爲白乎旣. 列邑之均霑形止, 霽禱連行與否,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숙천 등 13개 고을의 기우제 시행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숙천·안주·함종 등 3개 고을은 기우제를 연이어  
6차례, 강서·중화 2개 고을은 4차례, 평양·순안·삼화·증산·자산·강동 등 6개 고을은 3차례,  
영유·용강·개천 등 3개 고을은 2차례, 정주·곽산·선천·성천 등 4개 고을은 각각 1차례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또한 이번 달 23일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숭인전에서 기우제  
를 지냈는데, 당일 인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  
다가,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고, 밤새도록  
질은 구름이 끼었다가 지금 이내 개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가뭄 끝에 한나절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렸는데, 비록 두루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심령의 감응 효과를 얻었으니  
또다시 연이어 시행하면 도리어 모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감영 기우제는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고루 적신 경위와 연이은 기우제 시행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  
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81. 1858년(철종 9) 7월 28일(양력 9월 5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36b-336c) / 平安監營啓錄 27책(47b-48a)

肅川等十八邑祈雨祭設行形止及臣營下本月二十三日得雨七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永柔·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殷山·順川·德川等十一邑得一鋤, 安州·价川·甑山·慈山等四邑, 僅爲浥塵是如是白遣. 祈雨祭段, 咸從十次, 安州八次, 肅川七次, 江西·三和·慈山等三邑五次, 甑山四次, 永柔·龍岡兩邑三次, 定州·郭山·宣川·成川等四邑二次, 鐵山一次, 次第設行, 雲山·熙川兩邑, 亦以早[旱]乾, 方始設禱, 而平壤·順安·中和·江東·永柔·成川等六邑段, 旣得鋤雨, 竝爲停止是如爲白乎旂. 臣營下今二十六日巳時量始雨, 或霏灑或霑下, 二十八日未時量至, 測雨器水深爲六寸三分, 而連爲霏灑, 尙無霽意是白如乎. 久旱渴望之餘, 得此霏霽, 民事萬幸, 而被旱諸邑, 果皆周洽是日乎喻,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숙천 등 18개 고을의 기우제 시행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3일의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은산·순천·덕천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안주·개천·증산·자산 등 4개 고을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함중은 10차례, 안주는 8차례, 숙천은 7차례, 강서·삼화·자산 등 3개 고을은 5차례, 증산은 4차례, 영유·용강 2개 고을은 3차례, 정주·곽산·선천·성천 등 4개 고을은 2차례, 철산은 1차례로 시행하였고, 운산·희천 2개 고을 또한 가뭄으로 막 기우제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양·순안·중화·강동·영유·성천 등 6개 고을의 경우, 이미 1서의 비가 내려서 모두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6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주룩주룩 내리더니 28일 미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3푼이었고,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면서 아직도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오랜 가뭄과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퍼붓고 주룩주룩 내리니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다행입니다. 가뭄을 당한 여러 고을이 정말로 모두 두루 흡족하였는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82. 1858년(철종 9) 8월 2일(양력 9월 8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37b-337d) / 平安監營啓錄 27책(49b-50a)

去月二十三日列邑雨澤及臣營下二十八日未時量至, 得雨六寸三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伊日未時以後, 或灑或止, 乍陰乍暘, 乃於二十九日辰時量, 仍爲開霽是白乎旃.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三日之雨, 孟山得一鋤. 二十七八日之雨, 平壤·龍岡兩邑江川漲滿, 順安·安州兩邑川渠微漲, 永柔·肅川·江西·咸從·甑山·慈山等六邑得二犁, 中和·三和·順川等三邑得一犁, 而祈雨祭段, 肅川·安州·龍岡·咸從·甑山·慈山等六邑, 旣得優洽, 次第停止, 江西·三和兩邑段, 連行六次後, 亦爲停止是如爲白乎旃.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方張刈獲, 晚黍粟·稷唐·早稻幾盡成熟, 木花早顆開綻, 晚稻已皆入實, 豆太今方入實, 根豆·木麥漸次結穀.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已盡成熟, 間或刈取, 晚黍粟·稷唐·早稻今始向熟, 木花顆房已堅, 晚稻今始入實, 豆太舉皆結穀, 根豆·木麥方張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日漸入實, 根豆·木麥幾盡再鋤, 而就中朔州段, 蟲災間始寢熄, 江西·甑山兩邑段, 寧風隨雨連吹, 各穀多致磨損是如爲白有臥乎所. 旱餘得雨, 雖云差晚, 田畝各穀, 除非枯損全棄者外, 俱有蘇醒之望, 可期桑榆之收, 民事萬幸, 而江西·甑山之偏被風災, 殊極可悶是白如乎. 遠邑未報雨澤, 嗣後農形如何,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3일의 여러 고을의 우택 및 저의 감영에 28일 미시쯤에 이르러 내린 비가 6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미시 이후 더러 뿌리거나 더러 그치다가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더니 이내 29일 진시쯤에 그대로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3일의 비로 맹산은 1서가 내렸고, 27·28일의 비로 평양·용강 2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가득 찼고, 순안·안주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영유·숙천·강서·함흥·증산·자산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중화·순천·삼화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숙천·안주·용강·함중·증산·자산 등 6개 고을은 이미 넉넉하게 흡족하여 차례로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삼화 2개 고을의 경우, 연이어 6차례 시행한 뒤 또한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수확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거의 다 익었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터지고, 늦벼는 이미 다 알이 들었고, 콩·팥은 지금 막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점차 꼬투리를 맺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익었는데 간혹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다래 방이 이미 단단하고, 늦벼는 지금 알이 들기 시작하였고, 콩·팥은 대부분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꽃이 핍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날로 점점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삭주의 경우 벌레 재해가 그사이에 그치기 시작하였고, 강서·증산 2개 고을의 경우 사나운 바람이 비에 따라 연이어 불어 각종 곡식이 많이 쓸리고 손상됐다고 합니다. 가뭄 끝에 비가 내려, 비록 조금 늦기는 하지만, 논밭의 각종 곡식은 말라 손상돼서 전부 포기하지는 않은 것을 제외하면 모두 되살아날 가망이 있어 수확하는 시기에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다행입니다. 그러나 강서·증산은 심하게 바람의 재해를 입어 특히 그지없이 걱정스럽습니다. 먼 고을의 보고하지 않은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이 어떠한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83. 1858년(철종 9) 8월 4일(양력 9월 10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37d-338b) / 平安監營啓錄 27책(50a-50b)

道內農形及去月二十三日七八日列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三日之雨, 熙川·昌城兩邑得一鋤. 二十七八日之雨, 殷山·三登兩邑江川漲滿, 江東·成川·价川·德川·嘉山等五邑川渠微漲, 宣川·鐵山兩邑得二犁, 祥原·博川·定州·郭山·寧邊·雲山等六邑得一犁, 而祈雨祭段五次, 定州·郭山·宣川等三邑三次, 价川二次, 雲山·熙川兩邑各一次設行後仍得優洽, 竝即停止是如爲白乎旆. 臣營下本月初二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三日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 今番圭璧之舉, 凡爲二十一邑, 而兩次得雨之後, 次第停祭, 今乃告訖, 言念民情, 誠甚萬幸, 而繼茲以後, 日候調順, 方切願望是白乎旆. 列邑之前後雨澤,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3일·27·28일의 여러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3일의 비로 희천·창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27·28일의 비로 은산·삼등 2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가득 찼고, 강동·성천·개천·덕천·가산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선천·철산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상원·박천·정주·곽산·영변·운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는데, 기우제의 경우 5차례, 정주·곽산·선천 등 3개 고을은 3차례, 개천은 2차례, 운산·희천 2개 고을은 각각 1차례 시행한 뒤 이내 넉넉하게 흡족하여 모두 즉시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2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3일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이번 기우제 거행은 무릇 21개 고을이 2차례 비가 내린 뒤 차례로 제사를 중지하고, 지금 이내 마쳤음을 아뢰었습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매우 다행입니다. 이후로 날씨가 순조롭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고을의 지금까지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84. 1858년(철종 9) 8월 12일(양력 9월 18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40a-340c) / 平安監營啓錄 27책(52b-52b)

去月二十三日七八日列邑雨澤及臣營下本月初三日得雨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三日之雨, 寧遠·碧潼·江界等三邑得一鋤. 二十七八日之雨, 陽德·寧遠·孟山等三邑江川漲滿, 泰川·龜城兩邑川渠微漲, 龍川·義州·昌城等三邑得二犁, 朔州·碧潼·熙川等三邑得一犁. 本月初三日之雨, 永柔·咸從·甌山·殷山·順川·陽德等六邑得一犁, 平壤·慈山兩邑得二鋤, 安州·肅川·中和·祥原·龍岡·三和·成川·孟山等八邑得一鋤是如爲白乎旃.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登場, 晚黍粟·稷唐·早稻次第刈取, 木花間或摘拾, 晚稻漸次向熟, 豆太幾盡成實, 根豆·木麥過半結殼.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幾盡刈獲, 晚黍粟·稷唐已皆成熟, 間或刈取, 木花早顆開綻, 晚稻幾皆入實, 豆太日漸成實, 根豆·木麥方始結殼.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今始向熟, 根豆·木麥方張起花是如爲白有臥乎所. 遠邑未報雨澤, 嗣後農形如何,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3일·27·28일의 여러 고을의 우택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3일에 내린 비가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3일의 비로 영원·벽동·강계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27·28일의 비로 양덕·영원·맹산 등 3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가득 찼고, 태천·구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용천·의주·창성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삭주·벽동·회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이번 달 초3일의 비로 영유·함중·증산·은산·순천·양덕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자산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안주·숙천·중화·상원·용강·삼화·성천·맹산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타작하였고, 늦기

장·늦조·수수·올벼는 차례로 베어 거두고, 목화는 간혹 따서 거두고, 늦벼는 점차 익어가고, 콩·팥은 거의 다 여물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절반 이상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조선·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베어 수확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익었는데 간혹 베어 거두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터지고, 늦벼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콩·팥은 날로 점점 여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지금 익어가기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먼 고을의 보고하지 않은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이 어떠한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85. 1858년(철종 9) 8월 22일(양력 9월 28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45a-345c) / 平安監營啓錄 27책(60a-60a)

道內農形及去月二十七、八日, 本月初三日列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七、八日之雨, 楚山川渠微漲, 江界·渭原兩邑得一犁. 本月初三日之雨, 德川·熙川兩邑得一犁, 嘉山·郭山兩邑得二鋤, 定州·宣川·鐵山·龍川·寧邊·雲山·价川·泰川等八邑得一鋤. 是如爲白乎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晚黍粟·稷唐·早稻幾盡刈取, 木花方張摘拾, 晚稻間或刈取, 豆太日漸向熟, 根豆·木麥已皆入實.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已盡登場, 晚黍粟·稷唐·早稻方張刈獲, 木花今方摘拾, 晚稻次第成熟, 豆太今始向熟, 根豆·木麥方張入實.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過半成熟, 根豆·木麥今方就實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7·28일과 이번 달 초3일의 여러 고을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7·28일의 비로 초산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강계·위원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이번 달 초3일의 비로 덕천·회천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가산·곽산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정주·선천·철산·용천·영변·운산·개천·태천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거의 다 베어 거둬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고 있고, 늦벼는 간혹 베어 거두고, 콩·팥은 날로 점점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미 다 알이 들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타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한창 베어 수확하고 있고, 목화는 지금 막 따서 거두고, 늦벼는 차례로 익고, 콩·팥은 지금 익어가기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알이 들고 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절반 이상 익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막 익어간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86. 1858년(철종 9) 8월 24일(양력 9월 30일)

各司臚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45c-345d) / 平安監營啓錄 27책(60b-60b)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本月二十三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未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 列邑雨澤, 所得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3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87. 1858년(철종 9) 9월 2일(양력 10월 8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50c-351a) / 平安監營啓錄 27책(68a-68b)

臣營下去月二十三日得雨八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三和·江東兩邑得一犁, 平壤·郭山兩邑得二鋤, 龍岡·咸從·甑山·慈山·殷山·成川·陽德·德川·孟山·嘉山·定州·宣川·鐵山·龍川等十四邑得一鋤, 安州·江西·中和·价川等四邑浥塵, 而就中殷山縣段, 仙院·縣內兩坊, 雨雹交下, 不移時乃止, 雹狀大如橡實, 小如豆粒, 所經處長爲十里, 廣爲二里許, 而各穀過半收穫, 災形不至大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晚黍粟·稷唐·早稻已盡刈穫, 木花一向摘拾, 晚稻幾盡刈取, 次第登場, 豆太方始收穫, 根豆·木麥漸次成熟.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晚黍粟·稷唐·早稻幾盡刈取, 次第登場, 木花方張摘拾, 晚稻幾皆成熟, 間間刈取, 豆太過半成熟, 根豆·木麥今方向熟.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已皆成熟, 間或刈穫, 根豆·木麥方始就熟, 而朔州府段, 去月二十一日曉, 水霜降下是如爲白有臥乎所. 見今霜信已催, 穡事垂畢, 一路災實, 各邑分等, 更加詳探, 追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달 23일에 내린 비가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삼화·강동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곽산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용강·함중·증산·자산·은산·성천·양덕·덕천·맹산·가산·정주·선천·철산·용천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안주·강서·중화·개천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은산현의 경우, 선원·현내 2개 방은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도토리만 하고 작은 것은 콩알만 하며, 거쳐 간 곳의 길이는 10리이고 너비는 2리가량인데, 각종 곡식은 절반 이상 베어 거두어서 재해 상황이 대단하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

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이미 다 베어 수확하였고, 목화는 줄곧 따서 거두고, 늦벼는 거의 다 베어 거뒀는데 차례로 타작하고, 콩·팥은 막 수확하기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점차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은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거의 다 베어 거뒀는데 차례로 타작하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고 있고, 늦벼는 거의 다 익었는데 간간이 베어 거두고, 콩·팥은 절반 이상 익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익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이미 다 익었는데 그사이에 간혹 베어 수확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익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삭주부의 경우, 지난달 21일 새벽에 무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 서리 소식이 이미 재촉하고 농사가 거의 끝났는데, 평안도 전체의 재해와 결실, 각 고을의 등급은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88. 1858년(철종 9) 11월 17일(양력 12월 21일)

各司謄錄 32책, 平安監營啓錄 27책(368c-368c) / 平安監營啓錄 27책(93a-93a)

卽接義州府尹尹正求本月十六日未時成貼狀啓謄報內, 今月望後, 巡檢大國人十名出來, 而鴨綠江上下流, 間間合氷是如爲白有等以,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접수한 의주 부윤 윤백구가 이번 달 16일 미시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내용에, 이번 달 20일 뒤에 순검인 중국인 10명이 나왔고, 압록강 상·하류는 간간이 얼음이 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89. 1861년(철종 12) 5월 19일(양력 6월 26일)

本月十三日雨澤, 前道臣在任時,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三和·咸從·殷山·江東·肅川等五邑, 川渠微漲, 平壤·順安·江西·龍岡·甑山·三登·慈山等七邑, 得六犁, 中和·永柔·安州·郭山·龍川等五邑, 得一犁, 祥原·定州·鐵山等三邑, 得二鋤, 博川·龜城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粳麥舉皆入實向熟, 春粳日漸入實, 早黍粟今方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垂畢, 晚稻·豆太過半立苗,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肅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粳麥今始入實, 春粳次第發穗, [早黍粟]初鋤已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伊始, 晚稻豆·太方始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方張發穗, 火粟舉皆立苗是□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의 우택은 이전 관찰사가 재임할 때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삼화·함중·은산·강동·숙천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평양·순안·강서·용강·중산·삼등·자산 등 7개 고을은 6려가 내렸고, 중화·영유·안주·곽산·용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원·정주·철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박천·구성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알이 들어 익어가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절반 이상 싹이 돋았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숙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슴 알이 들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화속은 대부분 짝이 돈았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  
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90. 1861년(철종 12) 5월 23일(양력 6월 30일)

道內農形及本月十三日三和等二十二邑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价川·寧遠·孟山等三邑，川渠漲滿，嘉山·成川 得一犁，雲山得一鋤是如爲白乎旆。臣營下，今二十一日卯時量始雨，或灑或霖，二十二日辰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是白如乎。列邑所得，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3일의 삼화 등 22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개천·영원·맹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가산·성천은 1려가 내렸고, 운산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1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2일 진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91. 1861년(철종 12) 5월 29일(양력 7월 6일)

本月二十二日臣營下得雨二寸三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順安·肅川·龍岡·三和·甑山·慈山·殷山·順川·三登·江東·价川·博川·鐵山等十三邑, 川渠漲滿, 平壤·江西·永柔·嘉山等四邑, 得二犁, 中和·祥原·雲山·郭山·龍川等五邑, 得一犁, 寧邊·定州·宣川·義川等四邑, 得二鋤, 安州·德川·泰川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春秋麴麥次第向熟, 間或刈取, 早黍粟再鋤垂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再鋤過半, 晚稻豆太已盡立苗,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春秋麴麥漸就成熟, 早黍粟方張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初鋤幾盡, 晚稻豆太已皆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麴向熟, 火粟初鋤是如爲白乎旆.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2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2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순안·숙천·용강·삼화·증산·자산·은산·순천·삼등·강동·개천·박천·철산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평양·강서·영유·가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중화·상원·운산·곽산·용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원·정주·선천·의주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안주·덕천·태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익어가는데 간혹 베어 거두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 하였고, 늦벼·콩·팥은 이미 다 싹이 돋았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점점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

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다 하였고, 늦벼·콩·팥은 이미 다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익어가고, 화속은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92. 1861년(철종 12) 6월 7일(양력 7월 14일)

道內農形及去月二十九日順安等二十九邑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龍岡·成川·寧遠·昌城·楚山·江界等六邑，川渠漲滿，龜城得二犁，德川·价川·雲山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臣營下，今月初五日丑時量始雨，或灑或霏，初七日辰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六寸分，而一向霏微，尙無霽意是白如乎。列邑所得，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9일의 순안 등 29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용강·성천·영원·창성·초산·강계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구성은 2려가 내렸고, 덕천·개천·운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5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7일 진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1푼이었고, 줄곧 부슬부슬 내리면서 아직도 겔 조짐이 없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93. 1861년(철종 12) 6월 9일(양력 7월 16일)

本月初七日, 臣營下得雨六寸一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川渠漲滿, 龍岡得二犁, 宣川得一犁, 博川得二鋤, 中和·順安·安州·甑山·雲山·价川·定州等七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旅. 臣營下, 今初八日寅時量又雨, 或灑或霏, 同日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 而一向陰翳, 尙未開霽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春秋牟麥已盡登場, 早黍粟三鋤過半, 晚黍粟稷唐早稻木花再鋤垂畢, 晚稻豆太已皆向青, 根豆木麥方張畊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春秋牟麥次第刈穫, 早黍粟方始三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再鋤過半, 晚稻豆太次第向青, 根豆木麥今方畊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纔穫, 根畊伊始, 火粟初鋤垂畢是如爲白有臥乎所. 見今兩麥已皆登場, 而稽諸報牒, 參以聽聞, 則立苗發穗, 庶有穰穰之望是白加尼, 及至成實雨暘不均, 僅得覓歉是白如乎. 列邑所報, 舉皆無優劣之別是白乎旅.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7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6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  
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용강은 2려가 내렸고, 선천은 1려가 내렸고, 박천은 2서가 내렸고, 중화·순안·  
안주·증산·운산·개천·정주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8일  
인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같은 날 사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고, 줄곧 짙은 구름이 끼어 아직도 개지 않았습  
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등·  
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타작하였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  
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이미 다 푸르러지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베어 수확하고, 올기장·올조는 막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 하였고, 늦벼·콩·팥은 차례로 푸르러지고, 그루갈이하는 콩·메밀은 지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막 수확하는데 그루갈이를 이제 시작하였고, 화속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현재 보리와 밀은 이미 다 타작하였는데, 보고 문서를 살펴보고 들은 것을 참작하면, 싹이 돋고 이삭이 패자 거의 풍작일 가망이 있었는데, 알이 영글기에 이르러 비와 햇볕이 고르지 않아 겨우 흉작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 고을에서 보고한 것은 대부분 우열의 구별은 없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94. 1861년(철종 12) 6월 19일(양력 7월 26일)

道內農形 及本月初九日平壤等十一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祥原·江東·三登·三和·咸從·肅川·殷山·成川·嘉山·寧邊·德川·陽德·孟山·寧遠·熙川·江界·渭原等十七邑, 川渠漲溢, 江西·龜城 得二犁, 中和·郭山·鐵山等三邑, 得一犁, 龍川·義州·泰川·朔州·昌城等五邑 得二鋤, 而臣營下, 今十八日丑時量始雨, 或霏或霏, 十九日卯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七寸是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胚胎, 今方發穗, 晚黍粟稷唐早稻, 日漸胚胎, 木花方始起花, 晚稻豆太幾畢三鋤, 根豆木麥已盡初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已訖三鋤, 幾盡胚胎,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方張三鋤, 晚稻豆大再鋤垂畢, 根豆木麥舉皆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已訖再鋤, 根豆木麥, 間或立苗是如爲白乎旆. 就中楚山段, 去月十九日 雨霰交下, 始於榆栢面三梗里, 終於新洞里, 長爲三十里, 廣爲十里許, 而霰狀大如大鈴, 中如鵝卵, 小如鳥卵, 所經處, 已熟之麥, 苗茂之粟, 受損無, 言念穡事, 誠甚憂悶是白如乎.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9일의 평양 등 11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상원·강동·삼등·삼화·함중·숙천·은산·성천·가산·영변·덕천·양덕·맹산·영원·회천·강계·위원 등 1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강서·구성은 2려가 내렸고, 중화·곽산·철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용천·의주·태천·삭주·창성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8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19일 묘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알을 뻗었는데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점점 알을 배고, 목화는 막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거의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세벌 김매기를 마쳤는데 거의 다 알을 뻗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대부분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간혹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초산의 경우, 지난달 19일에 우박이 어지러이 내렸는데, 유백면 삼경리에서 시작하여 신동리에서 끝났으며, 길이는 30리이고 너비는 10리가량이고, 우박 모양은 큰 것은 큰 방울만 하고 중간 것은 거위알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합니다. 거쳐 간 곳은 이미 익은 보리와 싹이 무성한 조는 손상을 받아 없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걱정입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95. 1861년(철종 12) 6월 26일(양력 8월 2일)

節到付熙川郡守任誠謨牒呈內, 今月十八日雨水暴注江流漲溢, 本郡東面 民家爲沙汰所覆之中戶爲四戶, 壓死人口爲十六名, 而已拯屍爲八名, 未拯屍亦爲八名是如爲白乎旆. 祥原郡守吳夏泳牒呈內, 今月十八日之雨, 本郡楓洞面 民家漂頽 大爲三戶, 中爲十七戶, 小爲四戶是如爲白有臥乎所. 民家之漂壓, 已甚矜憐, 而數多人命之一時壓死, 尤極驚慘, 頽戶段 當年烟役, 一併蠲減, 許斫私養, 助給糧丁, 使之不日結構, 如前安堵是白乎旆. 已拯屍段, 各別顧恤 一厚埋, 未拯者 廣加搜撈, 期於拯得之意, 措辭題飭於熙川郡是白遣. 同漂壓戶及壓死人等, 原恤典 並依例題給後, 役姓名及穀數,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이번에 도착한 회천 군수 임성모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18일 빗물이 세차게 주룩주룩 쏟아져 강의 흐름이 불어나 넘쳤는데, 본 회천군 동면의 백성 집 중 사태로 뒤덮인 것은 중호 4가구이고, 깔려 죽은 사람이 16명이며, 이미 시체를 건진 것은 8명이고, 건지지 못한 시체 또한 8명이라고 합니다.

상원 군수 오하영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18일의 비로 본 상원군 풍동면 백성 집 중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은 대호 3가구, 중호 17가구, 소호 4가구라고 합니다. 백성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진 것은 이미 매우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깔려 죽었다니 더욱 놀랍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무너진 가구의 경우, 올해 뭇의 가구당 부역을 모두 면제하거나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기르는 산의 재목을 베어내도록 허락하고, 식량과 일꾼을 도와주고, 하루빨리 집을 지어 이전처럼 안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건진 시체의 경우 각별히 돌보아 하나같이 넉넉히 매장하고, 건지지 못한 자는 널리 뒤져서 기어이 건지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회천군에 지시하였습니다.

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 및 깔려 죽은 사람 등은 기본 구호를 모두 규정에 따라 결정문으로 준 뒤, 직역·성명 및 곡식의 수량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0596. 1861년(철종 12) 6월 27일(양력 8월 3일)

道內農形及臣營下 本月十九日得雨 七寸之由, 已爲馳啓爲自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三和·龍岡·江西·三登·德川·陽德·熙川·孟山等十邑, 川渠漲溢, 中和·咸從·甑山·慈山·泰川等五邑 得二犁, 永柔·祥原·殷山·江東·肅川·寧邊·成川·价川·博川·龜城·昌城·江界等十二邑 得一犁, 嘉山·龍川得二鋤, 安州·定[州]·郭山·雲山等四邑 得二鋤是如爲白乎跡. 臣營下 今二十六日卯時量始雨, 或灑或霏, 同日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 爲三寸三分是白如乎. 列邑雨澤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9일에 내린 비가 7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삼화·용강·강서·삼등·덕천·양덕·희천·맹산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중화·함종·증산·자산·태천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영유·상원·은산·강동·숙천·영변·성천·개천·박천·구성·창성·강계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가산·용천 은 2서가 내렸고, 안주·정주·곽산·운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6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같은 날 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97. 1861년(철종 12) 6월 29일(양력 8월 5일)

臣營下 今月二十六日得雨 三寸三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三和等三邑, 川渠微漲, 咸從得一犁, 中和得一鋤是如爲白乎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日漸入實, 晚黍粟稷唐早稻 次第發穗, 木花連爲結穎, 晚稻胚胎, 豆太起花, 根豆木麥方張再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今方發穗, 晚黍粟稷唐早稻, 日益胚胎, 木花起花, 晚稻豆太已訖三鋤, 根豆木麥幾盡初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三鋤垂畢, 根豆木麥初鋤伊始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6일에 내린 비가 3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삼화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함중은 1려가 내렸고, 중화는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  
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날로 점점 알이 들고, 늦기  
장·늦조·수수·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목화는 연이어 다래를 맺고, 늦벼는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산·정주·  
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  
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  
조·수수·올벼는 날로 더욱 알을 배고, 목화는 꽃이 피고, 늦벼·콩·팥은 이미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  
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98. 1861년(철종 12) 7월 1일(양력 8월 6일)

道內農形 及去月二十六日, 平壤等五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三登·江東·陽德·朔州·碧潼等五邑, 川渠微漲, 永柔·肅川·江西·甑山·成川·慈山·价川·嘉山·博川·昌城等十邑, 得一犁, 安州·龍岡·祥原·定州·龜城·泰川·寧邊·雲山·熙川·宣川·鐵山等十一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 去月二十九日午時量始雨, 或灑或霏, 今月初一日已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五寸五分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6일의 평양 등 5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삼등·강동·양덕·삭주·벽동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영유·숙천·강서·증산·성천·자산·개천·가산·박천·창성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주·용강·상원·정주·구성·태천·영변·운산·희천·선천·철산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달 29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사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99. 1861년(철종 12) 7월 9일(양력 8월 14일)

去月二十九日得雨, 五寸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江東·成川·殷山·价川·寧邊·陽德·博川·嘉山等十邑, 川渠微漲, 江西·龍岡·三和·咸從等四邑, 得二犁, 肅川·永柔·安州·甑山·寧邊·雲山·龜城等七邑, 得一犁, 祥原·郭山·定州等三邑, 得二鋤, 中和·鐵山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次第向熟, 晚黍粟稷唐早稻 日漸入實, 木花顆房漸堅, 晚稻方張發穗, 豆太間或結殼, 根豆木麥再鋤垂畢,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漸次入實, 晚黍粟稷唐早稻方始發穗, 木花過半結顆, 晚稻胚胎, 豆太起花, 根豆木麥方始再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栗舉皆胚胎, 根豆木麥已訖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에 내린 비가 5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강동·성천·은산·개천·영원·양덕·박천·가산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강서·용강·삼화·함중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숙천·영유·안주·중산·영변·운산·구성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원·곽산·정주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중화·철산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점점 알이 들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점 단단해지고, 늦벼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콩·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점차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막 이삭이 패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절반 이상 다래를 맺었고, 늦벼는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대부분 이삭을 뺐고, 그루같이 한 콩·메밀은 이미 초벌 김매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00. 1861년(철종 12) 7월 14일(양력 8월 19일)

道內農形 及去月二十九日 平壤等二十六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孟山·熙川·江界·渭原·昌城等五邑, 川渠微漲, 三登·泰川·楚山·碧潼等四邑, 得二犁, 宣川·龍川 得一犁是如爲白乎旃. 臣營下 今十三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평양 등 26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맹산·회천·강계·위원·창성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삼등·태천·초산·벽동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선천·용천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3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축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01. 1861년(철종 12) 7월 19일(양력 8월 24일)

臣營下 今月十三日得雨一寸四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順安·宣川 川渠微漲, 龍岡·甑山·肅川·慈山等四邑, 得二犁, 永柔·安州·三和·江東·殷山等五邑, 得一犁, 平壤·祥原·博川等三邑, 得二鋤, 中和·成川·价川·江西·泰川·寧邊·定州等七邑, 得一鋤,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幾盡登熟, 間或刈穫, 晚黍粟稷唐早稻, 日漸向熟, 木花早顆向綻, 晚稻漸次入實, 豆太已盡結殼, 根豆木麥爛熳起花,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次第成熟, 晚黍粟稷唐早稻方張入實, 木花顆房漸堅, 晚稻日益發穗, 豆太方始結殼, 根豆木麥今方起花, 江界之三川慈城雨坊段, 火粟舉皆發穗, 根豆木麥再鋤垂畢是如爲白乎旅. 臣營下 今十八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 各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3일에 내린 비가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순안·선천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용강·증산·숙천·자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영유·안주·삼화·강동·은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상원·박천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중화·성천·개천·강서·태천·영변·정주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었는데 간혹 베어 수확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목화는 이른 다래가 터지고, 늦벼는 점차 알이 들고, 콩·팥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익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점 단단해

지고, 늦벼는 날로 더욱 이삭이 패고, 콩·팥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하였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지금 막 꽃이 핍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대부분 이삭이 패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8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02. 1861년(철종 12) 7월 27일(양력 9월 1일)

節到付順安縣令李憲夔牒呈內, 今月二十日之雨, 江川漲溢, 本縣龍興面 民家漂頽, 大戶爲十九戶是如爲白有臥乎所. 當此卽農節, 許多民人之失所棲遑, 誠甚矜憐, 凡係存恤奠接之方, 不容少緩乙仍于. 各別顧恤, 趁卽結構, 安堵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同漂頽戶, 原恤典依例題給後, 役姓名及穀數,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이번에 도착한 순안 현령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20일의 비로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쳐, 본 순안현 용흥면의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졌는데 대호가 19가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농사철에 상당히 많은 백성이 지낼 곳을 잃고 머물러 살 곳이 없다니, 정말로 매우 불쌍하고 가엾습니다. 무릇 돌보아 도와주는 방법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각별히 돌보아 주고 재빨리 집을 지어 안심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위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의 기본 구호는 규정에 따라 결정문으로 준 뒤, 직역·성명 및 곡식의 수량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0603. 1861년(철종 12) 7월 29일(양력 9월 3일)

本月十三日 順安等二十一邑雨澤, 臣營下十八日得雨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三日雨, 德川·義州·雲山·渭原·朔州等五邑, 川渠微漲, 龍川得二犁, 咸從·郭山·鐵山·龜城·熙川·楚山等六邑, 得一犁, 孟山·嘉山得一鋤, 十八日雨, 順安·永柔·肅川·殷山·嘉山·定州·郭山·宣川·寧邊·雲山·熙川·博川·泰川等十三邑, 川渠漲滿, 慈山·价川·鐵山·龍川等四邑, 川渠微漲, 安州·三和·甑山·成川·德川·等五邑, 得一犁, 三登·義州得二鋤, 平壤·中和·龜城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方張刈穫, 間或登場, 晚黍粟稷唐早稻過半成熟, 木花今始拾絮, 晚稻舉皆入實, 豆太次第成實, 根豆木麥方始結穀,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今方刈取, 晚黍粟稷唐早稻日漸向熟, 木花早顆漸綻, 晚稻舉皆發穗, 豆太已盡結穀, 根豆木麥爛熳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日益入實, 根豆木麥漸次起花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에 순안 등 21개 고을의 우택과 저의 감영에 18일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3일의 비로 덕천·의주·운산·위원·삭주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용천은 2려가 내렸고, 함중·곽산·철산·구성·회천·초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맹산·가산은 1서가 내렸고, 18일의 비로 순안·영유·숙천·은산·가산·정주·곽산·선천·영변·운산·회천·박천·태천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자산·개천·철산·용천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안주·삼화·증산·성천·덕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삼등·의주는 2서가 내렸고, 평양·중화·구성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수확하고 있는데 간혹 타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절반 이상 익었고, 목화는 지금 솜을 거두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대부분 알이 들었고, 콩·팥은 차례로 알이 여물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목화는 이른 다래가 점점 터지고, 늦벼는 대부분 이삭이 났고, 콩·팥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활짝 꽃이 필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날로 더욱 알이 들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점차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04. 1861년(철종 12) 8월 4일(양력 9월 8일)

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初二日戌時量始雨，或霏或灑，至初四日午量乃止，測雨器水深 爲三寸五分是白如乎。列邑雨澤多寡，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迫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2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4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05. 1861년(철종 12) 8월 6일(양력 9월 10일)

節到付嘉山郡守具駿鉉牒呈內, 去月二十日之雨, 江川漲溢, 本郡內面 民家全頽 小戶爲十六戶是如爲白有臥乎所. 許多民人之失所棲遑, 誠甚矜憐. 凡係存恤奠接之方, 不容少緩仍于. 各別顧助, 趁卽結構, 安堵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同漂頽戶, 原恤典 依例題紛後, 役姓名及穀數,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이번에 도착한 가산 군수 구준현의 문서 보고 내용에. 지난달 20일의 비로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는데, 본 가산군 내면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은 소호 16가구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백성이 지낼 곳을 잃고 머물러 살 곳이 없다니, 정말로 매우 불쌍하고 가엾습니다. 무릇 돌보아 도와주는 방법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각별히 돌보아주고 재빨리 집을 지어 안심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위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의 기본 구조는 규정에 따라 결정문으로 준 뒤, 직역·성명 및 곡식의 수량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0606. 1861년(철종 12) 8월 9일(양력 9월 13일)

臣營下 本月初二日得雨 三寸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順安·安州·定州·郭山·龍川·泰川等六邑, 川渠微漲, 肅川·宣川 得二犁, 平壤·永柔·慈山·三登·成川·三和·咸從·寧邊等六邑, 得一犁, 祥原 得二鋤, 博川·中和·江西·甑山·价川等五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幾盡登場, 晚黍粟今方刈獲, 稷唐早稻舉皆成熟, 木花方張摘拾, 晚稻日漸向熟, 豆太已盡入實, 根豆木麥次第結殼,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方張刈取, 晚黍粟稷唐早稻幾盡成熟, 木花今始拾絮, 晚稻日益成實, 豆太漸次入實, 根豆木麥過半結殼,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皆就熟, 根豆木麥間或結殼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未報邑雨澤,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2일에 내린 비가 3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순안·안주·정주·곽산·용천·태천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숙천·선천은 2려가 내렸고, 평양·영유·자산·삼등·성천·삼화·함중·영변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원은 2서가 내렸고, 박천·중화·강서·증산·개천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타작하였고, 늦기장·늦조는 지금 막 베어 수확하고, 수수·올벼는 대부분 익었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고 있고, 늦벼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콩·팥은 이미 다 알이 들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차례로 꼬투리를 맺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거의 다 익었고, 목화는 지금 솜을 거두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날로 더욱 알이 여물고, 콩·팥은 점차 잘 알이 들고, 그루같이

한 콩·메밀은 절반 이상 꼬투리를 뺐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거의 다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간혹 꼬투리를 뺐는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과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07. 1861년(철종 12) 8월 11일(양력 9월 15일)

節到付碧潼郡守李公濂牒呈內, 去月十九日之雨, 江川漲溢, 本郡零面峙面社面西上面別面等五面, 民家全頽, 大戶爲三戶, 中戶爲十七戶, 小戶爲四十三戶, 人命淹死爲八名, 而屍身並拯得, 待水退 摘奸之際, 日子自至遲滯是如爲白有臥乎所. 許多民家漂頽, 已甚矜憐, 人命淹死, 尤極驚慘. 凡係結構掩埋等節, 不容少緩乙仍于. 各別顧助, 趁卽結構, 掩埋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同漂頽戶及淹死人等, 原恤典 依例題給後, 役姓名及穀數,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이번에 도착한 벽동 군수 이공렴의 문서 보고 내용에, 지난달 19일의 비로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는데, 본 병동군 우면·치면·사면·서상면·별면 등 5개 면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은 대호 3가구, 중호 17가구, 소호 43가구이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8명인데, 시체는 모두 건졌습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내는 즈음에 날짜가 자연히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으로 이미 매우 불쌍하고 가여운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니 더욱 놀랍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무릇 집을 짓고 임시로 매장하는 등의 사항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히 돌보아 돕고 재빨리 집을 짓고, 임시로 매장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위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 및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등의 기본 구호는 규정에 따라 결정문으로 준 뒤, 직역·성명 및 곡식의 수량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0608. 1861년(철종 12) 8월 15일(양력 9월 19일)

節到付楚山府使李志健牒呈內, 去月十九日之雨, 江川漲溢, 本府 忠面, 民家全頽, 中戶爲二十七戶, 人命渰死爲五名, 壓死爲十七名, 而已拯屍爲十七名, 未拯屍爲五名是如爲白乎旆. 龍川府使李祉秀牒呈內, 去月三十日之雨, 江川漲溢, 本府 東上面, 民家全頽, 中戶爲十八戶, 人命壓死爲一名, 屍身掘得, 而待水退, 摘奸之際, 日子自至遲滯是如, 並爲報來爲白有臥乎所. 今此兩邑之民家漂頽, 已甚矜憐, 數多人命之一時渰壓致死, 尤極驚慘. 凡係結構掩埋等節, 不容少緩乙仍于. 漂頽戶各別顧助, 趁卽結構安堵, 已拯屍亦卽申飭厚埋, 未拯屍廣加搜拯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同漂頽戶及渰壓死人等, 原恤典 依例題給後, 役姓名及穀數,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이번에 도착한 초산 부사 이지건의 문서 보고 내용에, 지난달 19일의 비로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는데, 본 초산부 충면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은 중호 27가구이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5명, 깔려 죽은 사람이 17명인데, 이미 건진 시체는 17명이고, 건지지 못한 시체는 5명이라고 합니다.

용천 부사 이지수의 문서 보고에 내용에, 지난달 30일의 비로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는데, 본 용천부 동상면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은 중호 18가구이며, 깔려 죽은 사람이 1명인데 시체는 파냈습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내는 즈음에 날짜가 자연히 지체되었다고 하며 모두 보고가 왔습니다.

이번에 3개 고을의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으로 이미 매우 불쌍하고 가여운데,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다니 더욱 놀랍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무릇 집을 짓고 임시로 매장하는 등의 사항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는 각별히 돌보아 돕고 재빨리 집을 지어 안심하도록 하고, 이미 건진 시체 또한 즉시 단단히 지시하여 넉넉히 매장하고, 건지지 못한 시체는 널리 뒤져서 건지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위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 및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 등의 기본 구호는 규정에 따라 결정문으로 준 뒤,

직역·성명 및 곡식의 수량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진홀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홀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피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0609. 1861년(철종 12) 8월 19일(양력 9월 23일)

道內農形 及本月初二日 順安等二十二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嘉山·昌城·碧潼·朔州·渭原·楚山等六邑, 川渠微漲, 龜城 得二犁, 義州·雲山·熙川等三邑, 得一犁, 龍岡 得二鋤, 陽德·殷山·順川·寧遠·孟山·鐵山等六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登場, 晚黍粟已畢刈穫, 稷唐早稻隨熟隨穫, 木花一向摘拾, 晚稻幾皆成熟, 豆太日漸向熟, 根豆木麥次第成實,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幾盡登場, 晚黍粟今始刈取, 稷唐稻早 間或收穫, 木花方張摘絮, 晚稻日益就熟, 豆太舉皆成實, 根豆木麥 漸次入實,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今方收穫, 根豆木麥, 過半結殼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2일의 순안 등 22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가산·창성·벽동·삭주·위원·초산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구성은 2려가 내렸고, 의주·운산·회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용강은 2서가 내렸고, 양덕·은산·순천·영원·맹산·철산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타작하였고, 늦기장·늦조는 이미 베어 수확하기를 마쳤고, 수수·올벼는 익는 대로 수확하고, 목화는 줄곧 따서 거두고, 늦벼는 거의 다 익었고, 콩·팥은 날로 점점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차례로 알이 여물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타작하였고, 늦기장·늦조는 지금 베어 거두기 시작하였고, 수수·올벼는 간혹 수확하고, 목화는 한창 솜을 따고 있고, 늦벼는 날로 더욱 익어가고, 콩·팥은 대부분

알이 여물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점차 알이 들고 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지금 막 수확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절반 이상 꼬투리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10. 1861년(철종 12) 8월 22일(양력 9월 26일)

節到付義州府尹權應夔牒呈內, 本月初一日之雨, 連日暴霖, 江川漲溢, 本府古邑面月華面兩面, 水邊民家之全頽, 中戶爲三戶, 小戶爲三十一戶, 人物渰死爲五名是如爲白有臥乎所. 許多民家漂頽, 已甚矜憐, 人命渰死, 尤極驚慘, 各別顧助, 趁卽結構, 如前安堵, 渰死屍身段, 另飭厚埋之意, 並爲措辭題飭爲白乎旆. 同漂頽戶及渰死人等, 原恤典 依例題給後, 役姓名及穀數, 修成冊 上送干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이번에 도착한 의주 부윤 권응기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초1일의 비가 연일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서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는데, 본 의주부 고읍면·월화면 2개 면은 물가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은 중호 3가구, 소호 31가구이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5명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으로 이미 매우 불쌍하고 가여운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니 더욱 놀랍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각별히 돌보아 돕고 재빨리 집을 지어 이번처럼 안심하도록 하고, 물에 빠져 죽은 시체의 경우, 별도로 지시하여 넉넉하게 매장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위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 및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등의 기본 구호는 규정에 따라 결정문으로 준 뒤, 직역·성명 및 곡식의 수량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0611. 1861년(철종 12) 8월 26일(양력 9월 30일)

道內農形，已爲馳啓爲是有在果。臣營下 本月二十五日巳時量始雨，或霏或灑，當日申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是白如乎。各穀及未收穫，冷雨若是過中，言念穡事，誠極可悶，而列邑雨澤多寡，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5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였습니다. 각종 곡식을 수확하지 못했는데, 찬비가 이처럼 정도를 지나쳤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12. 1861년(철종 12) 8월 29일(양력 10월 3일)

臣營下 今二十五日得雨二寸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得一犁, 中和·甑山 得一鋤, 而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稷唐早稻 已皆登場, 木花幾盡摘拾, 晚稻豆太 方張收穫, 根豆木麥 次第刈取,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晚黍粟稷唐早稻 今方登場, 木花 過半摘拾, 晚稻豆太 間或刈穫, 根豆木麥 隨熟隨穫,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穫, 根豆木麥 始刈是如爲白乎旡. 今十九日夜, 寧遠嚴霜降下, 肅川·三登·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孟山·定州·郭山·宣川·鐵山·雲山·江界等十四邑, 二十二日夜, 水霜降下是如爲白有臥乎所. 見今霜信已催, 穡事垂畢, 一路災實, 列邑分等, 更加詳探, 追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25일에 내린 비가 2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은 1려가 내렸고, 중화·증산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수수·올벼는 이미 다 타작하였고, 목화는 거의 다 따서 거뒀고, 늦벼·콩·팥은 한창 수확하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차례로 베어 거둡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지금 막 타작하고, 목화는 절반 이상 따서 거뒀고, 늦벼·콩·팥은 간혹 베어 수확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익는 대로 수확합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거의 수확하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베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19일 밤에 영원·은서리가 내렸고, 숙천·삼등·자산·은산·순천·개천·덕천·맹산·정주·곽산·선천·철산·운산·강계 등 14개 고을은 22일 밤에 무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 서리 소식이 이미 재촉하고 농사가 거의 끝났으니, 평안도 전체의 재해와 결실,

여러 고을의 등급은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13. 1862년(철종 13) 2월 29일(양력 3월 29일)

卽接各邑所報，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牟麥方始抽芽，春牟隨其土鮮 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凡係課農之節，另加申飭 使之着念舉行爲白乎旆。外此諸邑，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막 싹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땅이 풀리는 대로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모든 농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여 유념해서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의 여러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14. 1862년(철종 13) 3월 9일(양력 4월 7일)

平壤等十九邑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麴麥次第抽芽，春麴方張耕播，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義州·龍川·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博川·泰川·龜城等十七邑，秋麴麥方始抽芽，春麴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手所。嗣後形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19개 고을의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의주·용천·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박천·태천·구성 등 17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막 싹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15. 1862년(철종 13) 3월 16일(양력 4월 14일)

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 本月十五日卯時量始雨，或霏或灑，至酉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列邑所得，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5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616. 1862년(철종 13) 3월 19일(양력 4월 17일)

本月十五日, 臣營下得雨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肅川·祥原 得二鋤, 平壤·中和·咸從·永柔·三和·江西·鐵山等七邑, 得一鋤, 江東 得一犁是如爲白乎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已盡抽芽, 春麴間或立苗, 早黍粟方始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博川·泰川·龜城等十七邑, 秋麴麥過半抽芽, 春麴幾盡耕播, 江界·渭原·楚山·朔州·昌城·碧潼等六邑, 秋麴麥方欲抽芽, 春麴始耕是如爲白乎所. 嗣後農形, 與未報邑雨澤,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숙천·상원은 2서가 내렸고, 평양·중화·함중·영유·삼화·강서·철산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동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박천·태천·구성 등 17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절반 이상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 뿌렸습니다. 강계·위원·초산·삭주·창성·벽동 등 6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막 싹이 나오려고 하고, 봄보리는 밭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과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17. 1862년(철종 13) 3월 29일(양력 4월 27일)

道內農形 及本月十五日得雨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甌山 得一犁, 三登 得二鋤, 成川·陽德·慈山·龍岡·龜城等五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旃. 臣營下今二十七日戌時量始雨, 或霖或霏, 二十八日辰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 而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間或向青, 春麴麥皆立苗, 早黍粟次第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秋麴麥幾盡抽芽, 春麴早黍粟始爲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麴始耕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謹具啓聞.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5일에 내린 비가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증산은 1려가 내렸고, 삼등은 2서가 내렸고, 성천·양덕·자산·용강·구성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7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8일 진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나왔고, 봄보리·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삼가 갖추어 보고합니다.

## 0618. 1862년(철종 13) 4월 9일(양력 5월 7일)

道內農形 及去月二七日得雨一寸八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永柔·慈山·順川·三登·陽德·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等十二邑, 得一犁, 肅川·祥原·孟山等三邑, 得二鋤, 成川·德川·寧邊·雲山·熙川·嘉山·鐵山等七邑, 得一鋤, 安州·宣川·博川等三邑, 浥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漸就茁茂, 春牟間或向青, 早黍粟幾盡耕播, 晚黍粟稷唐木花 今始耕種,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秋牟麥今始向青, 春牟幾盡抽芽, 早黍粟次第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過半耕播是如爲白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7일에 내린 비가 1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자산·순천·삼등·양덕·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숙천·상원·맹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성천·덕천·영변·운산·희천·가산·철산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안주·선천·박천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싹이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간혹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거의 다 싹이 나왔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19. 1862년(철종 13) 4월 19일(양력 5월 17일)

道內農形 及去月二十七日雨, 平壤等二十五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本月十八日 酉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九日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今始胚胎, 春牟日漸茁茂, 早黍粟間或立苗, 晚黍粟稷唐木花 已盡耕播, 早稻方始耕種,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秋牟麥日益茁長, 春牟舉皆向青, 早黍粟幾盡耕播, 晚黍粟稷唐木花耕種伊始,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今已畢耕, 間或立苗, 火粟始耕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7일의 비와 평양 등 25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8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9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벼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더욱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지금 이미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간혹 싹이 돋고, 화속은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20. 1862년(철종 13) 4월 22일(양력 5월 20일)

導內農形 及本月十八日得雨一寸三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江東·慈山等四邑, 得一犁, 肅川 得二鋤, 中和·祥原·成川·安州·博川·三和等六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旅. 臣營下 本月二十一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三日卯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8일에 내린 비가 1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강동·자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숙천은 2서가 내렸고, 중화·상원·성천·안주·박천·삼화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1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21. 1862년(철종 13) 4월 29일(양력 5월 27일)

本月十八日雨, 平壤等十一邑雨澤 及二十二日 臣營下得雨三寸三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八日之雨, 殷山·咸從·甌山·嘉山·宣川·鐵山·龍川·義州·泰川·碧潼等十邑, 得一犁, 江西·龍岡·永柔·定州·郭山·三登·順川·昌城等八邑, 得二鋤, 价川·德川·寧遠·陽德·寧邊·雲山·熙川·龜城·朔州等九邑, 得一鋤, 二十二日之雨, 順安·永柔·甌山·慈山·順川·德川等六邑, 得二犁, 平壤·肅川·安州·嘉山·郭山·鐵山·江西·龍岡·三和·咸從·中和·江東·成川·龜城·寧遠等十五邑, 得一犁, 祥原·三登·寧邊·雲山·熙川·价川·定州·博川等八邑, 得二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間或發穗, 春牟今始胚胎, 早黍粟初鋤伊始, 晚黍粟稷唐木花幾盡立苗, 晚稻豆太方始耕種,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秋牟麥今始胚胎, 春牟日漸茁茂, 早黍粟間或立苗, 晚黍粟稷唐木花 耕種已畢, 早稻耕播方始,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已盡立苗, 火粟畢耕是如爲白有旆. 就中二十二日雨 或有雹災之邑, 而咸從段, 始自吾串面, 終至吾山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大如太片, 小如豆粒, 所經處, 長爲三十里許, 廣爲十五里許, 甌山段, 始自升盈里, 終至土府里, 雨雹交下, 霎時乃止, 大如榛子, 小如太片, 所經處, 長爲三十里許, 廣爲二十里許, 龍岡段, 始自雲洞面, 終至鳳峴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大如太片, 小如豆粒, 所經處, 長爲四十里許, 廣爲二十里許, 茁茂之兩麥, 立苗之黍粟, 別無所損, 而晚種始苗之木花, 間或被傷是如爲白有臥乎所. 非時雹災, 雖甚悶然, 別無大損, 亦爲可幸是白乎旆.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8일의 비로 평양 등 11개 고을의 우택 및 22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3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8일의 비로 은산·함중·증산·가산·선천·철산·용천·의주·태천·벽동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서·용강·영유·정주·곽산·삼등·순천·창성 등 8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개천·덕천·영원·양덕·영변·운산·희천·구성·삭주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22일의 비로 순안·영유·증

산·자산·순천·덕천·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양·숙천·안주·가산·곽산·철산·강서·용강·삼화·함중·중화·강동·성천·구성·영원 등 1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원·삼등·영변·운산·회천·개천·정주·박천 등 8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벼·콩·팥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쳤고, 올벼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막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화속은 땅 갈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22일의 비에, 더러 우박 재해를 입은 고을이 있습니다. 함중의 경우, 오관면에서 시작하여 오산면에 이르러 끝났는데,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순식간에 이내 그쳤습니다. 우박 모양은 큰 것은 콩 조각만 하고 작은 것은 팥알만 하며, 거쳐 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15리가량입니다. 증산의 경우, 승영리에서 시작하여 토부리에 이르러 끝났는데,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순식간에 이내 그쳤습니다. 우박 모양은 큰 것은 개암만 하고 작은 것은 콩 조각만 하며, 거쳐 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20리가량입니다. 용강의 경우, 운동면에서 시작하여 봉현면에 이르러 끝났는데,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순식간에 이내 그쳤습니다. 우박 모양은 큰 것은 콩 조각만 하고 작은 것은 팥알만 하며, 거쳐 간 곳의 길이는 40리가량이고 너비는 20리가량입니다. 씨기 무성한 보리·밀과 싹이 돋은 기장·조는 별로 손상된 것이 없으나, 늦게 씨앗을 뿌려 싹이 돋기 시작한 목화는 간혹 손상됐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22. 1862년(철종 13) 5월 9일(양력 6월 5일)

道內豐形及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十八日之雨, 孟山·江界·渭原·楚山等四邑, 得一鋤, 二十二日之雨, 泰川·殷山兩邑, 得二犁, 宣川·龍川·義州·朔州·昌城·碧潼·江界·渭原·楚山·孟山·陽德等十一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粳麥已盡發穗 次第入實, 春粳間或發穗, 早黍粟初鋤已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初鋤伊始, 晚稻豆太日漸立苗,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秋粳麥今始發穗, 春粳間或胚胎, 早黍粟方張初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幾盡立苗, 晚稻豆太 方始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苗茂, 火粟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18일의 비로 맹산·강계·위원·초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22일의 비로 태천·은산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선천·용천·의주·삭주·창성·벽동·강계·위원·초산·맹산·양덕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됐는데 차례로 알이 들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돋고 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간혹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벼·콩·팥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싹이 무성하고, 화속은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23. 1862년(철종 13) 5월 12일(양력 6월 8일)

道內農形 及去月二十二日 泰川等邑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 今十二日未時量始雨，一直霑下，申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如乎。列邑得雨多寡，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2일의 태천 등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2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줄곧 주룩주룩 내리다가 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24. 1862년(철종 13) 5월 19일(양력 6월 15일)

本月十二日 臣營下得雨一寸三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中和 得一犁, 祥原 得二鋤, 平壤·寧邊·雲山·義州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幾盡入實, 春麴次第發穗, 早黍粟方始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過半, 晚稻豆太舉皆立苗,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麴麥已盡發穗, 春麴 舉皆胚胎, 早黍粟 初鋤已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初鋤伊始, 晚稻豆太 幾訖畊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麴間或胚胎, 火粟立苗是如爲白乎旆. 今月十三日, 祥原段, 雨雹交下, 始於覺今里, 終於二峯里, 長爲三十五里許, 廣爲十三里許, 殷山段, 始於擎天坊, 終於仙院坊, 長爲三十里許, 廣爲五里許, 雹狀 大如橡實, 小如太片, 所徑處 入實之兩麥, 柔軟之各穀, 無不被損, 而就中木花偏受其災, 翻畊代種是如爲白乎所. 非時雹災傷稼殊深, 言念民事, 誠爲悶然是白乎旆. 臣營下 本月十七日酉時量始雨, 或灑或歇, 十八日辰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 列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緣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2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중화는 1려가 내렸고, 상원은 2서가 내렸고, 평양·영변·운산·의주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순천·은산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 하였고, 늦벼·콩·팥은 대부분 싹이 돋았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대부분 알을 뻗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거의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간혹 알을 배고, 화속은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이번 달 13일에 상원의 경우, 우박이 어지러이 내렸는데, 각금리에서 시작하여 이봉리에서 끝났으며, 길이는 35리가량이고 너비는 13리가량입니다. 은산의 경우, 경천방에서 시작하여 선원방에 끝났으며,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우박 모양은 큰 것은 도토리만 하고 작은 것은 콩 조각만 합니다. 거쳐 간 곳의 알이 든 보리·밀과 연약한 각종 곡식은 손상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목화는 심하게 재해를 받아 갈아엎고 대신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때아닌 우박 재해로 벼의 손상이 특히 심한데,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7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그치더니 18일 진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25. 1862년(철종 13) 5월 29일(양력 6월 25일)

道內農形 及臣營下 本月十七日得雨七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二日雨, 熙川得二鋤, 孟山·昌城得一鋤, 十七日雨, 順安·龍岡得二犁, 順川·宣川·龍川·甑山·永柔·江東·安州等七邑, 得一犁, 定州得二鋤, 平壤·肅川·慈山·殷山·价川·雲山·郭山·鐵山·龜城·寧邊·三和·祥原等十二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祥原·中和·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次第向熟, 春麴幾盡入實, 早黍粟再鋤垂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已訖, 晚稻豆太初鋤伊始,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麴麥幾盡入實, 春麴次第發穗, 早黍粟方始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初鋤過半, 晚稻豆太 舉皆立苗, 江界之川慈城兩坊段, 春麴舉皆胚胎, 火粟已盡立苗是如爲白乎旆. 今月十七日驟雨, 朔州·成川兩邑, 俱被雹災, 而朔州段, 始於白呂字面, 終於東倉面, 長爲四十八里許, 廣爲四里許, 成川段, 始於東三坊, 終於南二坊, 長爲四十五里許, 廣爲二里許, 雹狀 大如栗[栗]子, 小如大豆, 所徑處 各穀多有被損是如爲白乎所. 匪意雹損之迭相告災, 言念農功, 殊爲悶然是白乎旆.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7일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2일의 비로 희천은 2서가 내렸고, 맹산·창성은 1서가 내렸고, 17일의 비로 순안·용강은 2려가 내렸고, 순천·선천·용천·증산·영유·강동·안주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정주는 2서가 내렸고, 평양·숙천·자산·은산·개천·운산·곽산·철산·구성·영변·삼화·상원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상원·중화·삼동·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익어가고, 봄보리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 하였고, 늦벼·콩·팥은 대부분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대부분 알을 뻗고, 화속은 이미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번 달 17일의 소나기에다 삭주·성천 2개 고을은 모두 우박 재해를 입었습니다. 삭주의 경우, 백여자면에서 시작하여 동창면에 끝났는데, 길이는 48리가량이고 너비는 4리가량입니다. 성천의 경우, 동삼방에서 시작하여 남이방에 끝났는데, 길이는 45리가량이고 너비는 2리가량입니다. 우박 모양은 큰 것은 밤만 하고 작은 것은 큰콩만 하였습니다. 거쳐 간 곳의 각종 곡식은 손상된 것이 많다고 합니다. 뜻밖의 우박 손상으로 번갈아서로 재해를 알립니다. 농사일을 생각하면 특히 걱정스럽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26. 1862년(철종 13) 6월 7일(양력 7월 3일)

去月十七日順安等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昌城·江界 得一犁, 定州 得二鋤, 咸從·熙川·義州·泰川等四邑, 得一鋤, 永柔·順安浥塵, 而去月二十九日驟雨, 龍川 川渠漲滿, 鐵山 得二鋤是如爲白乎旡. 臣營下 本月初六日未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七日辰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 而一向霏微, 尙無霽意是白如乎. 列邑雨澤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道內農形 及去月十七日順安等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昌城·江界得一犁, 定州得二鋤, 咸從·熙川·義州·泰川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旡. 臣營下 本月初六日未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七日辰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 而一向霏微, 尙無霽意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17일의 순안 등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창성·강계는 1려가 내렸고, 정주는 2서가 내렸고, 함중·회천·의주·태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영유·순안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지난달 29일의 소나기로 용천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철산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7일 진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고, 줄곧 부슬부슬 내리면서 아직도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17일의 순안 등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창성·강계는 1려가 내렸고, 정주는 2서가 내렸고, 함중·회천·의주·태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7일 진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고, 줄곧 부슬부슬 내리면서 아직도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27. 1862년(철종 13) 6월 9일(양력 7월 5일)

本月初六日 臣營下得雨二寸三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得一犁, 中和·甑山得一鋤, 永柔·順安浥塵, 去月二十九日驟雨, 龍川川渠漲滿, 鐵山得一鋤是如爲白乎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方張刈取, 春牟已盡向熟, 早黍粟三鋤伊始, 晚黍粟稷唐早稻木花再鋤過半, 晚稻豆太初鋤垂畢, 根豆木麥間或畊播,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舉皆成熟, 春牟次第向熟, 早黍粟再鋤垂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初鋤已訖, 晚稻豆太 初鋤過半,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麥幾盡入實, 火粟方張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6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2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은 1려가 내렸고, 중화·증산은 1서가 내렸고, 영유·순안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지난달 29일의 비로 용천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철산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 하였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익었고, 봄보리는 차례로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 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화속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28. 1862년(철종 13) 6월 12일(양력 7월 8일)

道內農形 及本月初六日 平壤等邑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孟山川渠微漲, 楚山得二犁, 三和·殷山·泰川·江界等四邑, 得一犁, 祥原·雲山·郭山等三邑, 得二鋤, 嘉山·德川·寧邊·博川·宣川·安州·三登·肅川·江西·龍岡·陽德·价川·碧潼·渭原·咸從·慈山等十六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旃. 臣營下 今月初十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十二日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四寸八分, 而陰雲四翳, 尙未開霽是白如乎. 列邑之前後雨澤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6의 평양 등 고을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맹산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초산은 2려가 내렸고, 삼화·은산·태천·강계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원·운산·곽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가산·덕천·영변·박천·선천·안주·삼동·속천·강서·용강·양덕·개천·벽동·위원·함종·자산 등 1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0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2일 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8푼이었고, 먹구름이 사방에 끼어 아직도 개지 않았습니다. 여러 고을의 지금까지 우택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29. 1862년(철종 13) 6월 15일(양력 7월 11일)

臣營下 今月十二日雨四寸八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伊日之雨, 連接各邑所報, 則平壤川渠漲溢, 慈山川渠微漲, 中和·三和·咸從等三邑, 得一犁, 江西得二鋤, 成川·甑山·肅川·永柔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旅. 臣營下 今十三日辰時量又爲始雨, 或霪或灑, 十五日未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尺一寸一分是白如乎. 一雨多日極備爲災, 一向陰霏, 尙未開霽, 長養各穀, 未免[雨+侵]霪, 言念民事, 萬萬憂悶. 未報邑雨澤,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2일의 비가 4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자산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중화·삼화·함중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서는 2서가 내렸고, 성천·증산·숙천·영유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3일 진시쯤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5일 미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자 1치 1푼이었습니다. 한차례 비가 여러 날 내리며 갖가지로 재해가 되고, 줄곧 음산하게 부슬부슬 내리며 개지 않으니, 잘 자란 각종 곡식이 장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근심·걱정입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30. 1862년(철종 13) 6월 19일(양력 7월 15일)

臣營下 今月十五日雨一尺一寸一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二日雨, 順安·祥原·三登·博川·嘉山等五邑, 川渠微漲, 江東·順川·安州·孟山·鐵山·義州等六邑, 得一犁, 龍岡·殷山·郭山等三邑, 得二鋤, 十五日雨, 平壤·肅川·三和·祥原·永柔·郭山等六邑, 川渠漲滿, 中和·順安·成川·安州等四邑, 川渠微漲, 而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兩麥畢穫 方張根耕, 早黍粟三鋤垂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再鋤已訖, 晚稻豆太 再鋤伊始,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兩麥刈穫幾畢 間或根耕, 早黍粟方始三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今方再鋤, 晚稻豆太 初鋤幾畢,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已盡成熟 間或刈取, 火粟再鋤伊始是如爲白乎旆. 臣營下 今十七日寅時量又雨, 或霏或霏間或止歇, 十八日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六寸五分, 陰雲不散, 尙無開霽之意, 而橫水漲滿, 平陸成江是白如乎. 宿潦未退, 新霏更浸, 方此茁茂之各穀, 多有沉墊之患, 言念穡事, 不勝憂悶, 水災淺深, 農形利害, 待列邑齊報,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5일의 비가 1자 1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2일의 비로 순안·상원·삼등·박천·가산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강동·순천·안주·맹산·철산·의주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용강·은산·곽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15일의 비로 평양·숙천·삼화·상원·영유·곽산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중화·순안·성천·안주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보리·밀은 수확을 마쳤는데 한창 그루갈 이하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조산·박천·

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보리·밀은 베어 수확하기를 거의 마쳤는데 간혹 그루같이하고, 올기장·올조는 막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이미 다 익었는데 간혹 베어 거두고, 화속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7일 인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간혹 그치더니 18일 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5푼이었고,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아직도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가로지르는 물이 불어나 가득 차서 평지가 강이 되었습니다. 묵은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새로 주룩주룩 내리니 다시 잠겼습니다. 바야흐로 이렇게 짝이 무성한 각종 곡식이 물에 잠길 근심이 많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수해가 약한지 심한지, 농사 상황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여러 고을이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31. 1862년(철종 13) 6월 26일(양력 7월 22일)

今月十五日雨 平壤等十邑 及臣營下十八日雨澤農形 與水災淺深, 待列邑齊報, 陸續登聞計料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五日雨, 江西·龍岡·咸從·甌山·江東·三登·陽德·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寧遠·孟山·嘉山·定州·宣川·鐵山·龍川·義州·博川·泰川·龜城·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等二十八邑, 川渠漲滿, 十八日雨,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郭山·定州·宣川·鐵山·龍川·義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寧遠·孟山·寧邊·雲山·熙川·博川·泰川·龜城等三十五邑, 江川漲溢, 而就中平壤·成川·价川等三邑段, 沿江民家, 多致漂頽, 原野禾稼, 無不瘁損, 江西·龍岡·三和·甌山·順安·安州·永柔·博川·江東·慈山·殷山·順川·德川·寧遠·孟山·寧邊等十六邑段, 依山焉汰落覆沙, 濱浦焉濫溢潰堰是如爲白乎旆. 臣營下 今二十五日辰時量始雨, 或霍或灑, 至二十六日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 而積水未退, 若雨連仍, 南北州郡, 迭相告災, 言念民情, 不勝憂悶, 水災淺深, 漂戶潰堰, 卽速探報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未報邑雨澤, 災形有無, 待列邑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의 비로 평양 등 10개 고을 및 저의 감영의 18일의 우택·농사 상황과 수해가 약한지 심한지는 여러 고을이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5일의 비로 강서·용강·함중·증산·강동·삼등·양덕·자산·은산·순천·개천·덕천·영원·맹산·가산·정주·선천·철산·용천·의주·박천·태천·구성·창성·벽동·영변·운산·회천 등 2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18일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곽산·정주·선천·철산·용천·의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덕천·영원·맹산·영변·운산·회천·박천·태천·구성 등 35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습니다.

그 가운데 평양·성천·개천 등 3개 고을의 경우, 강가 백성 집은 많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졌고, 들판의 벼곡식은 손상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강서·용강·삼화·증산·순안·안주·영유·박천·강동·자산·은산·순천·덕천·영원·맹산·영변 등 16개 고을의 경우, 산자락은 사태로

모래에 뒤덮이고, 물가는 범람하여 독이 터졌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5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습니다.

쌓인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처럼 비가 연이어 내려, (청천강) 남북의 주와 군이 번갈아 재해를 알립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수해가 약한지 심한지, 떠내려간 가구와 터진 독은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재해 상황의 유무는 여러 고을이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32. 1862년(철종 13) 6월 29일(양력 7월 25일)

今月二十六日雨, 臣營下水深三寸二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中和·江西·咸從等四邑, 川渠微漲, 順安·江東得二犁, 而豐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 三鋤已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 三鋤方張, 晚稻豆太 再鋤已訖, 根豆木麥 次第耕種,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 三鋤垂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 今方三鋤, 晚稻豆太 再鋤伊始, 根豆木麥 方張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畢穫 隨即根耕是如爲白乎旆. 盖今年牟事, 倣載之初, 土脉未解, 雖不早播, 立種之後, 雨暘均適, 庶幾有望際, 茲登場之時, 暴雨浹旬懷襄災, 已刈載畝者 多歸漂失, 未穫垂穎者 舉皆生角, 以若幾收之兩麥, 遽判意外之歉形, 南北之優劣奚論, 山野之差勝莫辨, 噫彼艱食之羣生, 大失所圖於麥嶺, 只是沉墊之各穀, 惟望來頭之蘊醒, 民情農功, 俱極可悶是白乎旆. 未報邑雨澤, 農形利害, 待列邑齊報, 陸續登聞訃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6일의 비로 저의 감영은 수심이 3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중화·강서·함중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순안·강동은 2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지금 막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수확을 마쳤는데 곧바로 그루같이한다고 합니다.

대개 올해 보리농사의 경우, 일을 시작하던 초기에 땅이 풀리지 않아 비록 일찍 씨앗을 뿌리지 못했지만, 씨앗을 뿌린 뒤 비와 햇볕이 고루 적당하여 거의 가뭄이 있을 듯했습니다. 그즈음 이제 타작하는 때에 세찬 비가 10일 동안 내리는 홍수의 재해로 이미 베어 이랑에 둔 것은 많이 떠내려가 버렸고 수확하지 않은 고개 숙인 이삭은 대부분 싹이 났습니다. 이처럼 거의 거둔 보리·밀은 서둘러 뜻밖의 흉작 상황으로 판가름했는데, (청천강) 남북의 우열을 어찌 따지며, 산골과 들판의 조금 나은 쪽을 가릴 수 없습니다. 아, 저 먹고살기 어려운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보릿고개에 도모할 바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단지 물에 잠긴 각종 곡식이 오로지 앞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백성들의 심정과 농사일은 모두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농사 상황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여러 고을이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33. 1862년(철종 13) 6월 30일(양력 7월 26일)

价川·慈山等, 民戶漂頽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熙川郡守鄭基德牒呈內, 今月十七日之雨, 連日暴霖, 江川漲溢, 沙汰浦落, 本郡龍洞溫站草里驛平馬舡等五坊, 民家漂失, 中戶爲一戶, 小戶爲六戶, 全頽 小戶爲四戶, 壓死人爲一名是如爲白子旂. 連接中和府使白樂三牒呈內, 十八日之雨, 唐村馬井等兩坊, 民家全頽 大戶爲二戶, 中戶爲二十戶, 小戶爲三十一戶, 而待水退, 隨處摘奸之際, 日子俱至遲滯是如爲白有臥乎所. 當此農節, 民家漂頽之夥多, 人命壓死, 聞極驚慘, 其所奠接之方, 不容少緩乙仍于. 先自臣營, 拔例顧恤, 優給米穀空石等物, 亦令許斫私養, 借助隣丁, 從速結構, 期於依舊安堵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旂. 同漂頽戶及壓死人, 原恤典依例題給後, 役姓名及穀數, 修成冊 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개천·자산 등 백성 가구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연유는 좀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회천 군수 정기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7일의 비가 연이어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치고 사태로 포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본 회천군 용동·온참·초리·역평·마강 등 5개 방은 백성 집이 떠내려간 것은 중호 1가구, 소호 6가구, 완전히 무너진 것은 소호 4가구, 깔려 죽은 사람은 1명이라고 합니다. 연이어 중화 부사 백낙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18일의 비로 당촌·마정 등 2개 방은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은 대호 2가구, 중호 20가구, 소호 31가구입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곳곳을 캐널 즈음에 날짜가 모두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사철에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상당히 많고 사람이 깔려 죽다니 듣기에 그지없이 놀랍고 참혹합니다. 머물러 살 곳을 정하는 방법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먼저 저의 감영에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돌보아주었는데, 쌀과 곡식·빈 가마니 등의 물건을 넉넉히 주고, 또한 개인이 기르는 나무를 베도록 허락하였으며, 이웃 일꾼을 빌려서 도와주어 신속히 집을 지어 기어이 예전처럼 안심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위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 및 깔려 죽은 사람의 기본 구호는 규정에 따라 결정문으로 준 뒤, 직역·성명 및 곡식의 수량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진흥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흥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0634. 1864년(고종 1) 2월 18일(양력 3월 25일)

卽接義州府尹李正鉉本月十六日未時成貼狀啓謄報內, 今月望後, 巡檢大國人十名出來是如爲白乎旆. 一時到付該府尹同日同時成貼狀啓謄報內, 鴨綠江上下流, 間間解氷如是爲白有等以,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접수한 의주 부윤 이정현이 이번 달 16일 미시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내용에, 이번 달 20일 뒤에 순검인 중국인 1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도착한 해당 의주 부윤이 같은 날 같은 시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내용에, 압록강 상·하류는 간간이 얼음이 녹는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35. 1864년(고종 1) 2월 26일(양력 4월 2일)

卽接各邑所報，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曾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麴麥今始抽芽，春麴隨其土鮮，間或耕播是如爲白遣。臣營下 本月二十四日亥時量始雨，或霏或灑，二十五日未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乎脉。列邑雨澤，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땅이 풀리는 대로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4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미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36. 1864년(고종 1) 3월 6일(양력 4월 11일)

平壤等十九邑農形 及臣營下 去月二十五日得雨一寸四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三和·江西·順安·永柔·慈山·咸從·江東等八邑, 得一犁, 肅川·三登·龍岡等三邑, 得二鋤, 中和·祥原·成川·宣川·義州等五邑, 得一鋤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次第抽芽, 春麴幾盡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博川·泰川·龜城等十七邑, 秋麴麥今始抽芽, 春麴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19개 고을의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지난달 25일에 내린 비가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삼화·강서·순안·영유·자산·함중·강동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숙천·삼등·용강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중화·상원·성천·선천·의주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박천·태천·구성 등 17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37. 1864년(고종 1) 3월 14일(양력 4월 19일)

道內農形及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 本月十三日卯時量始雨，或灑或霑，至當日辰時量開霽，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是白如乎。列邑所得多寡，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3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당일 진시쯤에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38. 1864년(고종 1) 3월 16일(양력 4월 21일)

臣營下 今月十四日得雨三寸六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江西得二犁, 中和·慈山·殷山等三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舉皆抽芽, 春麴次第立苗, 早黍粟間或播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麴麥漸次抽芽, 春麴方張耕種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4일에 내린 비가 3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강서는 2려가 내렸고, 중화·자산·은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씨앗을 뿌립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39. 1864년(고종 1) 3월 26일(양력 5월 1일)

道內農形及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四日之雨, 肅川·宣川·价川等三邑, 得三犁, 順安·三和·鐵山·寧邊·雲山等五邑, 得二犁, 安州·永柔·定州·龍川·龍岡·咸從·甑山·祥原·三登·江東·成川·順川·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楚山等十九邑, 得一犁, 嘉山·郭山·義州等三邑, 得二鋤, 陽德·熙川兩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日漸向青, 春麴今始抽芽, 早黍粟方張播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麴麥舉皆抽芽, 春麴次第立苗, 早黍粟間或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麴始耕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4일의 비로 숙천·선천·개천 등 3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순안·삼화·철산·영변·운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안주·영유·정주·용천·용강·함중·증산·상원·삼등·강동·성천·순천·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초산 등 1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가산·곽산·의주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양덕·회천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지금 싹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40. 1864년(고종 1) 4월 4일(양력 5월 9일)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本月初三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當日寅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3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641. 1864년(고종 1) 4월 6일(양력 5월 11일)

今月初三日 臣營下得雨一寸四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江西 得一犁, 肅川·順安 得二犁, 中和·永柔 得一鋤是如爲白乎旃.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粳麥漸就茁茂, 春粳間或向青, 早黍粟已盡畊播, 晚黍粟稷唐木花 今始畊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粳麥今始向青, 春粳幾盡抽芽, 早黍粟已畢畊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次第畊種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강서는 1려가 내렸고, 숙천·순안은 2려가 내렸고, 중화·영유는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점 싹이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간혹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조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거의 다 싹이 나왔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42. 1864년(고종 1) 4월 16일(양력 5월 21일)

道內農形及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三日之雨, 三和·甌山·龍川等三邑, 得一犁, 龍岡·三登·泰川·龜城·朔州·渭原·孟山等七邑, 得二鋤, 安州·博川·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咸從·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寧遠·祥原·江東·成川·寧邊·雲山·熙川等二十邑, 得一鋤, 義州·溫塵是如爲白乎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今始胚胎, 春麴日漸茁茂, 早黍粟間或立苗, 晚黍粟稷唐木花 已盡耕播, 早稻方始耕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麴麥日益茁長, 春麴舉皆向青, 早黍粟已畢耕播, 晚黍粟稷唐木花 今始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麴間或立苗, 火粟始耕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의 비로 삼화·중산·용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용강·삼등·태천·구성·삭주·위원·맹산 등 7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안주·박천·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함중·자산·은산·순천·개천·덕천·영원·상원·강동·성천·영변·운산·희천 등 2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의주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벼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더욱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를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간혹 싹이 돋고, 화속은 땅을 갈기 시작하

였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  
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43. 1864년(고종 1) 4월 18일(양력 5월 23일)

道內農形及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 本月十七日未時量始雨，或霏或灑，申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列邑所得多寡，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7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644. 1864년(고종 1) 4월 25일(양력 5월 30일)

今月十七日 得雨七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永柔·肅川·定州·泰川等四邑, 得二鋤, 平壤·順安·安州·嘉山·郭山·宣川·鐵山·龍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江東·成川·殷山·順川·价川·博川·寧邊·雲山等二十三邑, 得一鋤, 三登·慈山·龜城等三邑, 浥塵是如爲白乎旆. 臣營下 今二十四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7일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영유·숙천·정주·태천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평양·순안·안주·가산·곽산·선천·철산·용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강동·성천·은산·순천·개천·박천·영변·운산 등 2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삼둥·자산·구성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4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사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45. 1864년(고종 1) 4월 26일(양력 5월 31일)

今月二十四日 臣營下得雨七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等十四邑, 得一鋤, 江西·永柔 得二鋤, 肅川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間或發穗, 春牟今始胚胎, 早黍粟日漸向青, 晚黍粟稷唐木花 舉皆立苗, 早稻耕種已畢, 晚稻豆太耕播伊始,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今始胚胎, 春牟日益茁長, 早黍粟間或立苗, 晚黍粟稷唐木花 已盡耕播, 早稻始耕,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向青, 火粟畢耕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4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서·영유는 2서가 내렸고, 숙천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는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올벼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날로 더욱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벼는 땅을 갈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푸르러지고, 화속은 땅 갈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  
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46. 1864년(고종 1) 5월 6일(양력 6월 9일)

道內農形及雨澤, 已爲馳啓爲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已盡發穗, 春麴方張發穗, 早黍粟初鋤已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初鋤伊始, 晚稻豆太次第立苗,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麴麥日漸發穗, 春麴次第胚胎, 早黍粟方始初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舉皆立苗, 晚稻豆太 耕播已畢,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麴方苗, 火粟立苗是如爲白乎旃. 臣營下 當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如乎. 列邑所得,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중산·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맺고, 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차례로 싹이 돋고 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차례로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늦벼·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쳤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막 싹이 자라고, 화속은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당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것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647. 1864년(고종 1) 5월 16일(양력 6월 19일)

道內農形 及臣營下本月初六日得雨一寸二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龍川·慈山·殷山·順川·德川·孟山·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祥原·成川·陽德·泰川·龜城等二十一邑, 得一犁, 郭山·嘉山·義州·三登·熙川等五邑, 得二鋤, 中和·江東·寧邊·雲山·渭原·楚山·定州·朔州等八邑, 得一鋤, 价川·博川 溫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今方向熟, 春牟方張入實, 早黍粟再鋤伊始,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初鋤垂畢, 晚稻豆太 次第苗青,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日漸入實, 春牟次第發穗, 早黍粟初鋤已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初鋤伊始, 晚稻豆太 方始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間或胚胎, 火粟向青是如爲白乎旆. 臣營下 今十四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當日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手. 列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에 내린 비가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용천·자산·은산·순천·덕천·맹산·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상원·성천·양덕·태천·구성 등 2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광산·가산·의주·삼등·희천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중화·강동·영변·운산·위원·초산·정주·삭주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개천·박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익어가고, 봄보리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차례로 싹이 푸르러집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광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알

이 들고, 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간혹 알을 배고, 화속은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4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48. 1864년(고종 1) 5월 26일(양력 6월 29일)

道內農形 及臣營下本月十四日得雨七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嘉山·泰川·熙川等三邑, 川渠漲滿, 祥原·德川·寧遠·价川·孟山等五邑, 川渠微漲, 慈山·安州·寧邊等三邑, 得二犁, 順安·三和·三登·江東·成川·殷山·宣川·鐵山·龍川·義州·雲山·博川·龜城等十三邑, 得一犁, 永柔·中和, 得二鋤, 平壤·肅川·龍岡·咸從·甑山·定州·郭山·朔州·昌城·碧潼·陽德等十一邑, 得一鋤, 江西 溫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間或刈取, 春牟次第向熟, 早黍粟再鋤垂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再鋤伊始, 晚稻豆太方始初鋤,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今方向熟, 春牟日漸入實, 早黍粟方張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已盡初鋤, 晚稻豆太 立苗向長, 江界之三川慈城兩訪段, 春牟今始入實, 火粟初鋤伊始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4일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가산·태천·회천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상원·덕천·영원·개천·맹산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자산·안주·영변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순안·삼화·삼등·강동·성천·은산·선천·철산·용천·의주·운산·박천·구성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유·중화는 2서가 내렸고, 평양·숙천·용강·함중·증산·정주·곽산·삭주·창성·벽동·양덕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서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선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베어 거두고, 봄보리는 차례로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

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익어 가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콩·팥은 싹이 돋아 자라고 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지금 알이 들기 시작하였고, 화속은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49. 1864년(고종 1) 6월 6일(양력 7월 9일)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春秋粳麥 幾盡收穫, 早黍粟三鋤伊始,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再鋤幾畢, 晚稻豆太 初鋤垂畢,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春秋粳麥 間或刈取, 早黍粟 再鋤已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再鋤伊始, 晚稻豆太 今方初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舉皆向熟, 火粟已盡初鋤是如爲白乎旆. 江西·龍岡·咸從三邑, 惜乾頗久, 野畚枯涸, 鋤役失時, 田穀亦多萎損之患, 民情不啻如渴, 故祈雨祭, 不卜日設行是如爲白乎旆. 外他清南各邑, 畚農稍多處, 亦令觀勢設行是白乎所. 見今夏序已半, 旱憂如此, 言念穡事, 誠極悶然, 緣由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수확하였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간혹 베어 거두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합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화속은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강서·용강·함종 3개 고을은 가뭄이 자못 오래되어 들판 논은 말라버려 김매기 시기를 놓쳤고, 밭곡식 또한 시들어 손상될 근심이 많습니다. 백정들의 심정은 애달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않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청천강 남쪽

각 고을의 경우 논농사가 조금 많은 곳 또한 형세를 보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여름 절기가 이미 절반인데 가뭄 근심이 이와 같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650. 1864년(고종 1) 6월 12일(양력 7월 15일)

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 本月初九日寅時量始雨，或霪或灑，至十二日卯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五寸九分是白如乎。渴望之餘，得此優洽，言念民事，誠爲萬幸，江西·龍岡·咸從等三邑，祈雨祭 並令停止爲白乎旆。列邑之均霑與否，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9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9푼이었습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넉넉하게 흠족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강서·용강·함종 등 3개 고을은 기우제를 모두 중지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고루 적셨는지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51. 1864년(고종 1) 6월 16일(양력 7월 19일)

臣營下 自本月初九日 十二日至雨澤 及江西等三邑, 祈雨祭停止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江西·肅川等三邑, 江川漲滿, 慈山·殷山·寧遠·三登·江東·陽德·順安·安州·龍岡·嘉山·寧邊·雲山·博川等十三邑, 川渠微漲, 中和·永柔·咸從等三邑, 得二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方張再鋤, 間或胚胎, 晚黍粟稷唐早籍木花三鋤過半, 晚稻豆太幾盡再鋤, 根豆木麥舉皆耕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幾盡三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次第再鋤, 晚稻豆太 再鋤伊始, 根豆木麥今方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防段, 春粳今纔刈取, 隨即根耕, 火粟今始再鋤是如爲白乎所. 兩麥已盡登場, 全省可謂免歉, 言念民事, 誠爲萬幸是白乎旆.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9일부터 12일까지의 우택 및 강서 등 3개 고을의 기우제 중지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강서·숙천 등 3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가득 찼고, 자산·은산·영원·삼등·강동·양덕·순안·안주·용강·가산·영변·운산·박천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중화·영유·함중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는데 간혹 알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 하였고, 늦벼·콩·팥은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대부분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지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지금 막 베어 거두는데 곧바로 그루같이하고, 화속은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보리와 밀은 이미 다 타작하였는데, 평안도 전체적으로는 흉작은 벗어났다고 할만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 0652. 1864년(고종 1) 6월 26일(양력 7월 29일)

道內農形 及本月十二日至 各邑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定州·郭山·宣川·義州·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九邑, 江川漲滿, 价川·德川·鐵山·龍川等四邑, 川渠微漲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殷山·慈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胚胎, 今方發穗, 晚黍粟稷唐早稻 日漸胚胎, 木花方始起花, 晚稻豆太 次第三鋤, 根豆木麥 初鋤伊始,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 三鋤已畢, 幾盡胚胎,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方張三鋤, 晚稻豆太 再鋤垂畢, 根豆木麥 舉皆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再鋤已訖, 根豆木麥 間或立苗是如爲白乎旆. 臣營下 本月二十日辰時量又雨, 或霏或灑, 乍陰乍陽, 至二十五日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五寸六分是白如乎. 列邑所得,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2까지 각 고을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정주·곽산·선천·의주·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9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가득 찼고, 개천·덕천·철산·용천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은산·자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알을 댔는데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점점 알을 배고, 목화는 막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는데 거의 다 알을 댔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대부분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두벌 김매기

를 이미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간혹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0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것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53. 1864년(고종 1) 6월 29일(양력 8월 1일)

道內農形 及臣營下 本月二十五日至 得雨五寸六分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肅川·郭山·寧遠等五邑, 江川漲溢, 宣川·雲山·泰川等三邑, 江川漲滿, 中和·安州·嘉山等三邑, 川渠微漲是如爲白乎旃. 二十七日戌時量又雨, 二十八日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是白如乎. 列邑之前後所得,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5까지 내린 비가 5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숙천·곽산·영원 등 5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고, 선천·운산·태천 등 3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가득 찼고, 중화·안주·가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7일 술시쯤에 또 비가 내리다가 28일 사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지금까지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54. 1864년(고종 1) 7월 6일(양력 8월 7일)

去月二十九日至 得雨二寸六分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肅川·安州·定州·郭山·三和·殷山·雲山等九邑, 江川漲滿, 中和 得二犁是如爲白乎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漸次入實, 晚黍粟稷唐早稻 間或發穗, 木花今方結穎, 晚稻胚胎, 豆太起花, 根豆木麥 再鋤伊始,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已盡胚胎 今方發穗, 晚黍粟稷唐早稻 日漸胚胎, 木花方始起花, 晚稻豆太 次第三鋤, 根豆木麥初鋤伊始,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次第三鋤, 根豆木麥 已盡立苗是如爲白乎跡. 臣營下 本月初五日亥時量又雨, 或霏或霑, 至當日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九分, 而陰雲尚翳 迄無霽意是白如乎. 一雨跨朔, 霏霑爲災, 長養各穀, 無不受瘡, 言念穡事, 不勝憂悶, 列邑雨澤多寡, 嗣後農形利害,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까지 내린 비가 2치 6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숙천·안주·정주·곽산·삼화·은산·운산 등 9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가득 찼고, 중화는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점차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목화는 지금 막 다래를 맺고, 늦벼는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알을 뻗는데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점점 알을 배고, 목화는 막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5일 해시쫘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당일 술시쫘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9푼이었고, 먹구름이 아직도 끼어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한차례 비가 한 달에 걸친 장마로 재해가 되었으니, 잘 자란 각종 곡식은 손상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양과 이후 농사 상황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55. 1864년(고종 1) 7월 16일(양력 8월 17일)

去月二九日 平壤等十邑雨澤 及臣營下 本月初六日至 得雨三寸九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肅川·定州等四邑, 江川漲溢, 三和 川渠微漲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日漸向熟, 晚黍粟稷唐早稻 間或入實, 木花早顆向綻, 晚稻方張發穗, 豆太次第結殼, 根豆木麥 再鋤垂畢, 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次第入實, 晚黍粟稷唐早稻 已盡發穗, 木花今方結顆, 晚稻胚胎, 豆太起花, 根豆木麥 再鋤伊始,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三鋤幾訖, 根豆木麥 方張初鋤是如爲白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의 평양 등 10개 고을의 우택 및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6일까지 내린 비가 3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숙천·정주 등 4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고, 삼화는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간혹 알이 들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숨이 터지고, 늦벼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콩·팥은 차례로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지금 막 다래를 맺고, 늦벼는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56. 1864년(고종 1) 7월 26일(양력 8월 27일)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 次第登熟, 晚黍粟稷唐早稻 日漸向熟, 木花顯房漸綻, 晚稻已盡發穗, 豆太過半結殼, 根豆木麥 今方起花,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間或向熟, 晚黍粟稷唐早稻 日漸入實, 木花顯房漸堅, 晚稻今始發穗, 豆太方張結殼, 根豆木麥 再鋤垂畢,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舉皆胚胎, 根豆木麥 已訖初鋤是如爲白乎旅. 臣營下 本月二十五日亥時量又雨, 至當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是白乎所.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익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점 터지고, 늦벼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콩·팥은 절반 이상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지금 막 꽃이 핍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혹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점점 알이 들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점 단단해지고, 늦벼는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하였고,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대부분 알을 뻗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이미 초벌 김매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5일 해시쯤에 또 비가 내리다가 당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57. 1864년(고종 1) 8월 6일(양력 9월 6일)

道內農形及 去月二十六日 得雨一寸一分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江西·中和等四邑 得一犁, 熙川 得二鋤是如爲白乎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 已盡登熟, 晚黍粟稷唐早稻 次第成熟, 木花顯房始綻, 豆太幾盡結穀, 根豆木麥 爛熳起花,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昌城·朔州·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 今方成熟, 晚黍粟稷唐早稻 次第入實, 木花早顯向綻, 豆太過半結穀, 根豆木麥 今始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間或發穗, 根豆木麥 今方再鋤是如爲白乎旡. 去月二十四日驟雨, 祥原段, 東部西部南部等三面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 大如鳥卵, 小如大豆, 所經處 長爲七里許, 廣爲五里許, 而田穀與木花, 俱爲撲損是如爲白有臥乎所. 當此各穀成熟之時, 被災偏酷處, 民情可悶是白乎旡. 臣營下 今月初四日 申時量又雨, 至初五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是白如乎. 列邑所得,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6일에 내린 비가 1치 1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강서·중화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회천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익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차례로 익고, 목화는 다래방이 터지기 시작하였고, 콩·팥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익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차례로 알이 들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숨이 터져가고, 콩·팥은 절반 이상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간혹 이삭이 패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소나기예다, 상원의 경우, 동부·서부·남부 등 3개 면은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큰콩만 하며, 거쳐 간 곳의 길이는 7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밭곡식과 목화는 모두 두들겨 맞아 손상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익은 때에 피해가 매우 심한 곳의 백성 심정이 걱정스럽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4일 신시쯤에 또 비가 내리다가 초5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것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58. 1864년(고종 1) 8월 6일(양력 9월 6일)

道內農形及去月二十六日得雨二寸二分之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順安江西中和等四邑得一犁，熙川得二鋤是如爲白乎旆。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栗順川价川等十九邑，早黍粟已盡登熟晚黍粟稷唐早稻次第成熟木花顆房始綻豆·太幾盡結穀根豆木麥爛慢起花，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昌城朔州碧潼等二十三邑，早黍粟今方成熟晚黍粟稷唐早稻次第入實木花早顆向綻豆·太過半結穀根豆木麥今始起花，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火粟間或發穗根豆木麥今方再鋤是如爲白乎旆。去月十日驟雨祥原段東部西部南部等三面雨雹交下移時乃止雹狀大如鳥卵小如大豆所經處長爲七里許廣爲五里許而田穀兼木花俱爲傷損是如爲白有臥乎所。當此各穀成熟之時被災偏酷處民情可悶是白乎旆。臣營下今月初四日申時量又雨至初五日丑時量乃止，測雨器永深爲三寸是白如乎。列邑所得嗣後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 달 26일 내린 비가 2치 2푼인 연유는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 내린 비로 평양·순안·강서·중화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희천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율·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익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차례로 익어갔고 목화는 다래가 비로소 터졌고, 콩·팥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 한 콩·메밀은 콩·메밀은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창성·삭주·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익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목화 중 일찍 맺은 다래는 터지고, 콩·팥은 절반 이상 거의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비로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의 2개 방의 경우, 화속(火粟)은 간혹 이삭이 났으며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달 10일 소나기가 내렸고, 상원의 경우, 동부·서부·남부 등 3개면에 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리다가 얼마 있다가 그대로 그쳤습니다. 우박의 형태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큰 콩만 했습니다. 지나간 곳은 길이는 7리쯤, 너비는 5리쯤이었습니다. 밭곡식과 목화는 모두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번 각종 곡식이 익어가던 시기에 재앙을 입은 곳은 매우 혹독하여 백성의 사정이 걱정스럽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4일 신시쯤에 또 비가 내렸고, 또 초5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이후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59. 1864년(고종 1) 8월 16일(양력 9월 16일)

去月二十四日祥原郡雨雹形止及臣營下本月初五日得雨三寸之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鐵山得二犁三和咸從郭山等三邑得二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間或刈獲晚黍粟稷唐早稻已盡成熟木花顆房盡綻晚稻豆太過半入實根豆木麥今方結殼,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方張登熟晚黍粟稷唐早稻過半入實木花顆房始綻晚稻間或成實豆太幾盡結殼根豆木麥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今方入實根豆木麥再鋤垂畢是如爲白乎旆. 今月初九日驟雨順安縣東面雨雹交下移時而止雹狀大如鵝卵小如鷄卵所經處長爲十里許廣爲三里許而田穀與木花俱爲傷損是如爲白有臥乎所. 當此各穀登熟之數邑雹時災殊爲可悶嗣後農形及各邑雨澤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4일 상원군에 우박의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5일 내린 비가 3치인 연유는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 비로 철산은 2려가 내렸고, 삼화·함중·곽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혹 베어서 수확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이미 다 익었고, 목화는 다래가 모두 터졌고, 늦벼·콩·팥은 절반 이상 알이 들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제 막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익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절반 이상 알이 들었고 목화는 다래가 터지기 시작했고, 늦벼는 간혹 여물었고, 콩·팥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꽃이 피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火粟)은 지금 막 알이 들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9일에 소나기가 내렸고, 순안현 동면은 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리다가 얼마

있다가 그대로 그쳤습니다. 우박의 형태는 큰 것은 거위알 만하고 작은 것은 계란만  
했습니다. 거쳐 간 곳은 길이가 10리쯤, 너비가 3리쯤이었습니다. 밭곡식과 목화는 모두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번 각종 곡식이 익어가던 여러 고을은 우박 때의 재앙이  
매우 걱정할 만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60. 1864년(고종 1) 8월 23일(양력 9월 23일)

節到付江界府使張仁遠牒呈內今夏霖雨三朔浸淫各穀無不受損田畝亦多汰落而七月初六日七日之雨一直暴霍江川漲溢本府七坪眞木館洞利坪慈下慈上長土閭延河山等九面民戶漂頽大戶爲五戶中戶爲二十三戶小戶爲九十二戶而隨處籌摘之際，自爾遲滯是如爲白有臥乎所。民家之漂頽若是夥多言念民情極爲矜憐其所冀接之方不容少緩乙仍于先自臣營各別顧助趨卽結構之意措辭題飭爲白乎旆。同漂頽戶原恤典依例題給後役姓名及穀數修成冊上送賑恤廳爲白去乎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강계부사 장인원의 문서 보고를 요약한 내용에,

“이번 여름 석 달 동안의 장맛비로 각종 곡식이 젖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논밭 또한 떨어져 나간 것이 많았습니다. 7월 초6일·초7일의 비가 줄곧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습니다. 본 관찰부의 칠평·진목·관동·이평·자하·자상·장토·여연·하산 등 9개면 백성 가구 중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의 경우, 대호가 5가구, 중호가 23가구, 소호가 92가구였습니다. 곳에 따라 계산할 즈음에 자연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백성 가구 중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이처럼 많으니 백성들의 정황을 생각하면 애달프기 그지없습니다.

머물러 지내는 방법을 조금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저의 감영에서 먼저 각별히 돌보아 주고 즉시 집을 지으라는 뜻으로 제음으로 지시했습니다. 위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의 기본 구호는 규정대로 제음을 준 후에 직역, 성명 및 곡식량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진휼청에 올려 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에서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 0661. 1864년(고종 1) 8월 26일(양력 9월 26일)

道內農形及本月初九日順安縣雨雹形止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幾盡刈穫晚黍粟稷唐早稻舉皆登熟木花今方摘取晚稻豆太已盡入實根豆木麴過半結穀,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間或刈取晚黍粟稷唐早稻今始成熟木花顆房盡綻晚稻豆太過半入實根豆木麥方張結穀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間間就熟根豆木麥已盡起花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9일 순안현 우박의 경위는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베어 수확을 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대부분 익었고 목화는 이제 막 숨을 뺐고, 늦벼·콩·팥은 이미 알이 들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절반 이상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혹 베어 거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막 익어가기 시작했고, 목화는 다래가 모두 터졌고, 늦벼·콩·팥은 절반 이상 알이 들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강계의 삼천과 자성의 2개 방의 경우, 화속(火粟)은 간간이 익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미 다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62. 1864년(고종 1) 9월 6일(양력 10월 6일)

道內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江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早黍粟已盡登場晚黍粟稷唐早稻今方刈獲術花過半摘取晚稻豆太幾盡成熟根豆木麥月漸入實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永遠孟山陽德富寧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早黍粟稷唐早稻方張登熟木化今始摘取晚稻豆太漸次向熟根豆木麥間或入實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火粟方始刈取根豆本麥已盡結穀是如爲白乎跡，去月二十三日夜朔州德川孟山陽德雲山宣川等六邑水霜降下是如爲白有臥乎所，見今秋序向晚穡事垂畢一路災實各邑分等更加詳探登聞計料緣由虛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의 경우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둥·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타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지금 막 베어 수했고, 묵화는 절반 이상 따서 거두었고, 늦벼·콩·팥은 거의 다 익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날로 점점 알이 들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수수·올벼는 한창 타작했고, 묵화는 이제 따서 거두었고, 늦벼·콩·팥은 점차 익어갔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간혹 알이 들었습니다. 강계의 삼천과 자성의 2개 방의 경우, 화속(火粟)은 막 베어 거두기 시작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23일 밤 삭주·덕천·맹산·양덕·운산·선천 등 6개 고을은 물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가을도 저물어가고 농사일도 마쳤습니다. 현재 온 도의 재실 각 고을의 등급은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63. 1864년(고종 1) 11월 14일(양력 12월 12일)

卽接義州府尹李正鉉本月十二日酉時成帖狀啓謄報內本府境鴨綠江上下流間間合氷是如爲白  
有臥乎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의주 부윤 이정현이 이번 달 12일 유시에 문서를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내용에,  
“본 의부지 지역 압록강 상하류가 간간이 얼음이 얼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64. 1865년(고종 2) 3월 6일(양력 4월 1일)

卽接各邑所報，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急十九邑，秋粳麥方始抽芽春粳隨其土解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見今餘寒尙峭耕作差晚是白加乎凡係課農之節另加申飭使之着念舉行爲白乎旆，外此諸邑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覽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막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봄보리는 땅이 풀리는 것에 따라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현재 남은 추위가 오히려 매서워 땅을 가는 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무릇 농사짓는 계절에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여 유념하여 거행토록 했습니다. 이밖에 여러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65. 1865년(고종 2) 3월 13일(양력 4월 8일)

承政院開坼

平壤等十九邑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本月十二日丑時量始雨或霏或霏至十三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是白如乎, 列邑所得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평양 등 19개 고을의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달 12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3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66. 1865년(고종 2) 3월 16일(양력 4월 11일)

臣營下今月十二日得雨三寸八分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江西三和三登等四邑得二犁中和順安江東甑山慈山殷山成川等七邑得一犁祥原得一鋤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次第抽芽春麴幾盡耕播, 嘉山定川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出陽德寧邊雲山熙川博川泰川龜城等十七邑, 秋麴麥今始抽芽春麴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嗣後農形, 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2일에 내린 비가 3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강서·삼화·삼등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중화·순안·강동·증산·자산·은산·성천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원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박천·태천·구성 등 17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봄보리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 및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67. 1865년(고종 2) 3월 21일(양력 4월 16일)

道內農形及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本月十九日亥時量始雨或霏或洒至二十一日寅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如乎。列邑所得多寡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畝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9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668. 1865년(고종 2) 3월 26일(양력 4월 21일)

本月二十一日得雨一寸四分之由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三和得一犁龍岡三登得二鋤中和咸從江東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乎旃. 臣營下今月二十三日卯時量始雨或霏或洒至二十四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一分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幾盡抽芽春牟間或立苗早黍粟方始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博川泰川龜城等十七邑, 秋牟麥過半抽芽春牟幾盡耕播, 江界渭原楚山朔州昌城碧潼等六邑, 秋牟麥方始抽芽春牟始耕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嗣後農形, 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1일 내린 비가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삼화는 1려가 내렸고, 용강·삼등은 2서가 내렸고, 중화·함중·강동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3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4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막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시작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박천·태천·구성 등 17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절반 이상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강계·위원·초산·삭주·창성·벽동 등 6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막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봄보리는 땅을 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69. 1865년(고종 2) 4월 6일(양력 4월 30일)

道內農形及去月二十四日得雨二寸一分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江西肅川三和慈山順川成川鐵山等九邑得一犁祥原三登龍岡等三邑得二鋤甌山中和殷山雲山郭山宣川定州龍川等八邑得一鋤龜城浥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間或向青春牟舉皆立苗早黍粟次第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秋牟麥幾盡抽芽春牟間或抽芽早黍粟始爲耕播, 江界之三川慈山兩坊段, 春牟始耕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嗣後農形, 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 달 24일에 내린 비가 2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강서·숙천·삼화·자산·순천·성천·철산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원·삼등·용강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증산·중화·은산·운산·곽산·선천·정주·용천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구성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은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푸르러졌고,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나왔고,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70. 1865년(고종 2) 4월 9일(양력 5월 3일)

道內農形及雨澤，前已馳啓爲自有在果臣營下今月初八日丑時量始雨或霪或洒至初九日辰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是白如乎，列邑所得多寡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8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진시쯤에 이르러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671. 1865년(고종 2) 4월 16일(양력 5월 10일)

本月初九日, 臣營下得雨二寸五分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永柔殷山順川龍川義州等七邑得一犁宣川鐵山得二鋤祥原甑山寧邊雲山龜城郭山等六邑得一鋤是如爲白乎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漸就茁茂春牟間或向青早稅粟已盡耕播晚黍粟稷唐木花今始耕種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江界熙川渭原楚山等二十三邑, 秋牟麥今始向青春牟幾盡抽芽早黍粟次第耕播, 江界之三川慈山兩坊段, 春牟半過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9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2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비로 평양·순안·영유·은산·순천·용천·의주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선천·철산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상원·증산·영변·운산·구성·곽산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밀은 점차 싹이 무성해졌고, 봄보리는 간혹 푸르러졌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강계·회천·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밀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하고, 봄보리는 거의 다 싹이 나왔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72. 1865년(고종 2) 4월 26일(양력 5월 20일)

道內農形及本月初九日雨，平壤等十五邑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江西龍岡三和咸從肅川嘉山等六邑得二鋤中和三登江東成川陽德慈山价川德川等八邑得一鋤是如爲白乎旃，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牟麥今始胚胎春牟日漸茁茂早黍粟間或立苗晚黍粟稷唐木花已盡畊播早稻方始畊種德川寧遠陽德孟山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秋牟麥日益茁長春粳舉皆向青早黍粟幾盡畊播晚黍粟稷唐木花畊種伊始江界之三川慈山兩坊段，春粳今已畢畊間或立苗火粟始畊是如爲白有臥乎所，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似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9일의 비로 평양 등 15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서·용강·삼화·함중·숙천·가산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중화·삼등·강동·성천·양덕·자산·개천·덕천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밀은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해졌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벼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천·영원·양덕·맹산·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밀은 날로 더욱 싹이 자랐고,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졌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지금 이미 땅 갈기를 마쳤고 간혹 싹이 돋았고, 화속은 땅을 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73. 1865년(고종 2) 4월 30일(양력 5월 24일)

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本月二十九日子時量始雨或灑或霑當日午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列邑所得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9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당일 오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674. 1865년(고종 2) 5월 6일(양력 5월 30일)

去月二十九日得雨八分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中和三和等三邑得一犁順安永柔咸從甑山等四邑得二鋤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等七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間或發穗春牟今始胚胎早黍粟初鋤伊始晚黍粟稷唐早稻木花幾盡立苗晚稻豆太方始耕種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焚山等二十三邑, 秋牟麥今始胚胎春牟日漸茁茂早黍粟間或立苗晚黍粟稷唐木花耕種已畢早稻耕播方始江界之三川慈山兩坊段, 春牟已盡立苗火粟畢耕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雨澤嗣後農形, 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달 29일 내린 비가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중화·삼화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순안·영유·함중·중산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밀은 간혹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벼·콩·팥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해졌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쳤고 올벼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막 시작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화속은 땅 갈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75. 1865년(고종 2) 5월 16일(양력 6월 9일)

道內農形及去月二十九日雨，平壤等十四邑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白之雨江西龍岡肅川安州等四邑得二鋤博川泰川嘉山定州郭山宣川等六邑得一鋤是如爲白乎旡。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牟麥已盡發穗次第入實春牟間或發穗早黍粟初鋤已畢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伊始晚稻豆太日漸立苗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秋牟麥今始發穗春牟間或胚胎早黍粟方張初鋤晚黍粟稷唐早稻木花幾盡立苗晚稻豆太方始耕種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牟苗茂火粟始苗是如爲白有臥乎所。嗣後農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 달 29일의 비로 평양 등 14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서·용강·숙천·안주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박천·태천·가산·정주·곽산·선천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이삭이 켜고 차례로 알이 들었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켜고, 올기장·올조는 초벌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벼·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돋았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이삭이 켜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간혹 알을 뻗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벼·콩·팥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싹이 무성해졌고 화속은 어린 싹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76. 1865년(고종 2) 5월 23일(양력 6월 16일)

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本月二十二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至亥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列邑所得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2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해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677. 1865년(고종 2) 5월 26일(양력 6월 19일)

本月二十二日, 臣營下得雨五分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中和祥原三登江東慈山等十三邑得一鋤是如爲日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幾盡入實春牟次第發穗早黍粟方始再鋤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過半晚稻豆太舉皆立苗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已盡發穗春牟舉皆胚胎早黍粟初鋤已畢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伊始晚稻幾盡耕種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間或胚胎火粟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雨澤嗣後農形, 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2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를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중화·상원·삼등·강동·자산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했고, 늦벼·콩·팥은 대부분 싹이 돋았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대부분 알을 뻗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벼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간혹 알을 뻗고 화속은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78. 1865년(고종 2) 윤5월 6일(양력 6월 28일)

道內農形及去月二十二日雨，平壤等十三邑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咸從甌山成川陽德殷山順川价川德川寧遠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等十四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農形段，平壤順安永更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牟麥次第向熟春牟幾盡入實早黍粟再鋤垂畢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已訖晚稻豆太初鋤伊始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秋牟麥幾盡入實春牟次第發穗早黍粟方始再鋤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過半晚稻豆太舉皆立苗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牟舉皆胚胎火粟已盡立苗是如爲白乎旆，四月以後惜乾頗久而去月念後之雨鋤浥而止仍又一直亢旱田種之間多萎枯根畊之漸致失時殆乎無邑不然而畚稼水付之方長立苗者在在乾涸所見遑汲是如江西甌山兩邑請行祈雨祭爲白乎等以不卜日虔誠設行之意措辭題飭爲白遣外此列邑段置隨其緩急使之次第設行計料爲白乎所夏至已過早憂如此言念民事萬萬渴悶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 달 22일의 비로 평양 등 13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함중·증산·성천·양덕·은산·순천·개천·덕천·영원·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익어갔고, 봄보리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했고, 늦벼·콩·팥은 대부분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대부분 알을 뺏고 화속은 이미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4월 이후로 가뭄이 자못 오래되었는데, 지난 달 20일 이후의 비는 1서나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어 또 줄곧 가뭄이 들어 밭에 씨앗을 뿌린 곡식은 그사이 시들고 메마른 것이 많았고, 그루같이할 것은 점차 다 시기를 놓쳤는데 그렇지 않는 고을이 거의 없습니다. 물을 댄 논농사는 한창 싹이 돋았는데 곳곳이 메말라서 보기에 물대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강서, 증산 두 고을에서는 기우제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밖에 여러 고을의 경우, 다급한 정도에 따라서 차례대로 시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가뭄 근심이 이와 같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매우 애타고 걱정스럽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79. 1865년(고종 2) 윤5월 13일(양력 7월 5일)

道內農形及江西等邑祈雨祭不卜日設行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淸南各邑次第請報中和三次平壤祥原成川咸從等四邑各二次龍岡江西甑山順安江東等五邑各一次設行是如爲白乎所圭壁屢舉靈應尙遲民情轉益渴悶雩禱連加申飭而臣亦於今十三日虔誠祈雨於平壤崇仁殿爲白遣境內各處祭壇觀勢遍行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강서 등 고을에서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않고 시행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청천강 남쪽 각 고을에서 차례대로 요청하고 보고했는데, 중화는 3차례, 평양·상원·성천·함중 등 고을은 2차례, 용강·강서·중산·순안·강동 등 5개 고을은 1차례 기우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기우제를 여러 번 거행했는데 신령의 감응은 아직 지체되고 백성들의 사정은 갈수록 애타고 걱정이어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연이어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번 13일에 평양 숭인전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비오기를 빌었습니다. 지역 내 각 곳의 제단에서는 형세를 살펴 두루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80. 1865년(고종 2) 윤5월 16일(양력 7월 8일)

本月十三日中和等十邑祈雨祭設行臣亦躬禱崇仁殿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中和祥原咸從等三邑三次順安永柔肅川甑山慈山龍岡江東博川等八邑二次三和三登安州陽德等四邑各一次設行是如爲白乎旆。臣營下今十四日寅時量始雨或霖或灑至酉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江西得二犁順安江東得一犁是如爲白乎所久旱渴望之餘得此甘澍言念民事誠爲萬幸臣營下祈雨祭姑爲停止爲白乎旆。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牟麥方張刈取春牟已盡向熟黍粟三鋤伊始晚黍粟稷唐早稻木花再鋤過半晚稻豆太初鋤垂畢，根豆木麥間或耕播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秋牟麥舉皆成熟春牟次第向熟早黍粟再鋤垂畢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已訖晚稻豆太初鋤過半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牟幾盡入實火粟方張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列邑雨澤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 중화 등 10개 고을의 기우제를 시행했고 저도 또한 몸소 승인전에서 기도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중화·상원·함중 등 3개 고을은 3차례, 순안·영유·숙천·증산·자산·용강·강동·박천 등 8개 고을은 2차례, 삼화·삼등·안주·양덕 등 4개 고을은 1차례 시행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4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8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강서는 2려가 내렸고, 순안·강동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오랜 가뭄에 애타고 갈망하던 나머지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이고 저의 감영의 기우제를 일단 중지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베어서 거두었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익어갔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

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했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할 콩·메밀은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익었고, 봄보리는 차례로 익어갔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화속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의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81. 1865년(고종 2) 윤5월 26일(양력 7월 18일)

道內農形及本月十四日平壤等四邑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龜城宣川兩邑得二犁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郭山鐵山龍川義州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川陽德慈山殷山順川价川寧邊雲山熙川博川泰川朔州等二十八邑得一犁德川寧遠江界等三邑得二鋤祈雨祭并爲停止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兩麥已盡登場方張根耕早黍粟三鋤垂畢晚黍粟稷唐早稻木花再鋤已訖晚稻豆太再鋤伊始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兩麥幾盡刈穫間或根耕早黍粟方始三鋤晚黍粟稷唐早稻木花今方再鋤晚稻豆太初鋤幾畢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已盡成熟間或刈取火粟再鋤伊始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二十三日亥時量始雨或灑或霏至二十四日午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如乎. 列邑雨澤嗣後農形, 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4일에 평양 등 4개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구성·선천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영유·숙천·안주·가산·정주·곽산·철산·용천·의주·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성천·양덕·자산·은산·순천·개천·영변·운산·회천·박천·태천·삭주 등 2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덕천·영원·강계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기우제는 모두 정지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보리·밀은 이미 다 타작을 했고, 한창 그루같이하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보리·밀은 거의 다 베어 수확했고 간혹 그루같이하고, 올기장·올조는 막 세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이미 다 익었고 간혹 베어 거두었고, 화속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3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4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82. 1865년(고종 2) 6월 3일(양력 7월 25일)

去月二十四日，臣營下得雨一寸二分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順安永柔中和江西等五邑得一犁祥原三登成川龍岡等四邑得二鋤，慈山殷山兩邑得一鋤是如爲白乎旡。臣營下今月初二日寅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是白如乎。列邑所得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달 24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중화·강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원·삼등·성천·용강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자산·은산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2일 인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83. 1865년(고종 2) 6월 6일(양력 7월 28일)

道內農形及去月二十四日平壤等十一邑雨澤本月初三日得雨二寸八分之由，纔已馳啓爲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去月二十日之雨順川价川江東陽德等四邑得一犁安州德川寧遠孟山寧邊熙川江界渭原朔州等九邑得二鋤今月初三日之雨，平壤得二犁順安永柔三和三登江西等五邑得一犁中和肅川兩邑得二鋤是白遣。臣營下今初四日巳時量始雨霑灑申時至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而仍爲開霽是白乎旆。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早黍粟三鋤已畢晚粟稷唐早稻木花三鋤方張晚稻豆·太再鋤已訖根豆木麥次第耕種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早黍粟三鋤垂畢晚黍粟稷唐早稻木花今方三鋤晚稻豆·太三鋤伊始根木麥方張畔播，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粳畢獲隨即根畔是如爲白有臥乎所。兩麥已皆登場而發穗之後一直旱乾舉皆徑枯春粳尤甚毋論清南北俱未免歛荒農節艱食民情可悶是白遣。近日雨澤尙未周洽清北各邑，去月十日僅得鋤犁之後仍于慳悶沿野畚農稍多處尤極渴悶而定州段今月初二日祈雨祭設行是如爲白有在乎。見今中庚已廟秋序不遠而霑澤尙靳淒風甚乖言念穡事萬萬悶然緣由并以馳啓爲下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 달 24일 평양 등 11개 고을의 우택과 이번 달 초3일에 내린 비가 2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 달 20일의 비로 순천·개천·강동·양덕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주·덕천·영원·맹산·영변·회천·강계·위원·삭주 등 9개 고을은 2서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 초3일의 비로 평양은 2려가 내렸고, 순안·영유·삼화·삼동·강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중화·숙천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4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

를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지금 막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콩·팥은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수확을 마치자 즉시 그루같이를 했다고 합니다. 밀·보리는 이미 모두 타작했고 이삭이 팬 후 줄곧 가물어서 대부분 지레 말랐고, 봄보리는 더욱 심합니다. 청천강 남쪽과 북쪽을 따지지 않고 모두 흉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농사철에도 먹기 어려우니 백성들의 심정은 걱정입니다. 요즈음 우택은 아직 두루 충분하지 못하여 청천강 북쪽의 각 고을은 지난 달 10일에 겨우 1서나 1려가 내린 뒤에도 이어 가물어서 강가나 들판의 논농사는 조금 많은 곳이 더욱 애타고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정주의 경우, 이번 달 초2일에 기우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복이 이미 닳쳤고 가을이 멀지 않았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혜택은 여전히 없었고 서늘한 바람으로 매우 어그러졌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매우매우 걱정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84. 1865년(고종 2) 6월 16일(양력 8월 7일)

道內農形及今月初四日得雨二寸四分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博川定州德川孟山等九邑得一犁中和祥原三登慈山殷山郭山鐵山雲山熙川等九邑得二鋤定州段祈雨祭停止是白遣。臣營下今月十二日卯時量始雨霑灑十三日酉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而仍爲開霽是白乎旆。農形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早黍粟間或胚胎晚黍粟稷唐早稻三鋤已畢木花間間起花晚稻豆太三鋤已訖根豆木麥今方初鋤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早稷粟已盡三鋤晚黍粟稷唐早稻木花三鋤垂畢晚稻豆太再鋤過半根豆木麥舉皆立苗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火粟三鋤方張根豆木麥間始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列邑雨澤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4일에 내린 비가 2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박천·정주·덕천·맹산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중화·상원·삼등·자산·은산·곽산·철산·운산·희천 등 9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정주의 경우 기우제를 중지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2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3일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혹 알을 뻗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묵화는 간간이 꽃이 피었고, 늦벼·콩·팥은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묵화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 했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대부분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세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그사이 싹이 돋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85. 1865년(고종 2) 6월 26일(양력 8월 17일)

今月十三日雨營下水一寸五分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鐵山龍川義州等十三邑，川渠微漲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陽德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寧遠孟山嘉山定州郭山宣川昌城碧潼等二十九邑得一犁是白遣，臣營下今十八日亥時量始雨霑灑二十日寅時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而仍爲開霽是白乎旃，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早黍粟次第發穗晚黍粟稷唐早稻方長胚胎木花方始結穎晚稻胚胎豆太起花根豆木麥初鋤已畢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早黍粟舉皆胚胎晚黍粟稷唐早稻間或胚胎木花今方起花晚稻豆太三鋤方張根豆木麥初鋤伊始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火粟三鋤已訖根豆木麥已盡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列邑雨澤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의 비로 감영에 물이 1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철산·용천·의주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양덕·자산·은산·순천·개천·덕천·영원·맹산·가산·정주·곽산·선천·창성·벽동 등 29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8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0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이삭이 났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한창 알을 뻗고, 목화는 막 다래를 맺기 시작했고, 늦벼는 알을 뻗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

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알을 뻗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간혹 알을 뻗고 목화는 지금 막 꽃이 피었고, 늦벼·콩·팥은 세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이미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86. 1865년(고종 2) 7월 3일(양력 8월 23일)

去月二十日，臣營下得雨二寸二分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博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成川陽德慈山殷山順川等十六邑得一犁中和祥原三登江東等四邑得二鋤是如爲白乎旆，臣營下去月二十六日申時量始雨或霏或洒乍陰乍陽今初二日午時開霽測雨器水深合爲九寸是白如乎，列邑所得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0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2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박천·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성천·양덕·자산·은산·순천 등 1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중화·상원·삼등·강동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 달 26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렸고, 잠깐잠깐 흐렸다가 별이 나면서 이번 초2일 오시에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은 총 9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87. 1865년(고종 2) 7월 6일(양력 8월 26일)

今月初二日, 臣營下水深九寸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日之雨嘉山定州郭山价川德川寧遠孟山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十二邑得二犁寧邊雲山熙川渭原楚山宣川鐵山龍川義州江界等十邑, 川渠微漲. 今初二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陽德孟山殷山順川等十五邑, 川渠微漲寧遠慈山三和咸從甑山博川泰川龜城朔州等九邑江川漲滿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初三日戌時量又雨或灑或霏乍陰乍暘當日未時至測雨器水深爲六寸四分而一向洒霏尙無開霽之望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漸次入實晚黍粟稷唐早稻間間發穗木花方張結顆晚稻已盡胚胎豆太次第起花根豆木麥再鋤伊始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次第發穗晚黍粟稷唐早稻已盡胚胎木花今方結顆晚稻方張胚胎豆太間或起花根豆木麥初鋤垂畢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日漸胚胎根豆木麥今始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嗣後豐形, 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2일에 저의 감영에 수심이 9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 달 20일의 비로 가산·정주·곽산·개천·덕천·영원·맹산·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1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영변·운산·회천·위원·초산·선천·철산·용천·의주·강계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습니다. 이번 초2일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중화·상원·삼둥·강동·성천·양덕·맹산·은산·순천 등 1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영원·자산·삼화·함중·중산·박천·태천·구성·삭주 등 9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3일 술시쯤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잠깐잠깐 흐리다가 별이 났다가 당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4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줄곧 뿌리고 주룩주룩 내리면서 오히려 개일 가망이 없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둥·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점차 알이 들었고, 늦기장·

늦조·수수·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뻗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늦벼는 이미 다 알을 뻗고, 콩·팥은 차례로 꽃이 뻗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이삭이 뻗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이미 다 알을 뻗고 목화는 지금 막 다래를 맺고, 늦벼는 한창 알을 뻗고 콩·팥은 간혹 꽃이 피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날로 점점 알을 뻗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0688. 1865년(고종 2) 7월 9일(양력 8월 29일)

節到付朔州府使李昌漢牒呈內去月二十一日之雨連日暴霍川渠漲溢峽谷汰落本府白呂東倉驛只等三坊民家頽壓大戶爲二戶中戶爲五戶小戶爲十八戶壓死人爲九人是如爲白乎跡. 連接昌城府使李文永牒呈內去月二十一日之雨七日連霍山汰江漲本府恃寨青山兩面民家頽壓小戶爲六十九戶壓死人爲四十三人而待水退摘奸之際, 日子俱至遲滯是如爲白有臥乎所. 當此農節極備爲災漂頽渰壓若是夥多言念民情極爲驚慘其所結構掩埋之節不容少緩乙仍于先自臣營拔例顧恤之意措辭題飭於各其邑爲乎叅同頽壓戶及壓死人等原恤典依例題給後役姓名及穀數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도착한 삭주 부사의 이창한의 문서 보고를 요약한 내용에,

“지난 달 21일의 비가 매일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쳐 산골짜기는 사태가 났습니다. 본 삭주부 백려·동창·역지 등 3개 방에서는 백성 집이 무너졌는데 대호는 2가구, 중호는 5가구, 소호는 18가구였고, 깔려 죽은 사람은 9명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연이어 창성 부사 이문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지난 달 21일의 비가 7일 연이어 주룩주룩 내려 산은 사태가 나고 강은 불어나서 본 창성부의 시채·청산 등 2개면의 백성 집이 무너졌는데 소호는 69가구, 깔려죽은 사람은 43명이었습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 불 즈음에 날짜가 모두 지체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농사철에 그지없이 갇가지로 재해를 입어 떠내려가거나 물에 빠져죽거나 깔려 죽은 것이 이처럼 많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놀랍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집을 짓거나 매장하는 절차는 조금도 늦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저의 감영에서 사례를 뽑아 돌봐주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각 고을에 제음으로 지시했습니다. 위의 무너진 가구나 깔려죽은 사람들의 경우, 기본 구호는 규정대로 제음을 준 후에 직역, 성명 및 곡식 양을 성책으로 작성으로 진홀청에 올려 보냈습니다. 해당 진홀청에서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 0689. 1865년(고종 2) 7월 16일(양력 9월 5일)

今月初二日平壤等二十四邑雨澤初六日，臣營下得雨六寸四分形止及道內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今初二日以後連日霏下順安咸從孟山三登江東甑山三和博川龜城泰川龍岡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朔州昌城碧潼等二十六邑江川漲溢早晚各穀在在沉墊黍粟之向熟垂穎者舉皆生角就中朔州昌城兩邑段去月二十一日之雨晝夜暴霏山谷汰落民家之漂頽人命之淦壓景色愁慘已有別啓是白遣。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早黍粟漸次向熟晚黍粟稷唐早稻方始入實木花顆房漸堅晚稻發穗豆太結穀根豆木麥再鋤垂畢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早黍粟次第入實晚黍粟稷唐早稻間或發穗木花今方結顆晚稻胚胎豆太起花根豆木麥再鋤伊始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火粟間間發穗根豆木麥初鋤連垂畢是如爲白乎旃。臣營下今初六日以後一向寢霏間或霏下初十日至測雨器水深合爲九寸六分而數日乍霽又於十五日午時量或霏或灑十六日卯時至水深爲三寸是白如乎一雨跨月痒稼旣多西農稍早收穫伊始而尙無霽意尤爲悶然是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2일 평양 등 24개 고을의 우택과 초6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6치 4푼인 경위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초2일 이후로 연일 주룩주룩 내렸는데, 순안·함중·맹산·삼등·강동·중산·삼화·박천·구성·태천·용강·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삭주·창성·벽동 등 26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습니다. 올곡식이든 늦곡식이든 각종 곡식은 곳곳에서 잠기었고, 익어가고 고개를 수그렸던 기장과 조는 대부분 뿔이 났습니다. 그 중 삭주와 창성 두 고을의 경우, 지난 달 21일의 비가 밤낮으로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산골짜기는 사태가 났고 백성 집은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사람은 물에 빠져죽거나 깔리는 모습이 서글프고 처참하여 이미 별도로 보고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점차 익어갔고, 늦기장·늦

조·수수·올벼는 막 알이 들기 시작했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차 단단해졌고, 늦벼는 이삭이 뻗고 콩·팥은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간혹 이삭이 뻗고 목화는 지금 막 다래를 맺고, 늦벼는 알을 뻗고 콩·팥은 꽃이 피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간간이 이삭이 뻗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연이어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6일 이후로 줄곧 장졌는데 내리거나 간혹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10일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은 9치 6푼이었습니다. 여러 날 언듯 개였다가 또 15일 오시쯤에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였습니다. 한 달 넘게 줄곧 비가 내려 곡식에 병든 것이 이미 많고 추수는 조금 이르게 거둬들이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개일 조짐이 없으니 더욱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90. 1865년(고종 2) 7월 22일, 26일(양력 9월 11일, 15일)

道內農形及臣營下今月十六日水深三寸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肅川兩邑, 川渠微漲, 三登得二犁安州德川江東等三邑得一犁慈山得二鋤郭山龜城熙川等三邑得一鋤是如是白遣. 又於十九日午時量始雨或霏或霏二十一日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六寸是白乎旃.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方始刈穫晚黍粟稷唐早稻漸次向熟木花早顆漸綻晚稻舉皆入實豆·太幾盡結穀根豆木麥爛漫起花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今方向熟晚黍粟稷唐早稻日就成實木花顆房漸堅晚稻今始發穗豆·太間或結穀根豆木麥再鋤垂畢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間間入實根豆木麥再鋤伊始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雨澤嗣後農形, 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6일에 수심이 3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숙천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삼등은 2려가 내렸고, 안주·덕천·강동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자산은 2서가 내렸고, 광산·구성·회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19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1일 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막 베어 수확하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점차 익어갔고 목화는 이른 것은 다래가 점차 터졌고, 늦벼는 대부분 알이 들었고, 콩·팥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광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익어갔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날로 알이 여물었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차 단단해졌고, 늦벼는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하고 콩·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간간이 알이 들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91. 1865년(고종 2) 8월 6일(양력 9월 25일)

去月十六日平壤等十邑雨澤二十一日，臣營下得雨六寸形止及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去月十六日之雨順安永柔殷山順川价川嘉山定州宣川鐵山博川泰川朔州昌城等十三邑得一犁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成川陽德等九邑得二鋤二十日之雨，平壤順安永柔肅川江西龍岡三和中和祥原三登江東慈山等十二邑，川渠漲滿安州博川价川寧邊等四邑得二犁是如是白遣。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早黍粟幾盡登場晚黍粟稷唐早稻舉皆成熟木花今方摘絮晚稻向熟豆太成實根豆木麥方張結顆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早黍粟方始刈獲晚黍粟稷唐早稻過半成熟木花早顆漸綻晚稻幾盡發穗豆太結殼根豆木麥今方起花，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火粟日益成熟根豆木麥間或起花是如爲白有臥乎所。嗣後農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달 16일에 평양 등 10개 고을의 우택과 21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6치인 경위 및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 달 16일의 비로 순안·영유·은산·순천·개천·가산·정주·선천·철산·박천·태천·삭주·창성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성천·양덕 등 9개 고을은 2서가 내렸습니다.

20일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강서·용강·삼화·중화·상원·삼등·강동·자산 등 1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사득쌌고 안주·박천·개천·영변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타작을 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대부분 익었고 목화는 지금 막 솜을 땀고, 늦벼는 익어갔고 콩·팥은 알이 여물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

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막 베어 수확하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  
수·올벼는 절반 이상 익었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점차 터졌고, 늦벼는 거의 다 이삭이  
팠고 콩·팥은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막 꽃이 피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날로 더욱 익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간혹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92. 1865년(고종 2) 8월 26일(양력 10월 15일)

道內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稷唐早稻已皆登場, 木花幾盡摘拾晚稻豆太方張收穫根豆木麥次第刈取德川寧遠孟山陽德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晚黍粟稷唐早稻今方登場, 木花過半摘拾晚稻豆太間或刈獲根豆木麥隨熟收穫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獲根豆木麥方始成實是如爲白乎旆. 今二十一日夜德川寧遠孟山江界陽德楚山肅川等七邑水霜降下是如爲白有臥乎所. 見今霜信已催穡事垂畢一路災實列邑分等更加詳探追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수수·올벼는 이미 다 타작했고, 목화는 거의 다 솜을 뺐고, 늦벼·콩·팥은 한창 수확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차례로 베어 거두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지금 막 타작했고, 목화는 절반 이상 솜을 뺐고, 늦벼·콩·팥은 간혹 베어 수확을 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익는 대로 수확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거의 수확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알이 여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21일 밤에 덕천·영원·맹산·강계·양덕·초산·숙천 등 7개 고을은 무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 서리는 이미 재촉하고 있고 농사는 거의 마쳤습니다. 온 도의 재해·결실과 여러 고을의 등급은 다시 상세히 살펴보고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93. 1865년(고종 2) 11월 10일(양력 12월 27일)

卽接義州府尹李建弼本月初七日巳時成貼狀啓謄報內本府境鴨綠江上下流間間合氷是如爲白  
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

방금 의주 부윤 이건필이 이번 달 초7일 사시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것을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의주부 지역의 압록강 상하류는 간간이 얼음이 얼었습니  
다.”라고 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94. 1866년(고종 3) 2월 6일(양력 3월 22일)

卽接義州府尹李建弼本月初四日午時成貼狀啓謄報內本府境鴨綠江上下流間解氷是如爲白  
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

방금 의주 부윤 이건필이 이번 달 초4일 오시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것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의주부 압록강 상하류는 간간이 얼음이 녹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695. 1866년(고종 3) 2월 17일(양력 4월 2일)

卽接各邑所報，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麴麥方始抽芽春麴隨其土解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見今天氣尙峭餘寒未退耕作自致差晚是白如乎凡係課農之節另加申飭使之着念舉行爲白乎旆，外此諸邑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막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봄보리는 땅이 풀리는 대로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현재 기후는 여전히 엄하고 남은 추위가 물어가지 않아 땅 가는 것이 자연 조금 늦어졌습니다. 무릇 농사짓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단히 지시해 유념하여 거행토록 했습니다. 이밖에 여러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96. 1866년(고종 3) 2월 27일(양력 4월 12일)

臣營下本月二十日得雨七分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江西三和兩邑得一犁平壤龍岡兩邑得二鋤順安肅川咸從中和三登江東成川等七邑得一鋤郭山浥塵是如爲白乎旆。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麴麥次第抽芽春麴今方耕播，嘉山定州郭山宣川鐵仙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博川泰川龜城等十七邑，秋麴麥今始抽芽春麴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雨澤及嗣後農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0일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서·삼화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용강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순안·숙천·함중·중화·삼등·강동·성천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꾀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지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꾀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박천·태천·구성 등 17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나오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 및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97. 1866년(고종 3) 3월 8일(양력 4월 22일)

道內農形及江西等十二邑，去月二十日雨澤，前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初七日未時量始雨或霏或灑當日丑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是白乎旆。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旣麥幾盡抽芽春旣已訖耕播漸次立苗，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秋旣麥次第抽芽春旣方張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列邑雨澤嗣後農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강서 등 12개 고을의 지난 달 20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7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오늘 축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점차 싹이 돋았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698. 1866년(고종 3) 3월 18일(양력 5월 2일)

道內農形及本月初七日得雨一寸一分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江西咸從等三邑得一犁三登得二鋤順安肅川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中和江東成川慈山殷山德川孟山龍岡三和甌山博川泰川等二十邑得二鋤, 龍岡義州兩邑浥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州等十九邑, 秋粃麥間或向青春粃舉皆立苗早黍粟方張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泰川博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秋粃麥幾盡抽芽春粃間或立苗早黍粟今始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粃始耕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嗣後農形, 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7일에 내린 비가 1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강서·함중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삼등은 2서가 내렸고, 순안·숙천·안주·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중화·강동·성천·자산·은산·덕천·맹산·용강·삼화·증산·박천·태천 등 20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용강·의주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푸르러졌고,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태천·박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땅을 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699. 1866년(고종 3) 4월 6일(양력 5월 19일)

道內農形前已既啓爲白有右果. 臣營下本月初五日酉時量始雨或霏或洒當日寅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七分足白乎旆. 農形段,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日益茁長春牟方張就茂早黍粟舉皆立苗間或向青晚黍粟稷唐早稻木花已訖耕種次第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漸次茁茂春牟今方向青早黍粟已訖耕播或有立苗晚黍粟稷唐早稻木花次第耕種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立苗火粟始耕是如爲有臥乎所. 白列邑得雨多寡嗣後農形, 待其報來陸續登聞計報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5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오늘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더욱 싹이 자랐고, 봄보리는 한창 무성해졌고,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싹이 돋았는데, 간혹 푸르러졌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차례로 싹이 돋았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싹이 무성해졌고, 봄보리는 지금 막 푸르러졌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더러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싹이 돋았고 화속은 땅을 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700. 1866년(고종 3) 4월 11일(양력 5월 24일)

道內農形及臣營下本月初五日得雨七分之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中和祥原三登等三邑溫塵平壤江西龍岡三和江東殷山寧遠博川泰川嘉山定州郭山寧邊等十三邑得一鋤，慈山得二鋤順安永柔肅川安州咸從甑山等六邑得一犁是如爲白乎旆。臣營下今初十日申時量又雨或霏或灑當日亥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列邑之均霑與否待其報來鱗次登間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5일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중화·상원·삼등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평양·강서·용강·삼화·강동·은산·영변·영원·박천·태천·가산·정주·곽산·영변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자산은 2서가 내렸고, 순안·영유·숙천·안주·함종·증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10일 신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그날 해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골고루 적셨는지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01. 1866년(고종 3) 4월 17일(양력 5월 30일)

本月初五日雨, 平壤等二十二邑雨澤及初十日, 臣營下得雨四分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五日雨成川孟山价川德川雲山熙川龜城義州等八邑得一鋤宣川龍川兩邑得二鋤順川鐵山兩邑得一犁, 初十日雨定州郭山成川孟山博川等五邑浥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宣川鐵山龍川義州江西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中和等十九邑得一鋤, 龍岡得二鋤三登泰川兩邑得一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粳麥今始胚胎春粳舉皆茁茂早黍粟日漸向青初鋤伊始晚黍粟稷唐早稻木花已盡立苗晚稻豆太方始耕種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粳麥日益茁長春粳方張就茂早黍粟幾盡立苗次第向青晚黍粟稷唐早稻木花耕種已畢或有立苗江界之三川慈城坊段, 春粳麥向青火粟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雨澤嗣後農形, 待其報來律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5일의 비로 평양 등 22개 고을의 우택 및 초10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5일의 비로 성천·맹산·개천·덕천·운산·회천·구성·의주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선천·용천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순천·철산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초10일의 비로 정주·곽산·성천·맹산·박천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선천·철산·용천·의주·강서·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중화 등 1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용강은 2서가 내렸고, 삼등·태천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무성해졌고, 올기장·올조는 날로 점점 푸르러졌는데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벼·콩·팥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더욱 싹이 자랐고, 봄보리는 한창 무성해졌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싹이 돋아 차례로 푸르러졌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땅을 깔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쳤는데, 더러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방의 경우, 봄보리·봄밀은 푸르러졌고, 화속은 싹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0702. 1866년(고종 3) 4월 20일(양력 6월 3일)

本月初十日雨澤及道內農形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本月十九日申時量又雨或霏或洒當日戌時量乃止，測雨器水深三分爲分白如乎。列邑均霑與否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0일 우택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9일 신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그날 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골고루 적셨는지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03. 1866년(고종 3) 4월 27일(양력 6월 9일)

本月十九日, 臣營下得雨三分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五日雨江界得一犁  
初十日雨, 寧邊雲山德川陽德等四邑得一鋤, 十九日雨, 平壤中和兩邑浥塵順安得一鋤是如爲白  
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  
川价川等十九邑, 秋粳麥已盡胚胎次第發穗春粳方始胚胎早黍粟初鋤幾畢晚黍粟稷唐早稻木花日  
漸向青晚稻豆太已畢畊種間或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  
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粳麥今始胚胎春粳舉皆苗長早黍粟  
初鋤伊始晚黍粟稷唐早稻木花次第向青晚稻豆太方始畊種江界之三川慈山兩坊段, 春粳苗茂火粟  
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雨澤嗣後農形, 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9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5일의 비로 강계는 1려가 내렸고, 초10일의 비로 영변·  
운산·덕천·양덕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19일의 비로 평양·중화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순안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  
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알을 뻗는데,  
차례로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막 알을 배기 시작했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날로 점점 푸르러졌고, 늦벼·콩·팥은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간혹 싹이 돋았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  
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  
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자랐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  
는 차례로 푸르러졌고, 늦벼·콩·팥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싹이 무성해졌고, 화속은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04. 1866년(고종 3) 5월 7일(양력 6월 19일)

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舉皆發穗間或入實春麴已盡胚胎次第發穗早黍粟再鋤伊始晚黍粟稷唐早稻木花方始初鋤晚稻太豆幾盡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出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麴麥已盡胚胎次第發穗春麴今始胚胎早黍粟初鋤已訖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伊始晚稻豆太已畢耕種間或立苗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麴苗長火粟向青是如爲白有臥乎乃本道幅圓原多野少雖云利旱農而罕水種前月初五日初十日之雨以鋤以犁終未普洽十九日營下三分之雨只不過近邑之泥塵夏至只隔數日甘澍尙靳一霈各穀有枯損之患列邑告渴悶之情此時圭壁之舉有不客少緩乙仍于先從沿野切急諸處祈雨祭不卜日虔誠設行外他各邑段置觀其被災定淺深次第雩祭之意今方關飭爲白乎旆. 嗣後農形, 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節到付永柔縣令趙秉老牒呈內三月二十九日政本職除授四月二十日辭朝今月初四日到任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見今夏至只隔曠乾太甚此時圭壁之舉有不客少緩而守令之曠官極爲可悶是白如乎受由上京是白在定州牧使徐經淳龍岡縣令俞初煥令該曹並催促不日下送爲白只爲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둥·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이삭이 났는데 간혹 알이 들었고, 봄보리는 이미 다 알을 났는데 차례로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콩·팥은 거의 다 싹이 돋았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알을 났는데 차례로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끝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벼·콩·팥은 이미 땅을 갈아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간혹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싹이 자랐고 화속은 푸르러졌다고 합니다. 본 평안도의 넓이는 구릉이 많고 들판은 적습니다. 비록 밭농사에는 이롭지만 논농사는 드뭅니다. 이전 달 초5일, 초10일의 비는 1서, 1려 정도여서 끝내 두루 충분치 못했습니다. 19일 감영에 내린 비는 3푼이어서 단지 근처 고을에 먼지만 적실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는 단지 며칠 사이인데 단비는 오히려 한바탕 퍼붓지 않아 각종 곡식이 마를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 고을에서 애타게 걱정하는 정황을 아뢰니 이때 기우제를 지내는 조치는 조금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먼저 매우 다급한 물가 근처 밭 여러 곳은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말고 기우제를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지내고, 그밖의 각 고을의 경우, 재해입은 것이 얕은지 깊은지를 보아서 차례로 기우제를 지내라는 뜻으로 지금 막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도착한 영유 현령(永柔縣令) 조병로(趙秉老)의 문서 보고 내용에,

“3월 29일에 본 직책에 임명되어 4월 20일에 발령 인사를 드리고 이번 달 초4일에 도착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현재 하지는 하루 사이인데 가뭄이 매우 심합니다. 이때 기우제를 지내는 거행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령자리가 비어있다니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휴가를 받아 서울로 올라간 정주 목사(定州牧使) 서경순(徐經淳), 용강 현령(龍岡縣令) 유초환(兪初煥)은 해당 이조에서 재촉하여 모두 빨리 내려보내도록 해주십시오.

## 0705. 1866년(고종 3) 5월 12일(양력 6월 24일)

道內農形及被旱最急處祈雨祭設行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祈雨祭粘報則平壤中和肅川郭山等四邑三次設行永柔順安兩邑二次設行三和咸從江東安州博川定州等六邑一次設行是如爲白乎旆，臣營下當日寅時量始雨霏灑酉時乃止，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亢旱之餘得此浥塵雖賢乎已無異沃焦言念民情去益渴悶以若未滿鋤之雨果能一一均霑是白乎喻第待所得多寡之齊報鱗次登聞計料而嘆乾最甚各邑段斯速設祭之意題飭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당해 가장 다급한 곳에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좀 전에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기우제 첨부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중화·숙천·곽산 등 4개 고을은 3차례 시행했고, 영유·순안 2개 고을은 2차례 시행했고, 삼화·함중·강동·안주·박천·정주 등 6개 고을은 1차례 시행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날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매우 가뭄 끝에 이처럼 먼지를 적실 정도 내렸는데 이미 밭 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애타고 걱정스럽습니다. 1서가 채 되지 않는 비로 정말로 하나하나 골고루 적셔줄 수 있을지요. 다만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가장 심한 각 고을의 경우, 어서 빨리 기우제를 지내라는 뜻으로 제음으로 지시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06. 1866년(고종 3) 5월 17일(양력 6월 29일)

本月十二日得雨四分及平壤等十二邑祈雨祭設行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白之雨，平壤順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順川三和等十二邑涖塵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等五邑得一鋤去月十六日驟雨孟山熙川价川等三邑得一鋤，江界渠微漲，今月初十日驟雨順安中和祥原江東永柔安州三和順川德川等九邑涖塵龍岡咸從兩邑得一鋤，十四日驟雨順安江西兩邑涖塵龍岡咸從肅川三邑得一鋤永柔得二鋤是如是白乎乃彌月亢旱鋤雨涖塵無異沃焦民情益渴列邑雩祭連〈爲殺行〉臣亦躬行至于二次而臣營下今十六日午時量始雨或灑或霏至申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顛望之餘得此甘霖被旱各穀庶有發興之澤連爲陰翳餘意尙濃言念農情誠甚萬幸圭璧之舉姑爲停止是白乎旃，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粳麥已盡入實次第向熟春牟舉皆發穗間或入實早黍粟再鋤幾畢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已訖晚稻豆太或有向青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秋牟麥已盡發穗間或入實春牟舉皆胚胎次第發穗早黍粟再鋤伊始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幾畢晚稻豆太幾盡立苗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牟今始胚胎火粟方張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各邑雨澤嗣後農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0일 내린 비가 4푼이고 평양 등 12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순천·삼화 등 1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지난 달 16일의 소나기로 맹산·회천·개천은 1서가 내렸고 강계는 도랑이 약간 불어났습니다. 이번 달 10일의 소나기로 순안·중화·상원·강동·영유·안주·삼화·순천·덕천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용강·함중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14일의 소나기로 순안·강서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용강·함중·숙천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영유는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한 달 넘게 가물었는데 1서의 비나 먼지만 적실 정도로는 밭 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갈수록 애가 탑니다. 여러 고을의 기우제는 --- 신도 또한 몸소 2차례 시행했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6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다가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바라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가뭄을 입은 각종 곡식이 거의 일어날 혜택을 있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짙은 구름이 있어 남은 조짐이 오히려 짙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일단 정지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알이 들었고 차례로 익어갔고, 봄보리는 대부분이 이삭이 났고 간혹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콩·팥은 더러 푸르러졌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이삭이 났고 간혹 알이 들었고, 봄보리는 대부분 알을 났고 차례로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거의 다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밀·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화속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각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07. 1866년(고종 3) 5월 27일(양력 7월 9일)

本月十六日得雨七分零<sup>祭</sup>停止之由，及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初十日驟雨郭山浥塵孟山得一鋤，十二日雨泰川定州寧邊等三邑得一鋤熙川得二鋤，江界得一犁，十四日驟雨价川安州泰川寧邊宣川等五邑浥塵甑山順川博川寧遠等四邑得一鋤，十六日雨德川雲山龍川等三邑浥塵平壤中和祥原三登成川陽德慈山順安安州嘉山郭山宣川鐵山博川泰川等十五邑得一鋤，江東寧邊兩邑得一犁，十九日驟雨，中和浥塵祥原三登江東成川等四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祈雨<sup>祭</sup>段中和七次祥原博川郭山鐵山等四邑六次平壤永柔肅川等三邑五次嘉山定州兩邑四次咸從江東安州慈山价川宣川龍川等七邑三次殷山三登成川順安寧邊雲山朔州義州等八邑二次龍岡甑山順川陽德泰川龜城昌城等七邑二次以上各邑十六日得雨並姑停<sup>祭</sup>德川三和楚山等三邑連爲設行而續接列邑雨牒則前後鋤浥終未優渥春秋兩麥經枯未實原野各穀幾萎難蘇有源畚稻在在龜圻不能鋤役沿海塩坂初不耕種已無餘望是如爲白乎所望覓民情日甚一日杲杲如烘農夕頗涼雨意漠然言念三農不勝渴悶第俟數日不得不復舉圭璧計料爲白乎旆。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麴麥半實僅熟間或刈取春麴根枯莖萎未實徑熟早黍粟已畢再鋤晚黍粟稷唐早稻木花再鋤伊始晚稻豆太方始初鋤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秋麴麥僅爲入實次第向熟春麴發穗未半間或向實早黍粟再鋤幾畢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已訖晚稻豆太方張向青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麴過半發穗火粟已畢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被旱淺深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6일 내린 비가 7푼이고 기우제를 정지한 영유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초10일의 소나기로 곡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맹산은 1서가 내렸습니다. 12일의 비로 태천·정주·영변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희천은 2서가 내렸고, 강계는 1려가 내렸습니다. 14일의 소나기로 개천·안주·태천·영변·선천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증산·순천·박천·영원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16일의 비로 덕천·운산·용천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평양·중화·상원·삼등·성천·양덕·자산·순안·안주·가산·곡산·선천·철산·박천·태천 등 1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동·영변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 5월 19일의 소나기로 중화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상원·삼등·강동·성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중화는 7차, 상원·박천·곽산·철산 등 4개 고을은 6차, 평양·영유·숙천 등 3개 고을은 5차, 가산·정주 2개 고을은 4차, 함중·강동·안주·자산·개천·선천·용천 등 7개 고을은 3차, 은산·삼등·성천·순안·영변·운산·삭주·의주 등 8개 고을은 2차, 용강·증산·순천·양덕·태천·구성·창성 등 7개 고을은 2차례 지냈습니다. 이상 각 고을은 16일 비가 내려 모두 잠시 기우제를 정지했으나 덕천·삼화·초산 등 3개 고을은 연이어 시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비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금까지 1서나 먼지를 적실 정도로는 끝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봄가을의 보리와 밀은 가뭄을 겪어 열매를 맺지 못했고, 들판의 각종 곡식은 거의 시들어 살아나기 힘들고, 물이 있는 논벼도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김매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닷가의 소금 비탈은 애당초 밭을 갈거나 씨앗을 뿌릴 수 없어서 이미 남은 희망이 없습니다. 구름을 바라는 백성들의 심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날마다 햇볕은 불같이 내려 쬐고 저녁에는 서늘해져 비올 조짐이 막연합니다. 삼농을 생각하면 애타고 걱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며칠을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기우제를 지낸 계획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반쯤 열매가 맺고 겨우 익어서 간혹 베어서 거두었고, 봄보리는 뿌리는 마르고 줄기는 비틀어져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간신히 익었습니다. 올기장·올조는 이미 두벌 김매기를 끝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벼·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겨우 알이 들어 차례로 익어갔고, 봄보리는 이삭이 팬 것이 절반이 못되었고 간혹 여물어들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가 거의 끝났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콩·팥은 한창 푸르러졌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밀·봄보리는 절반 이상 이삭이 났고, 화속은 이미 초벌 김매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가뭄을 입은 것이 얕은지 깊은지와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708. 1866년(고종 3) 6월 3일(양력 7월 14일)

本道雨澤之前後鋤浥終未優渥復舉圭璧之由，及南北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一直亢旱渴憫益甚先自臣營復舉圭璧而今月初二日酉時量始雨或灑或霏當日丑時至測雨器水深爲七分而濕雲尚濃方有繼霏之望言念民情誠爲萬幸雩祭今姑停止爲白乎旂。營下之嗣後所得列邑之均霑與否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의 우택이 지금까지 1서나 먼지를 적실 정도로는 끝내 충분하지 않았서 다시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 및 남북의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줄곧 가물어서 애타고 걱정되는 것이 더욱 심해져서 먼저 저의 감영에서 다시 기우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2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오늘 축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축축한 구름이 여전히 짙어서 바야흐로 계속해서 주룩주룩 내릴 가망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잠시 정지했습니다. 감영의 이후 내린 것과 여러 고을에 고루 적셨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09. 1866년(고종 3) 6월 7일(양력 7월 18일)

本月初二日得雨七分霽祭停止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伊後連日或霏或灑至初五日亥時量乃止，測雨器水深合爲三寸四分是白乎旆。連接各邑所報，則平壤中和江西龍岡咸從永柔肅川等七邑得一犁順安三和兩邑，川渠微漲是如爲白乎所亢旱渴悶之際，得此四寸之甘霖早晚各穀皆有勃興善就之望爲念農情誠極慰滿是白乎旆。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牟麥今已畢穫舉皆登場春粳未實徑熟間或刈取早黍粟三鋤伊始晚黍粟稷唐早稻木花再鋤已畢晚稻豆太初鋤幾畢，根豆木麥今始耕種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秋粳麥已盡向熟次第刈取春粳根枯莖萎半實僅熟早黍粟再鋤已畢晚黍粟稷唐早稻木花再鋤伊始晚稻豆太方始初鋤，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粳入實向熟火粟再鋤伊始是如爲白有臥乎所。列邑雨澤嗣後農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2일에 내린 비가 7푼이고 기우제를 정지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후 매일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5일 해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총 3치 4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중화·강서·용강·함중·영유·숙천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순안·삼화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약간 불어났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이미 수확을 마치고 대부분 타작했고, 봄보리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겨우 익은 것은 간혹 베어서 거두었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가 이미 끝났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땅을 갈아 씨뿌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익어가고 있고 차례로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뿌리



는 마르고 줄기는 비틀어져 절발이 열매가 맺혀 겨우 익어갔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가 이미 끝났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벼·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밀·봄보리는 알이 들어 익어갔고 화속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10. 1866년(고종 3) 6월 17일(양력 7월 28일)

本月初五日雨，平壤等十八邑得一犁慈山等三邑得二犁殷山微漲及十一日，臣營下得雨一寸九分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初五日雨龍川義州熙川渭原楚山昌城碧潼寧遠陽德等九邑得一犁泰川等二犁江界川渠微漲十一日雨，中和价川兩邑得二鋤平壤肅川安州定州龍川江東成川殷山江西等九邑得一犁順安川渠微漲是如爲白遣今十三日午時量又雨或霏灑或震沱十四日卯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是白乎旆。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春耨已盡刈穫舉皆登場早黍粟三鋤垂畢或有胚胎晚黍粟穫唐早稻木花三鋤伊始晚稻豆太初鋤已訖根豆木麥耕種已畢間或立苗，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秋耨麥畢穫登場春耨半實僅熟間或刈取早黍粟方始三鋤晚黍粟穫唐早稻木花再鋤起畢晚稻豆太初鋤過半根豆木麥今始畊種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耨幾盡向熟火粟再鋤方張是如爲白有臥乎不列邑雨澤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5일의 비로 평양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자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은산은 약간 불러났고, 11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5일의 비로 용천·의주·회천·위원·초산·창성·벽동·영원·양덕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태천 등은 2려가 내렸고, 강계는 시내와 도랑이 약간 불어났습니다. 11일의 비로 중화·개천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평양·숙천·안주·정주·용천·강동·성천·은산·강서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순안은 시내와 도랑이 약간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13일 오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세차게 쏟아지다가 14일 묘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봄보리는 이미 다 베어서 수확하고 대부분 이제 타작했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더러 알이 났고, 늦기장·늦

조·수수·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땅을 갈고 씨뿌리기를 이미 끝나고 간혹 싹이 돋았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수확이 끝나고 타작했고, 봄보리는 반쯤 알이 들어 겨우 익었는데 간혹 베어 거두었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거의 다 익어갔고 화속은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11. 1866년(고종 3) 6월 21일(양력 8월 1일)

本月十四日得雨二寸四分之由，及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十一日雨江界楚山碧潼渭原等四邑得一犁，十三日雨雲山嘉山二邑得二鋤，安州三和順安寧邊龍岡郭山鐵山朔州龍川定州龜城等十一邑得一犁，博川宣川義州等三邑得二犁，孟山泰川德川順川等四邑，川渠微漲是如爲白乎旆，臣營下今二十日寅時量又雨或霏灑或滂沱當日戌時量里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一分而濃雲未解餘意尙存是白如乎，列邑得雨多寡嗣後快請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4일에 내린 비가 2치 4푼인 연유 및 평안도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1일의 비로 강계·초산·벽동·위원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이번 달 6월 13일의 비로 운산·가산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안주·삼화·순안·영변·용강·곽산·철산·삭주·용천·정주·구성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박천·선천·의주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맹산·태천·덕천·순천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약간 불어났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0일 인시쯤에 또 비가 내려 더러 뿌리거나 더러 쏟아지다가 오늘 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짙은 구름이 아직 풀리지 않고 더 올 조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12. 1866년(고종 3) 6월 27일(양력 8월 7일)

本月二十一日得雨二寸一分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中和祥原三登等三邑得二鋤，慈山殷山永柔安州三和城川寧邊江西龍岡咸從甌山等十一邑得一犁平壤順安肅川等三邑得二犁，嘉山定州郭山宣川博川順川价川江東等八邑，川渠漲滿是如自是白乎旅。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早黍粟已盡胚胎間或發穗晚黍粟稷唐早稻或有胚胎木花今方結花並畢三鋤晚稻豆太再鋤伊始根豆木麥舉皆立苗日漸向青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春粳畢穫登場早黍粟三鋤乘畢今始胚胎晚黍粟稷唐早稻木花方張三鋤晚稻豆太初鋤已訖根豆木麥已畢耕種次第立苗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粳隨穫根畊火粟再鋤幾訖是如爲白臥乎所。見今兩麥已爲收穫考諸邑牒叅以聽聞則春分以前土脉融解畊播無愆雨暘均宜立留既臧庶占大穰矣際其茁茂二未優渥當其胚胎跨朔亢旱沿沃之地僅爲發穗而徑枯未實高燥之田萎縮未穎而終鮮取種分言全省秋耕稍勝於春種清南差遜於以北統以計之未免告歛當此窮節田家資食專告非於兩麥之築場大違所望念被民情誠極悶然列邑雨澤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1일 내린 비가 2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중화·상원·삼등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자산·은산·영유·안주·삼화·성천·영변·강서·용강·함중·증산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숙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가산·정주·곽산·선천·박천·순천·강동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넘쳤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알이 배었고 간혹 이삭이 뻗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더러 알이 배었고 목화는 방금 꽃이 맺혔고 모두 세벌 김매기가 끝났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대부분 싹이 돋았고, 날로 점점 푸르러졌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

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봄보리는 수확이 끝나고 타작했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가 끝났고 지금 알이 배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미 땅을 갈고 씨뿌리기를 마쳤고 차례로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수확하는 대로 그루같이했고, 화속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현재 보리와 밀은 이미 거두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보고를 살펴보고 소문을 참고해보건대 춘분 이전에 땅이 풀려서 땅을 갈고 씨 뿌리는데 시기를 어기지 않았고 비와 햇볕이 골고루 적당하여 싹이 돋은 것은 이미

見今兩麥已爲收穡考諸邑牒叅以聽聞則春分以前土脉融解畊播無愆雨暘均宜立留既臧庶占大穰矣際其茁茂二未優渥當其胚胎跨朔亢旱沿沃之地僅爲發穗而徑枯未實高燥之田萎縮未穎而終鮮取種分言全省秋耕稍勝於春種清南差遜於以北統以計之未免告歛當此窮節田家資食專告非於兩麥之築場大違所望念被民情誠極悶然列邑雨澤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13. 1866년(고종 3) 7월 7일(양력 8월 16일)

去月二十一日雨澤及農形前已馳啓爲白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鐵山雲山昌城碧潼德川孟山陽德等七邑得一犁龍川義州兩邑得二犁, 熙川江界渭原楚山泰川龜城朔州寧遠等八邑, 川渠漲溢是如爲白乎旆. 臣營下本月初六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當日辰時量至測雨器水深爲七分而濕震滿空尙有餘意是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發穗次第入實晚黍粟稷唐早稻舉皆胚胎間或發穗木綿方始開花晚稻豆太再鋤垂畢, 根豆木麥初鋤伊始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幾盡胚胎間或發穗晚黍粟稷唐早稻或有胚胎木綿今始結花並畢三鋤晚稻豆太方張再鋤根豆木麥舉皆立苗日漸向青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今方三鋤根耕已畢或有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雨澤嗣後農形, 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1일의 우택 및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철산·운산·창성·벽동·덕천·맹산·양덕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용천·의주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희천·강계·위원·초산·태천 구성·삭주·영원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넘쳐흐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오늘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습한 구름이 공중에 가득하고 아직 더 내릴 조짐이 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이삭이 났고 차례로 알이 들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대부분 알이 들었고 더러 이삭이 났고 목화는 지금 막 꽃이 피기 시작했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

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알이 배었고 간혹 이삭이 뻗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더러 알이 배었고 목화는 지금 꽃이 맺히기 시작했으며 모두 세벌 김매기가 끝났고, 늦벼·콩·팥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대부분 싹이 돋았고, 날로 점점 푸르러졌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지금 막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갈이는 이미 마쳤고 더러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714. 1866년(고종 3) 7월 13일(양력 8월 22일)

本月初六日雨澤及農形已爲馳啓爲自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龜城定州兩邑得一鋤平壤順安州寧邊郭山雲山等六邑得二鋤宣川龍川博川等三邑得一犁泰川熙川兩邑, 川渠微漲是如爲白乎旆. 臣營下本月十一日卯時量始雨一直暴霖當日午時至測雨器水深爲六寸七分而尙此滂沱是白如乎嗣後形止及列邑之得雨多寡麟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6일의 우택 및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구성·정주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양·순안·안주·영변·곽산·운산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선천·용천·박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태천·회천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약간 불어났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1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세차게 주룩주룩 내리면서 오늘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7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 및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15. 1866년(고종 3) 7월 17일(양력 8월 26일)

本月十三日得雨六寸七分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伊日午時以後或滂沱或霏灑申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而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慈山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殷山等十六邑，川渠漲滿寧邊雲山博川嘉山定州等五邑江川漲溢是如爲白乎旆，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早黍粟日漸向熟晚黍粟稷唐早稻間或入實木花今方結穎晚稻方始胚胎豆太間或起花根豆木麥再鋤伊始嘉山定州郭山宣山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早黍粟次第入實晚黍粟稷唐早稻已盡發穗木花方張起花晚稻豆太再鋤已畢，根豆木麥初鋤方張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火粟間或發穗根豆木麥日漸向青而就中寧邊博川兩邑段驟雨暴漲垆潰缺多小民戶早晚各穀在在沉墊言念民事誠爲悶然是白乎旆，未報邑雨澤嗣後農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에 내린 비가 6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그날 오시 이후로 더러 쏟아지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둥·강둥·삼화·자산·강서·용강·함중·증산·은산 등 1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영변·운산·박천·가산·정주 등 5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둥·강둥·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날로 점점 익어갔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간혹 알이 들었고 목화는 지금 다래를 맺고, 늦벼는 막 알이 배기 시작했고 콩·팥은 간혹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한창 꽃이 피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가 이미 끝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간혹 이삭이 뻗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날로 점점 푸르러졌습니다. 그중 영변·박천 2개 고을의 경우 소나기로 세차게 불어나 제방이 터져서 얼마간의 백성 가구, 올곡·늦곡 등 각종 곡식이 곳곳에서 잠겼습니다.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 및 이후 농사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16. 1866년(고종 3) 7월 27일(양력 9월 7일)

本月十三日雨, 平壤等十六邑漲滿嘉山等五邑漲溢之由已爲馳啓爲自有在果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郭山鐵山龍川義州順川价川德川寧遠孟山熙川朔州等十一邑江川漲滿成川宣川楚山泰川龜城等五邑, 川渠漲溢是如是白遣. 臣營下今二十五日亥時量始雨或灑或淫二十六日午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是白乎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幾盡成熟晚黍粟稷唐早稻已盡入實次第向熟木綿顆房漸堅晚稻舉皆胚胎間間發穗豆太方始結穀根豆木麥再鋤垂畢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自漸向熟晚黍粟稷唐早稻間或入實木綿今方結顆晚稻方始胚胎豆太或有起花根豆木麥初鋤已畢江界之三川慈城兩段, 火粟今入實根豆木麥初鋤伊始而就中嘉山定州宣川定寧邊泰川龜城安州等七邑段江漲川溢各穀無不沉墊山汰沙覆田畚隨處潰缺是如爲白有臥乎所. 數日暴淫七郡被災早晚各穀舉多受傷言念民事誠極憂悶未報邑雨澤嗣後農形, 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의 비로 평양 등 16개 고을은 불어나 가득찼고, 가산 등 5개 고을은 불어나 넘쳤던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곡산·철산·용천·의주·순천·개천·덕천·영원·맹산·회천·삭주 등 11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가득찼고, 성천·선천·조산·태천·구성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5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6일 오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이미 다 알이 들어 차례로 익어갔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차 단단해졌고, 늦벼는 대부분 알이 배어 간간이 이삭이 났고 콩·팥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했고, 그루깁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곡산·선

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날로 점점 익어갔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간혹 알이 들었고 묵화는 지금 다래를 맺고, 늦벼는 막 알이 배기 시작했고 콩·팥은 더러 꽃이 피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지금 알이 들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산·정주·선천·영변·태천·구성·안주 등 7개 고을은 강이 불어나고 시내가 넘쳐서 각종 곡식으로 물에 잠기지 않은 것이 없었고 산사태로 모래가 논밭을 덮었고 가는 곳마다 터졌다고 합니다.

여러 날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7개 군이 재해를 입었는데 올곡 늦곡 각종 곡식은 대부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근성과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 및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17. 1866년(고종 3) 7월 27일(양력 9월 5일)

節到付博川郡守李應洙牒呈內今月十二日雨直暴霍大小川渠舉皆漲溢本郡郡內西面東面南面德安等五面民家漂頽大戶爲四戶中戶爲四十戶小戶爲二百六十八戶渰死爲十七人壓死爲二人而屍身並拯得是如爲白乎旡. 定州牧使徐經淳牒呈內今月十二日雨達夜暴霍山汰江漲本州高峴東州新安伊彥等四坊民家漂頽中戶爲四戶小戶爲二十一戶渰死爲六人壓死爲三人而屍身並拯出是如爲白乎旡. 安州兼任兵馬虞候金若浩牒呈內今月十二日雨連爲霍下江川大漲同州州內東面青山等三面民家漂頽大戶爲三戶中戶爲七戶小戶爲二百三十八戶渰死爲一人壓死爲四人而屍身並拯出是如爲白乎旡. 寧邊府使朴齊寅牒呈內今月十二日雨晝夜暴霍川渠漲溢山崖汰落本府北城門樓二十間忽地漂頽四窠虹霓之石漂淬無餘而城內及各面民家之漂頽渰死待水退摘奸修成冊牒報計料是如爲白乎旡. 龜城府使李泰熙牒呈內今月十二日雨一直暴霍川渠漲溢水口門二間盡爲崩頽城堞之間間頽圯者體城合爲二百三十九把女牆合爲五百十六把而城村民家頽壓數爻待摘奸齊到修成冊牒報計料是如爲白乎旡. 泰川縣監李忠翼牒呈內今月十二日雨連爲暴霍川渠漲溢陸地成江而民家頽壓人命渰死待水退摘奸修成冊牒報計料是如爲白乎旡. 嘉山郡守洪南周牒呈內今月十二日雨連爲暴霍川渠大漲而境內民家之頽壓人命之渰死詳細摘奸修成冊牒報計料是如爲白有臥乎所. 當此農節漂頽渰壓若是夥多言念民情極爲驚慘其所結構掩埋之節不容少緩乙仍于先自臣營各別顧恤趁卽結構奠接之意措辭題飭爲白乎旡. 博川定州安州等三邑漂頽戶及渰壓死人等原恤典依例題給後役姓名及穀數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令該廳考例會減施行教是白乎旡. 寧邊龜城泰川嘉山等四邑漂頽數爻待其成冊報來更爲登聞計料而寧邊龜城兩邑段保障重地城堞門樓之如是崩頽一時可悶故修築改建之方各自該邑卽速經紀之意措辭題飭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도착한 박천 군수 이응수의 문서 내용에,

“이번 달 12일 비가 곧장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대부분 불어 넘쳐서 본 박천군의 군내·서면·동면·남면·덕안 등 5개 면의 민가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져서 대호는 4가구, 중호는 40가구, 소호는 268가구이고, 빠져죽은 사람이 17명, 깔려 죽은 사람이 2명이었는데 시체는 모두 건졌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주 목사 서경순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12일 비가 밤새도록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산사태가 나고 강을 불어나서 본 고을의 고현·동주·신안·이언 등 4방의 민가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졌는데, 중호는 4가구, 소호는 21가구이고, 빠져죽은 사람이 6명 깔려죽은 사람이 4명이고, 시체는 모두 건져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안주 겸임 병마 우후 김약호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12일 비가 연이어 주룩주룩 내려 강과 시내가 크게 불어나서 저희 고을의 주내·동면·청산 등 3개 면의 민가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졌는데, 대호는 3가구, 중호는 7가구, 소호는 238가구이고, 빠져죽은 사람이 1명 깔려죽은 사람이 4명이고, 시체는 모두 건져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변 부사 박제인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12일 비가 밤낮으로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산언덕은 사태가 났습니다. 본 영변부 북성(北城)의 문루(門樓) 12칸이 갑자기 무너져서 4개의 홍예석이 남김없이 떠내려 갔습니다. 각 면의 민가 중 떠내려가고 무너졌거나 빠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보고 성책으로 작성하여 문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성 부사 이태희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12일 비가 줄곧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수구문 2칸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성첩 중 사이사이에 무너진 것은 체성이 총 239파이고 여장이 총 516파입니다. 성 안의 무너진 민가의 숫자는 캐본 것이 일제히 도착하기를 기다려 성책으로 작성하여 문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태천 현감 이충익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12일 비가 연이어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육지는

강을 이루었습니다. 백성 집 중 무너지거나 빠져죽은 사람은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보고 성책으로 작성하여 문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산 군수 홍남주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12일 비가 연이어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지역 내 백성 집 중 무너지거나 빠져죽은 사람은 상세히 캐보고 성책으로 작성하여 문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농사철이 닳쳤는데 떠내려가거나 깔려죽은 것이 이처럼 많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놀랍고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집을 지어주거나 시체를 매장하는 대목은 조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저의 감영에서 각별히 돌보고 구휼하고 제때 집을 지어 머물게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제음으로 지시했습니다.

박천·정주·안주 등 3개 고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 및 빠져죽거나 깔려죽은 사람들의 기본 구호 규정대로 제음을 준 후에 직역, 성명 및 곡물 수요 성책을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변·구성·태천·가산 등 4개 고을의 떠내려 간 수효는 성책해 보고하기를 기다려 다시 아될 계획입니다. 영변·구성 2개 고을의 경우 보장의 중요한 지역인데 성첩의 문루가 이처럼 붕괴된 것이 이와 같다니 한 때 걱정입니다. 때문에 수리하고 다시 쌓는 방안을 각자 해당 고을에서 즉시 공사를 시작하라는 뜻으로 제음으로 지시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718. 1866년(고종 3) 7월 26일(양력 9월 4일)

寧邊龜城泰川吉嘉山等四邑民家漂頽數爰待成冊報來登聞計料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卽接泰川縣監李忠翼牒呈內本縣東邑內西邑內東面西面長林北面等六面民家漂頽大戶爲三戶中戶爲十一戶小戶爲一百五十七戶淹死爲三十一人而屍身並極出是如爲白乎旆. 嘉山郡守洪南周牒呈內本郡東面南面西面東北面等四面民家漂頽中戶爲十戶小戶爲二百五十五戶淹死爲一人壓死爲四人而屍身並極得是如爲白乎旆. 宣川府使李南輔牒呈內今月十二日雨一直暴霍大小川渠舉皆漲溢本府邑內深川山普光新府南面東面等六面民家頽壓中戶爲九戶小戶爲二十戶是如爲白乎旆. 雲山郡守許洵牒呈內今月十二日雨達夜暴霍山汰川漲本郡邑內面居鄭齊恒家爲沙汰所頽而齊恒夫妻一時壓死是如爲白有臥乎所. 當此農節民家漂頽人命淹壓若是夥多按牒叅情極爲驚慘其所結搆掩埋之節不容少緩乙仍于先自臣營拔例顧恤趁卽結搆奠接之意措辭題飭於各其邑爲白乎旆. 同漂頽戶及淹壓死人等原恤典依例題給後役姓名及穀數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令該廳考例會減施行教是白乎旆. 寧邊龜城兩邑段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영변·구성·태천·가산 등 4개 고을의 백성 집 중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수효는 성책해 보고하기를 기다려 다시 아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태천 현감 이충익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현의 동읍내·서읍내·동면·서면·장림·북면 등 6개 면의 백성 집 중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은 대호가 3가구, 중호가 11가구, 소호가 157가구이고 빠져 죽은 사람은 31명이고 시체는 모두 건졌습시다.”

라고 했습니다.

가산 군수 홍남주의 문서 보고 내용에,

“본군 동면·남면·서면·동북면 등 4개면의 백성 집 중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은 중호가 10가구, 소호가 255가구이고 빠져 죽은 사람은 1명이고 깔려 죽은 사람은 4사람이었습니다. 시체는 모두 건졌습시다.”

라고 했습니다.

선천 부사 이남보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12일에 비가 줄곧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은 대부분 불어나 넘쳤고, 본 선천부의 읍내, 신천, 산보, 광신, 부남면, 동면 등 6개면의 백성 집 중 떠내려 가거나 무너진 것은 중호가 9가구, 소호가 20가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운산 군수 허유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12일의 비가 밤새도록 줄곧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산사태가 나고 시내가 불어나 본 군 읍내면에 사는 정제항의 집이 산사태로 무너져서 정제항의 부부가 한꺼번에 깔려 죽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농사철이 닳았는데 떠내려간 백성 집과 깔려죽은 사람이 이처럼 많으니 문건을 살펴보고 정황을 참작해 보니 놀랍고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집을 지어주거나 시체를 매장하는 대목은 조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저의 감영에서 규정대로 돌보고 구휼하고 제때 집을 지어 머물게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제음으로 지시했습니다. 위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 및 물에 빠져죽거나 깔려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본 구호는 규정대로 제음을 준 후에 직역, 성명 및 곡물 수요는 성책을 작성해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변·구성 2개 고을의 경우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19. 1866년(고종 3) 8월 5일(양력 9월 13일)

寧邊龜城兩邑漂頽數爻待其報來登聞計料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卽接寧邊府使朴齊寅牒呈內本邑邑內八院薪峴延山獨山梧里撫山少林檢山百嶺魚川等十一面民家漂頽大戶爲十二戶中戶爲二十四戶小戶爲三十二戶渰死爲三人而待水退摘奸之際，日子自至遲滯是如爲白乎旡。龍淵鎮別將劉錫薰牒呈內去月初十日雨至十三日連霏覆沙鎮內民家頽壓小戶爲十六戶是如爲白乎旡。朔州府使李昌漢牒呈內去月十九日之雨本府豐面居金陽祿家爲沙汰所頽而其妻李召史及兩子一女並爲壓死是如爲白有臥乎所。民家漂頽人命渰壓聞甚驚慘其所結構掩埋之節不容少緩乙仍于先自臣營各別顧助趁卽結構奠接之意措辭題飭爲白乎旡。同漂頽戶及渰壓死人等原恤典依例題給後役姓名及穀數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令該廳考例會減施行教是白乎旡。龜城府漂頽戶段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영변·구성 2개 고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수효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이라는 연유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영변 부사 박제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고을의 읍내·팔원·신현·연산·독산·오리·무산·소림·검산·백령·어천 등 11개 면의 백성 집 중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은 대호가 12호, 중호 24호, 소호가 32호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3명입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볼 즈음에 날짜가 지체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용연진 별장 유석훈의 문서 보고 내용에,

“지난 달 초10일 비가 내렸는데 13일까지 연이어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모래로 뒤덮여 진영 내 백성 가구 중 무너지거나 깔렸던 것은 소호가 16가구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삭주 부사 이창한의 문서 보고 내용에,

“지난 달 초19일 비로 본 삭주부 풍면에 사는 김약록의 집이 사태로 무너졌는데 아내 이 조이 및 아들 2명, 딸 1명이 모두 깔려죽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깔려죽었다니 듣기에 매우 놀라고 참혹합니다. 집을 지어주거나 시체를 매장하는 대목은 조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저의 감영에서 각별히 돌보고 구휼하고 제때 집을 지어 머물게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제음으로 지시했습니다.

위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 및 물에 빠져죽거나 깔려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본 구호는 규정대로 제음을 준 후에 직역, 성명 및 곡물 수요는 성책을 작성해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성부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의 경우,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20. 1866년(고종 3) 8월 7일(양력 9월 15일)

去月二十六日得雨一寸六分之由，及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順安永柔等三邑得一犁，肅川慈山殷山中和祥原等五邑得一鋤，江西龍岡三登江東成川等五邑浥塵是如爲白乎旆，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早黍粟方始刈獲晚黍粟稷唐早稻已盡成熟木綿早顆漸綻晚稻已盡發穗豆太舉皆結殼間或成實根豆木麥今方起花，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早黍粟已盡成熟間或刈取晚黍粟稷唐早稻舉皆入實日漸向熟木綿顆房漸堅晚稻已盡胚胎間或發穗豆太方始結殼根豆木麥再鋤已畢間或起花，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火粟日漸向熟根豆木麥方張再鋤是如爲白有臥乎所，列邑雨澤嗣後農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6일의 내린 비가 1치 6푼인 연유 및 평안도내 농사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 보고 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숙천·자산·은산·중화·상원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서·용강·삼등·강동·성천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막 베어 수확하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이미 잘 익었고 목화는 이른 것은 다래가 점차 터졌고, 늦벼는 이미 이삭이 났고 콩·팥은 대부분 꼬투리를 맺었는데 간혹 여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익었는데 간혹 베어 거두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대부분 알이 들었는데 날로 점점 익어갔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차 단단해졌고, 늦벼는 지금 이미 알이 났었는데 간혹 이삭이 났고 콩·팥은 막 꼬투리를 맺어가기 시작했고, 그루같이 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가 이미 끝났는데 간혹 꽃이 피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날로 점점 익어갔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21. 1866년(고종 3) 8월 10일(양력 9월 18일)

節到付義州府尹李建弼牒呈內去月十九日雨至二十日連霖川渠漲溢本府光化楊西楊下津里古邑古郡月華威遠批峴古寧朔所串等十一面民家漂頽小戶爲一百三十六戶渰死爲四人而遠近各面別遣摘奸之際，自至日子之遲滯是如爲白有臥乎所，當此秋節百餘戶之漂頽係是矜閔而四人命之渰死尤極驚慘其所結構掩埋之節先自臣營各別顧助趣卽奠安之意措辭題飭爲白乎脉漂頽戶及渰死人等原恤曲依例題給後，役姓名及穀數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도착한 의주 부윤 이건필의 문서 보고 내용에,

“지난 달 19일부터 20일까지 연이어 주룩주룩 내려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습니다. 본 의주부의 광화·양서·양하·진리·고읍·고군·월화·위원·비현·고녕·삭소곶 등 11개 면의 백성 집 중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으로 소호가 136가구이고 빠져 죽은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 멀고 가까운 각 면에 별도로 파견하여 캐널 즙음에 자연히 날짜가 지체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을철에 100여 가구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졌다니 불쌍하고 걱정스럽습니다. 4명의 목숨이 빠져 죽었다니 매우 놀랍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집을 지어주거나 시체를 매장하는 대목은 먼저 저의 감영에서 각별히 돌보고 도와주어 제때 머물러 지내게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제음으로 지시했습니다.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 및 물에 빠져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본 구호는 규정대로 제음을 준 후에 직역, 성명 및 곡물 수요는 정책을 작성해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0722. 1866년(고종 3) 8월 15일(양력 9월 23일)

龜城府漂賴戶數待其報來登聞計料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即接龜城前府使李熙牒呈內本府西山內東龍淵沙器龍頭蘆洞梨峴天摩五鳳北面芳峴塩坊左部東山等十四坊民家漂賴大戶爲一百四十戶中戶爲三百十五戶小戶爲一百六十二戶渰死爲四名壓死爲十九名而待水退摘奸之際日子自至遲滯是如爲白有臥乎所民家漂賴人命渰壓若是夥多聞甚驚慘其所結構掩埋之節不容少緩仍于先自臣營咎別顧助趁即結構掩埋之意措辭題飭爲白乎於同漂賴戶及渰壓死人等原恤典依例題給後役姓名及穀數修威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乎於民家漂賴人命渰壓何等緊重而去月十二日之灾報今始報來者雖或摘奸之遲滯其所舉行極爲駭惋故該邑首吏鄉自臣營從重科治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구성부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 수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아될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급 구성 전 부사 이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구성부의 서산·내동·용연·사기·용두·노동·이현·천마·오봉·북면·방현·염방·좌부·동산 등 14개 방의 백성 집 중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으로 대호가 140가구, 중호가 315가구, 소호가 162가구이고 빠져 죽은 사람이 4명이고 깔려죽은 사람이 19명이었습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널 즈음에 날짜가 자연 지체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사람 목숨이 빠지거나 깔린 것이 이처럼 많다니 듣기에 매우 놀랍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집을 지어주거나 시체를 매장하는 대목은 조금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의 감영에서 각별히 돌보고 도와주어 제때 집을 짓고 매장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제음으로 지시했습니다.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 및 물에 빠져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본 구호는 규정대로 제음을 준 후에 직역, 성명 및 곡물 수요는 정책을 작성해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규정을 살펴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사람 목숨이 빠지거나 깔려 죽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달 12일 재해 보고를 지금에야 비로소 보고해 온 것은 비록 더러



캐내는데 지체되었다고는 하지만 거행하는 원칙상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때문에 해당 고을의 우두머리 이향을 저의 감영에서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할 계획인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23. 1866년(고종 3) 8월 17일(양력 9월 25일)

去月十六日雨, 平壤等三邑得一犁, 肅川等五邑得一鋤, 江西等五邑浥塵之由, 及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 農形段,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登場晚黍粟稷唐早稻今始刈穫木綿次第拾取晚稻日漸入實豆太間或成實根豆木麥方始結穀,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舉皆刈獲晚黍粟稷唐早稻次第成熟木綿早穎向縫晚稻已盡發穗豆太方始入實根豆木麥幾盡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成熟根豆木麥再鋤已畢而安州嘉山定州宣川義州博川泰川龜城寧邊等九邑偏被酷災沿浦沈墊之禾稼終未蘇醒漬決覆沙之田畝勢難起畊是如爲白乎所爲念民事誠甚憂悶嗣後農形待其報來韓次登聞計科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16일 비로 평양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숙천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서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던 연유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 기장·올조는 이미 타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지금 베어 수확을 시작했고, 목화는 차례로 솜을 땀고, 늦벼는 날로 점점 알이 들었고 콩·팥은 간혹 여물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조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베어 수확을 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차례로 익었고 목화는 이른 것은 다래가 터졌고, 늦벼는 이미 이삭이 뻗고 콩·팥은 막 알이 들기 시작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다 꽃이 피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날로 익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습니다. 안주·가산·정주·선천·의주·박천·태천·구성·영변 등 9개 고을은 매우 혹독한 재해를 입었고 물가 근처 포구의 경우, 물에 잠긴 벼는 끝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독이 터져 모래가 덮힌 논밭은 형세상 농사짓기 어렵습니다.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니 정말로 매우 근심이고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724. 1866년(고종 3) 8월 27일(양력 10월 5일)

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晚黍粟稷唐早稻已盡刈獲間或登場木綿連爲於取晚稻豆太次第戊熟根豆木麥日漸入實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邊孟山陽德寧遠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舉皆登場晚來栗稷唐早稻已盡刈獲術綿間或摘拾方張入實根豆木麥次第成實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或有刈獲根豆木麥方始結穀而肅川三和順川价川德川成川陽德博川泰川朔州定州郭山宣川等十三邑段今十五六日夜水霜已降寧邊雲山龜城等三邑十八日夜肅霜降下是如爲白有臥乎所. 今見今霜信已屆穡事漸畢一路災實各邑分等更加詳探追後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함경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이미 모두 베어서 수확하고 간혹 타작했고, 묵화는 연이어 솜을 땀고, 늦벼·콩·팥은 차례로 익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날로 더욱 점점 알이 들었습니다. 덕천·영원·맹산·양덕·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타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이미 베어 수확했고 묵화는 간혹 솜을 땀고 한창 알이 들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차례로 알이 들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더러 베어 수확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숙천·삼화·순천·개천·덕천·성천·양덕·박천·태천·삭주·정주·곽산·선천 등 13개 고을의 경우, 이번 달 15일·16일 밤에 서리가 이미 내렸고 영변·운산·구성 등 3개 고을은 18일 밤에 된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건대 서리 소식이 이미 닳쳤고 농사는 점점 끝나갔습니다. 온 지역의 풍흉과 각 고을의 등급은 다시 자세히 살펴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725. 1866년(고종 3) 12월 4일(양력 1월 9일)

卽接義州府尹李建弼本月初二日午時成帖狀啓謄報內今月望前巡檢大國人十名出來而本府境鴨綠江上下流已畢合氷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의주부윤 이건필(李建弼)이 이번 달 초2일 오시에 문서를 만들어 장계등보한 것을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보름 전에 순검 대국인 11명이 나왔다. 본 의주부 지역 압록강 상하류가 이미 얼음이 얼었다고 합니다. 결빙되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발행인	박수희
총괄	김은영
기획	김재영
책임번역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공동번역	이상식·유성국·오연숙
출판편집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감수	조윤선(전주대학교)·김상환(고문헌연구원)
제작	흐름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880-01
ISBN	979-11-6988-379-5(93450)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발행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a href="https://science.kma.go.kr/museum">https://science.kma.go.kr/museum</a>
자료협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 비매품

© 국립기상박물관

©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출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